

재계, 불확실성 속 경영전략 재정비 속도전

AI·리밸런싱으로 초격차 새판 짬다

주요그룹 ‘미래 먹거리’ 초점 SK, 차세대 성장축 중심 재편 LG ‘선택·집중’으로 中 대응 삼성, 내달 글로벌 전략회의

국내 주요 그룹들이 글로벌 경기침체와 지정학적 리스크 등 불안정한 경영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경영 전략 점검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각 그룹마다 당면한 과제는 다르지만 기업들의 최고 경영자들은 인공지능(AI) 시대에 맞춘 초격차 기술 혁신을 통한 미래 먹거리 확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SK그룹은 오는 8일까지 경기 이전 SKMS 연구소에서 CEO 세미나를 열고 리밸런싱, AI 등을 핵심 주제로 논의에 나선다. CEO 세미나는 6월 경영전략회의(옛 확대경영회의), 8월 이천포럼과 함께 SK그룹의 핵심 연례행사다. 이번에는 이례적으로 인사 이후 세미나를 개최해 새롭게 구성된 경영인들과 적극적으로 내년 전략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리밸런싱은 SK그룹이 추진해 온 사업 포트폴리오 재편 전략으로, 비주력 사업은 매각하고 미래 산업에 투자하는 것이다. 최 회장은 지난 3일 SK AI 서밋에서 “회사마다 차이가 있지만 리

밸런싱 작업은 내부가 튼튼해질 때까지 계속해서 한다는 생각이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AI 역시 올해 핵심 주제로 논의될 전망이다. 대부분 계열사들은 AI 트랜스포메이션에 대응하는 방안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SK 관계자는 “모든 계열사들이 사업 계획을 준비하면서 AI를 빼놓지 않을 정도로 중요한 부분이 됐다”고 말했다.

LG그룹은 지난달 23일부터 LG전자, LG디스플레이 등 전자 계열사를 시작으로 LG화학, LG에너지솔루션, LG유플러스 등 주요 계열사의 사업보고를 순차적으로 받고 있다. 구광모 회장은 이같은 주요 계열사의 한 해 사업 성과와 내년 전략을 듣고 장기적인 전략을 구상할 전망이다. 현재 LG그룹은 가전과 TV, 석유화학, 배터리 등 핵심 계열사들이 중국 기업의 거센 추격을 받고 있으며 미국발 관세 리스크에 직면해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한 ‘선택과 집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구 회장은 지난 9월 경기도 이전 LG인화원에서 열린 사장단 회의에서 중국 경쟁사들의 자본·인력 투입 규모를 경계하며 “그동안 구조적 경쟁력 강화가 시급하다는 인식으로 지속 가능



산불진화장비 시찰하는 윤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6일 강원도 원주시 산림항공본부에서 열린 산불진화 관·군 합동훈련 점검에서 산불진화장비를 시찰하고 있다. /뉴시스

한 경쟁 우위와 수익성 강화를 위한 ‘사업의 선택과 집중’, 차별적 경쟁력의 핵심인 ‘위닝 R&D’, ‘구조적 수익체질 개선’ 등 크게 3가지를 논의해 왔지만 여전히 해야 할 일이 많다”고 강조

한 바 있다. 삼성은 다음달 글로벌 전략회의를 열고 내년도 사업 계획 논의에 나설 전망이다.

〈2면에 계속〉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삼성전자, 獨 플렉트 품고 B2B 공조 강화

산업용 공조 시장 본격 진출 AI·플렉트 결합 새기회 모색

삼성전자가 고성장 중인 글로벌 공조시장에서 사업을 확장한다.

삼성전자는 유럽 최대 공조기 기업체인 독일 플렉트그룹(이하 플렉트) 인수 절차를 완료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인수를 통해 삼성전자는 플렉트의 생산·판매 거점 등 핵심 인프라와 네트워크를 활용해 공조 솔루션을 개발하고, 단계적으로 양사의 제품·서비스를 결합해 시너지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플렉트는 100년 이상의 역사와 기술력을 바탕으로 유럽을 비롯한 글로벌 시장에서 데이터센터, 대형 상업시설·병원 등에 중앙공조, 정밀 냉각 솔루션을 공급하고 있다.

특히 글로벌 10여 개의 생산거점과 유럽·미주·중동·아시아까지 폭넓은 판매·서비스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다. 또 ▲터널·선박·방산용 환기, 화재 안전 시스템을 제공하는 ‘우즈’ ▲공기조화·유동 솔루션을 담당하는 ‘썬코’ ▲자동차 기반 빌딩 제어 전문 회사 ‘SE-Elektronik’ 등의 자회사도 운영하고 있다.

이번 인수로 삼성전자는 기존에 강점을 가진 개별공조 중심의 솔루션에서 각종 산업·대형 건물용 솔루션 및 고성장하는 데이터센터를 대상으로 하는 중앙공조 시장으로 본격 진출해 기업간 거래(B2B) 사업 경쟁력을 대폭 강화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플렉트의 고정밀 공조 제어 시스템과 삼성전자의 AI 기반 빌딩 통합 제어 플랫폼(스마트싱스 프로, b.IoT)을 결합해 스마트 빌딩과 에너지 효율 분야에서도 새로운 기회를 모색할 계획이다.

특히 한국에서 최근 AI 컴퓨

팅, 클라우드, 통신 등 급격한 수요 증가에 맞춰 고성장이 예측되는 대규모(Hyperscale) 데이터센터 공조 수요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플렉트의 차별화된 제품과 브랜드 경쟁력을 활용해 차세대 데이터센터 분야에서 최상위 공급업체로 거듭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공장, 병원, 바이오 설비와 같은 대형 산업 공조 수요가 큰 북미, 유럽 등 글로벌 시장에도 지역별로 촘촘하게 구축된 공급망 기반으로 판매·서비스 역량을 확대할 예정이다.

/차현정 기자 hyeon@

社告



메트로경제 ‘2025 뉴테크놀로지 포럼’

산업의 판도 뒤바꿀 핵심동력 ‘피지컬 AI’ 새 패러다임 시대

메트로신문과 메트로경제신문을 발행하는 메트로미디어가 ‘피지컬 AI가 바꾸는 산업 지형’이란 주제로 오는 11월 19일(수요일) 서울 을지로 페럼타워 3층 페럼홀에서 ‘2025 뉴테크놀로지 포럼’을 개최합니다.

최근 인공지능(AI) 기술은 다시 한번 획기적인 도약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AI는 소프트웨어(SW)란 한계를 깨고 물리적 현실과 결합하는 ‘피지컬(Physical) AI’로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 젠슨 황도 피지컬 AI를 ‘AI 모델의 완성형’이라고 말할 정도로 피지컬 AI는 조만간 모든 산업 판도를 완전히 뒤바꿀 핵심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피지컬 AI는 단순한 SW 형태의 AI를 넘어, 센서를 통해 주위 현실 세계를 인지하고, 스스로 판단하여 물리적 장치를 움직이며 경험을 학습하는 ‘몸을 가진 AI’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존 AI가 거대언어모델(LLM)을 기반으로 언어 영역에 한정됐다면, 피지컬 AI는 AI가 스스로 보고 이해하고 행동하는,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환경을 만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2025 뉴테크놀로지포럼’에서는 피지컬 AI의 이해에서부터 산업별 혁신 사례, 휴머노이드와 로봇의 진화 등 피지컬 AI의 등장으로 인한 산업 지형 변화를 살펴볼 수 있는 인사이트가 제공될 예정입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주 제: 피지컬 AI가 바꾸는 산업 지형
- 일 시: 2025년 11월 19일 (수) 오후 2~5시
- 장 소: 서울 중구 페럼타워 3층 페럼홀
- 기조강연: 유태준 한국피지컬협회장(마음AI 대표이사)  
강 연: 고태봉 iM증권 리서치본부장(전무)  
강 연: 김재원 엘리스그룹 대표이사  
강 연: 양수열 클라우드웍스 CTO  
강 연: 김하늘 에임인텔리전스 이사
- 주 최: 메트로경제, 메트로신문
- 참가신청: 메트로신문 홈페이지(www.metroseoul.co.kr)
- 문의: 2025 뉴테크놀로지포럼 사무국  
(02)721-9826, forum@metroseoul.co.kr



탄소감축 투자社 3000억 신규융자

10여곳 선발해 3년간 지원

정부가 탄소감축 연구·개발(R&D) 및 시설투자 전문 프로젝트를 맡을 기업 10여 곳 선발에 나선다. 이는 연내 발표될 것으로 관측되는 ‘2035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와 연계한 지원 정책이다. 이번에 선정되는 사업자들은 3년간 포함 3000억 원 상당의 융자 지원을 받는다.

산업통상부는 6일 탄소감축을 위한 시설과 R&D에 투자하는 ‘신규 16개 프로젝트’에 향후 3년간 2973억 원의 융자금을 지원한

다고 밝혔다. 이는 2022년부터 추진해 온 이른바 ‘탄소중립전환 선도프로젝트 융자지원사업’이다. 이를 통해 총 9630억 원(누계 기준) 규모의 신규 민간투자가 유발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지원사업은 온실가스 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시설과 혁신적인 R&D 프로젝트에 융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금년 상반기 1차 선정(9개 프로젝트)에 이어, 8월부터 2차 공고와 심사를 거쳐 16개 프로젝트가 추가 선정될 예정이다. 〈3면에 계속〉

/세종=김연세 기자 kys@

메트로 한줄뉴스



▲강훈식 “관세·안보 팩트시트 이번 주 넘기지 않을 것… 원만한 협의 돼있다” /사진 뉴시스  
▲김용범 “대미 투자 연 200억달러 정도는 외환시장 충격 없어… 중앙은행과 면밀 분석”

▲민주당 “추경호 체포동의안, 13일 본회의 보고… 27일 처리 추진”  
▲정청래, 민주노총 찾아 “尹정권, 노동자 외면…李정부 다를 것”

▲국힘 “민노총 ‘새벽 배송’ 태클 시대착오적… 직업 선택 자유 박탈 말라”  
▲이준석, 국힘과 선거 연대설에 “산술적 정치공학보다 새로운 도전 지속할 것”



# 美·유럽 등 글로벌시장 호조… 에이피알 ‘1조 클럽’ 눈앞

〈연매출〉

3분기 매출 3859억, 영업이익 961억  
전년비 각각 122%·253% 급성장  
누적 매출 9797억, 영업이익2352억  
3분기 美 매출 1505억 ‘사상최대’

글로벌 뷰티 기업 에이피알이 해외 시장에서의 폭발적인 성장세에 힘입어 연간 매출 1조원 돌파를 눈앞에 뒀다. 창사 이래 최대 분기 실적을 새롭게 쓰면서 글로벌 시장에서 주요 플레이어로 자리매김하는 데 속도를 낼 계획이다.

에이피알은 올해 3분기 잠정 실적으로 연결 기준 매출 3859억원, 영업이익 961억원을 기록했다고 6일 밝혔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122%, 영업이익은 253%가 증가했다. 영업이익률은 25%로 수익성을 입증했다. 당기순이익은 746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66% 급증했다.

에이피알은 올해 3분기 실적으로 역대 최고 분기 실적을 경신하며 연간 매출 1조원 달성에 대한 기대감도 높인다. 올해 3분기까지 누적 매출은 9797억원, 누적 영업이익은 2352억원으로 매



메디큐브 ‘PDRN’ 제품군.

/에이피알

출과 영업이익의 모두에서 세 자릿수 증가세가 나타났다. 전년 동기 대비 누적 매출은 105%, 누적 영업이익은 183% 커졌다.

특히 에이피알은 해외 시장에서의 판매 호조를 이뤘다며 K뷰티 입지를 세계 전역으로 넓혔다. 올해 3분기 실적 기준으로 해외 매출이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80%에 달한다. 또 해외 분기 실적으로는 처음 3000억원을 돌파해 3099억원이다.

가장 큰 매출을 올린 지역은 미국으로 올해 3분기에만 1505억원을 올려 사상 최고 분기 매출을 경신했다. 미국판 올리브영으로 불리는 얼타(Ultat)뷰티에 입점해 신성장 기반을 다졌다.

기타 지역에서는 가장 큰 폭의 매출 증가세로 고성장을 이뤘다. 유럽을 비롯한 신흥 지역의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306% 커진 854억원이다. 영국, 프랑스 등 서유럽을 포함해 북유럽, 동유럽 등지에서 현지 유통사를 중심으로

판매처를 늘렸다.

같은 기간 중화권 지역에서도 전년 동기 대비 12% 늘어난 274억원의 매출을 창출했다. 다만 중화권 매출 비중은 7%로 전년 동기 14%에서 축소됐다.

아울러 올해 3분기 국내 매출은 76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 늘었다.

사업별로는 살펴보면, 화장품 사업이 2723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20% 성장했다. 스킨케어 브랜드 ‘메디큐브’가 기존 핵심 제품인 제로모공패드 제품군을 다각화하며 글로벌 소비자 접점을 확보해 나갔다. 신소재 성분 ‘PDRN(폴리데옥시리보뉴클레오티드)’를 활용한 신제품도 올해 9월 기준 글로벌 누적 판매량 1500만 개를 넘어섰다.

에이피알 주력 제품인 뷰티 디바이스도 올해 3분기 1031억원의 매출을 내며 전년 동기 대비 39% 성장하는 견조한 모습을 보였다. 뷰티 디바이스 부문에서도 해외 매출이 전체 매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에이피알은 올해 연말까지 미국 등 서구권 시장 공략에 더욱 박차를 가한

다는 방침이다. 에이피알은 오는 4분기 매출은 4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실제로 4분기에는 연중 최대 쇼핑 행사인 블랙프라이데이, 크리스마스, 새해 등이 이어진다. 중장기적으로는 글로벌 오프라인 시장으로 폭넓게 진출할 계획이다.

에이피알 관계자는 “현재 얼타뷰티 내 전체 입점 브랜드 매출 순위에서 상위 10위권에 진입해 있는데 K뷰티 브랜드 중에서는 가장 높은 순위”라며 “얼타뷰티를 시작으로 향후 미국 현지 오프라인 유통망을 다양하게 지속적으로 확장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이번 실적 기준으로 미국 시장에서의 경우 오프라인 매출 비중은 전체의 10% 미만인데 이를 20~30% 수준으로 끌어올릴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우선 얼타뷰티 내에서 상위 5위권으로 올라가는 것을 목표로 글로벌 뷰티 브랜드들과 공격적으로 경쟁하고 있고 해외 현지 주요 경쟁사들도 이러한 변화를 인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청하 기자 mlee236@metroseoul.co.kr

## “재생에너지 확대, 전기요금 인상 불가피”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  
“세계적 추세… 장기적 문제 없어  
한전, 해상풍력 발전사업 참여해야”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은 정부의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이 단기적으로는 요금인상 요인이 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한전의 해상풍력 발전 직접 참여가 필요하다고 했다.

김 사장은 지난 5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 출입기자단과 간담회에서 “재생에너지도 시간이 지나면 발전단가는 계속 떨어지지만, 단기적으로는 원전보다 높은 수준”이라며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전기요금 인상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생에너지를 빨리 시작했던 나라의 예를 보면 발전단가가 많이 내려가고, 그런 점에서 (재생에너지 확대는)세계적인 추세”라며 “장기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김 사장은 특히 재생에너지 확대를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지난 5일 오후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한전

위해 한전이 해상풍력 발전사업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전기사업법상 한전은 발전사업을 할 수 없고, 특수목적법인(SPC) 형태로 해상풍력 프로젝트에 투자만 가능하다.

김 사장은 “해상풍력은 발전사업이라기보다 에너지신사업”이라며 “초기투자 부담이 커 민간이 단독으로 뛰어들기 어려운데, 과거엔 민간 침해 우려가 있었지만 지금은 오히려 한전이 일정 역할을 해주길 바라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이어 “해상풍력은 한전이 발전비용 최소화를 위해 민간보다 더 깊이 고민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원론적으로 한전이 해상풍력에 참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6일 밝힌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조정과 관련해 “정부가 수많은 전문가, 부처와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을 한전은 집행기관으로서 당연히 수용해야 한다”며 “평가할 입장은 아니다”라고 했다. 기후부는 이날 2035년까지 재생에너지 확대 목표를 ▲50%~60% ▲53%~60% 두 가지 안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공개했다.

김 사장은 전력망 확충이 국가적 과제가 됐으며, 그간 문제가 됐던 주민수용성을 위한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김 사장은 “이제 전력망 확충은 한전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 과제”라며 “전력망특별법 제정으로 총리 산하 전력망위원회가 구성돼 범정부적 해결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한화오션 거제사업장 전경.

/한화오션

## K-조선업, 잠수함 등 방위산업 외연 확장

HD현대重·한화오션·삼성중  
공동 키워드 전략 ‘방산’ 내세워

국내 조선업계가 상선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방위산업으로 외연을 넓히고 있다. 잠수함, 군수지원함, 보급선 등 특수선 분야를 미래 성장동력으로 삼으면서 조선소가 국가 안보산업의 한 축으로 자리 잡고 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조선 3사(HD현대중공업·한화오션·삼성중공업)는 최근 방산을 공동의 전략 키워드로 내세우고 있다. 상선 발주가 고금리와 해운 경기 둔화로 주춤하자 안정적 수요를 지닌 방산 시장을 새로운 성장축으로 선택한 것이다. 특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각국이 해상전력 증강에 나서면서 글로벌 함정·잠수함 발주가 급증한 점도 영향을 미쳤다.

한화오션은 그룹 내 방산 계열사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한화시스템 등과 협업해 잠수함·함정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도산안창호급(장보고-III급) 잠수함 건조 경험을 바탕으로 차세대 수출형 잠수함 시장 진출을 추진 중으로 오는 2030년까지 해외 군함·함정 매출을 약 4조 원(약 28억 달러) 규모로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한화오션은 미국 필리핀조선소 인수를

통해 미 해군 MRO(유지보수) 사업에 진출했고, 캐나다·폴란드 등 주요국의 잠수함·수상함 프로젝트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

HD현대중공업은 방산 부문을 그룹의 차세대 성장축으로 명시했다. HD현대중공업은 자회사 HD현대미포조선과의 합병을 통해 방산(특수선·함정 포함) 사업을 강화해 오는 2035년까지 그룹 전체 방산 매출을 약 10조 원 수준으로 확대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통합법인의 방산 매출 비중은 약 27% 수준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삼성중공업도 LNG 추진 기술을 군수지원선과 보급함에 적용해 해양방산 플랫폼 시장 진출을 모색하고 있다.

또한 한미 조선 협력 프로젝트 ‘마스가(MASGA)’와 글로벌 해양방산수요 확대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한화오션은 미국 자회사 필리핀조선소를 통한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받았고, HD현대는 미국 방산 조선사 헌팅턴 잉글스와 차세대 군수지원함 공동 건조 협력에 대한 합의 각서를 체결했다. 삼성중공업 역시 선박 설계 및 기자재 조달 전문회사인 디섹(DSEC)과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 협약(MOU)’을 체결하면서 미국진출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이승용 기자 lsy2665@W

## 현대차그룹, 美·멕시코 생산량 극대화 추진

》1면 ‘AI·리벨런싱으로…’서 계속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사법 리스크를 털어낸 후 처음 열리는 전략 회의라는 점에서 ‘뉴 삼성’의 운영 방향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회장은 지난 3월 임원 세미나에서 “삼성다운 저력을 잃었다. 경영진부터 통렬히 반성해야 한다”며 “‘사즉생(死即生)’의 각오로 과감히 행동해야 한다”고 “독한 삼성”을 주문한 바 있다. 또 미래를 위한

투자를 과감히 실행하라고 강조한 바 있다. 업계에서는 그룹 컨트롤타워 부활에 대한 가능성도 꾸준히 제기 되고 있다.

현대자동차그룹은 주요 경영진 회의에서 향후 미국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기 위한 전략을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일본보다 2.5%포인트 낮은 0% 관세로 차량을 수출하다가 이번에 15%로 동일한 관세율을 적용받으면서 가격 경쟁력에 대한 고민이 커졌다. 이를 위

해 현지 생산량은 물론 멕시코 등에서의 생산량 극대화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또 엔비디아와 협력을 통한 자율주행 기술 개발에 대한 전략에 나설 것으로 기대된다. 현대차그룹은 이달 중 사장단 인사를 진행하고 미국발 관세 대응과 주요 계열사들의 시너지 극대화를 위한 전략 수립에 나설 방침이다.

세계 관계자는 “국내 주요 기업들이 AI 전환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 재정비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며 “내년 신성장동력과 미래 먹거리 확보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룰 것”이라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



# 수익모델 등 AI 가치 의구심 IT업계 “내년부터 성과 가시화”

## 글로벌 ‘AI 거품론’ 대두

빅테크, 성장세 비해 수익성 미미  
시장·투자자, 산업 성과 예의주시  
IT업계 “실체없는 투기열풍 아냐”

인공지능(AI) 거품론이 다시 대두됐다. 2008년 금융위기를 예견했던 영화 ‘빅쇼트(Big Shorts)’의 마이클 버리가 AI 관련 대표 기업인 엔비디아와 팔란티어에 대한 풋옵션을 보유했다는 사실이 전해지면서다.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사태처럼 큰 거품이 졌다는 그의 전망으로 지난 4일(현지시간) 주요 빅테크 기업들이 최대 8%까지 주가가 하락했고, 국내 증시까지 출렁거렸다.

그러나 IT업계 관계자들은 “GPU 등 AI 개발을 위한 하드웨어와 인프라를 확충하는 시기인 만큼 대규모 비용이 오갈 수밖에 없다”면서 “AI 시대 거품을 논하기에는 본격적인 AI 에이전트(AI Agent)의 상용화조차 이뤄지지 않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6일 <메트로경제 신문> 취재 결과, IT 업계 관계자들은 최근 제기된 AI 거품론을 증권시장 호황에 따른 일시적 조정 국면으로 보고 있으며, ‘거품’이라

는 주장에는 선을 긋고 있다.

지난 4일(이하 현지시간) 마이클 버리의 9월 30일 마감된 공시 기록이 공개됐다. 버리는 AI 기술 기업의 대표격인 엔비디아와 팔란티어에 대해 10억 달러 이상의 풋옵션을 매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풋옵션은 주가가 하락할 때 매수자가 차익을 얻을 수 있는 계약으로, 이를 보유한 행위는 시장이 AI 기술의 거품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로 해석된다.

AI 산업에 대한 경고의 목소리 또한 단순하지 않다. AI 산업은 지난 2023년 11월 오픈AI의 챗GPT가 공개된 이후 기록적인 성장을 이뤘지만 동시에 천문학적 지출을 기록했고, 수익성은 미미했다.

지난 30일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은 AI 핵심 사업인 ‘제미니(GEMINI)’ 등에 대한 매출 기록을 공개하지 않았다. AI 비즈니스 부문 매출을 공개하면서, 제미니를 비롯한 주요 AI 서비스를 검색·광고·클라우드·유튜브·구독 등 전 부문 실적과 함께 묶어 발표한 것.

오픈AI의 경우 기업가치는 5000억 달러에 이르지만 지난해 50억 달러 규모의 적자를 낸 것으로 전해진다.

미국 MIT 공과대학이 올 상반기 조

사해 지난 9월 발표한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생성형 AI를 도입한 주요 153개 기업 중 95%가 유의미한 매출 제고 효과를 보지 못했다는 결과도 있다.

그러나 IT 업계는 즉각적인 반박에 나서며 AI 거품론이 나오기에는 시기상조라고 주장한다.

5일 알렉스 카프 팔란티어 CEO는 C NBC와의 인터뷰에서 “AI와 칩(반도체) 사업 전반을 공매도 대상으로 삼는 것은 ‘정신 나간 짓’”이라며 “판단이 잘못 된 것으로 드러날 때 나는 기쁘게 춤출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전날 공개된 팔란티어의 3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63% 성장한 11억8000만 달러, 순이익은 4억7600만 달러로 큰 성장 여지를 증명했다.

업계 전문가들은 “현재 AI 산업은 인프라 구축과 기술 고도화를 위한 대규모 투자가 집중되는 초기 성장 단계에 불과하다”며 “과거 닷컴버블처럼 실체 없는 투기 열풍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입을 모은다.

IT업계 관계자는 “AI 시장은 이제 막 상용화의 문턱에 들어선 단계”라며 “실제 성과가 가시화되는 2026~2027년까지는 기술적 진화와 수익 모델 정착을 지켜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서현 기자 seoh@metroseoul.co.kr



갤럭시XR(왼쪽)과 PICO VR 헤드셋(오른쪽)의 모습.

## 손끝에 펼쳐진 새로운 세계 착용감·조작감·몰입감

### 체험기 갤럭시 XR

간편 조작으로 가상현실세계 조작  
일부 AI 연동 기능은 아직 아쉬워

기자의 첫 VR·XR 기기는 중국 브랜드 ‘PICO’의 제품이었다. 스마트폰을 전면부에 끼워 디스플레이를 대신하는 방식이었는데, 무겁고 조작감도 형편없었다. 해당 VR 기기는 ‘최신 기술’이라기보다 ‘불편하기만 한 장난감’에 가까웠다. 첫 만남이 유쾌하지 않아서였을까, 이번 갤럭시 XR 체험에서 가장 주목한 부분은 기본적인 ‘착용감’과 ‘사용감’이었다. 갤럭시 XR의 공식 무게는 545g이었지만 딱 기본 좋은 수준의 묵직한 착용감이 느껴질 뿐 ‘무겁다’라는 느낌은 전혀 받지 못했다. 뛰어난 무게 중심 덕에 고개를 빙글빙글 돌리거나 한 방향을 오랫동안 바라봐도 피로감이 거의 없었다.

조작감 또한 인상적이었다. ‘핀치(pinch·꼬집기)’ 제스처를 통한 조작은 처음 접하는 방식임에도 한 두번만에 빠르게 익숙해질 수 있을 정도로 직관적이었다. 손등과 손바닥, 손가락을 별개로 인식해 별도의 컨트롤러 없이도 스마트폰과 비슷한 수준의 쉬운 조작이 가능했다. 몇 번의 적응을 거치자 SF 영화의 등장인물마냥 이리저리 확확 자료를 넘기고, 확인하는 것이 가능했다. 별도의 컨트롤러 없이도 유연하게 기기를 조작할 수 있다는 점은 뚜렷한 강점이었다.

VR(가상현실)과 AR(증강현실), 그리고 MR(혼합현실) 기능 역시 기대 이상이었다. 기기 옆면을 두 번 터치하자 360도 시야각이 열리며 현실과 구분하기 어려운 수준의 VR 공간이 펼쳐졌다. 산 정상을 테마로 한 환경을 불러오자 고소공포증이 있는 기자는 실제로 약한 현기증

을 느꼈다. ‘현실 같은 체험’이 만들어진 특별한 감각이었다. 가상 공간을 빠져나와 단 두 번의 ‘꼬집기’로 유튜브를 실행하자 현실 공간 위로 유튜브 영상이 겹쳐 떠올랐다. 현실-가상 간 괴리가 거의 느껴지지 않아, 눈앞에 있는 ‘실제 사람’과 ‘영상 속 인물’이 AR을 통해 마치 한 공간에 함께 있는 듯한 인상을 받았다.

인공지능(AI)과의 연동 기능은 충분히 흥미로웠으나, 다소 아쉬운 지점도 있었다. 제미니를 통해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을 찾아가 줘’라고 명령하자 곧바로 상세한 음성 설명과 함께 관련 정보가 눈앞에 팝업됐다. 구글 맵과 연동해 스트리트 뷰를 살펴보자 ‘서클 투 서치(Circle to Search)’ 기능을 통해 눈앞 사물이나 장소에 대한 정보를 즉시 얻을 수도 있었다. 다만 읽고 있는 외국어 지문을 막힘 없이 해석하거나, 사용자가 보고 있는 물건이나 장소에 대해 전문가 수준으로 상세하게 설명·피드백하는 것에는 제약이 따르는 등, ‘AI 어시스턴트’ 기능에서는 다소 모자람이 있었다.

종합적으로 갤럭시 XR은 ‘착용감과 사용감’ 두 가지 영역에서 확실한 강점을 가지고 있다. 물리적 공간의 제약 없이 고화질 콘텐츠를 감상하고, 손끝으로 직접 세상을 조작하는 경험은 충분히 특별했다. 향후 지속적인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AI 기능이 확장된다면 ‘차세대 현실 플랫폼’으로 자리잡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희준 기자 nauta@



갤럭시XR 내 화면. /정희준 기자

## 美 섀다운·매파 발언 ‘이중 충격’… 비트코인, 한 달새 18%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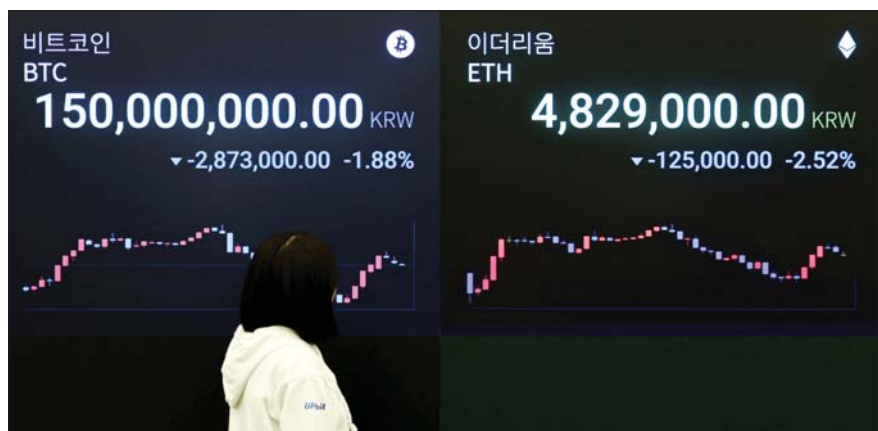
### 가상자산 하락세

주요 알트코인 최대 30% 급락  
전문가들 당분간 약세 지속 전망

‘가상자산 대장주’ 비트코인이 한 달새 20% 가깝게 하락했다. 한때 1BTC당 12만6000달러에 달했던 비트코인은 10만 달러 붕괴를 앞섰고, 주요 알트코인은 최대 30% 급락했다. 역대 가장 긴 지속 중인 미 연방정부 섀다운(일시적 업무정지)으로 불확실성이 확산하는 가운데, 미 연준 주요 인사들도 잇따라 매파적(통화 긴축 선호) 메시지를 내놓으면서 급리인하 기대감도 후퇴한 영향이다.

가상자산 시장정보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가상자산 대장주’ 비트코인은 6일 정오께 1BTC당 10만3372달러에 거래됐다. 24시간 전보다 1.66% 올랐다. 비트코인 가격이 올해 6월 이후 처음으로 10만 달러 아래로 내린 전일의 하락분을 대부분 만회했지만, 지난달 7일 기록한 사상 최고가 12만6000달러와 비교해서는 한 달여 만에 18.4% 하락한 수준이다.

같은 기간 알트코인(비트코인 이외의 가상자산)의 하락세는 더 거셌다. 이더리움(ETH·시총 2위)은 한 달여 만에 약 28% 하락했고, 리플(XRP·3위)은 23%, 바이낸스(BNB·4위)와 솔라나(SOL·5위)도 각각 23%, 31% 하락했다. 강제 청산(선물 거래 시 위험 노출 자산이 강제 매도되는 것)도 빈발했다.



지난 5일 서울 강남구 엽비트 고객센터에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 가격이 나오고 있다. 가상화폐 시가총액 1위 비트코인이 지난 6월 이후 처음으로 10만 달러 아래로 떨어졌다. /뉴시스

최근 가상자산 가격이 하락한 것은 미 연방정부의 ‘섀다운’이 장기화해서다. 앞서 지난달 1일(현지시간) 미 상원은 2026년 회계연도 연방정부 예산안 처리에 실패했다. 미 민주당이 복지 예산 삭감을 이유로 예산안 통과를 거부했고, 공화당도 협상을 거부해서다. 당초 미국 내에서는 섀다운이 2주 내에 종료될 것이라 관측이 우세했다. 그러나 양측 모두 협상이 불가함을 천명하면서, 섀다운은 트럼프의 첫 임기 당시 기록했던 35일의 가장 기록을 넘겨 지속 중이다.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인사들의 거듭된 매파적 발언으로 급리 인하 기대감이 떨어진 것 또한 가상자산 가격을 끌어 내렸다.

앞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지난 10월 28~29일(현지시간) 개최한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직후 “이번 회의에서 12월에 어떻게 나아갈 지에

대한 강한 견해차가 있었다”라며 “정책은 미리 정해진 경로에 놓여있지 않다”라며 12월 급리 인하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

이어 로리 로건 댈러스 연은 총재, 베스 해맥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 제프 슈미트 캔자스시티 연은 총재 등 미 연준 내에서 ‘매파적 인사’로 꼽히는 위원들도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높은 상황”이라며 조급한 급리 인하에 반대하는 메시지를 내놓고 있다.

전문가들은 가상자산 가격이 당분간 약세를 지속할 것으로 내다봤다.

투자 자문회사 페어리드 스트레티지의 설립자인 케이티 스톡턴은 “비트코인은 200일 이동 평균선을 하향 돌파했고, 단기적인 추가 하락 가능성이 있다”면서 “기술적 분석에 따르면 비트코인의 다음 안정적인 지지선은 9만4200달러 부근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분석했다.

/안승진 기자 asj1231@

## 3.4조 규모 민간 탄소중립 신규투자 전망

》 1면 ‘탄소감축 투자자…’서 계속

16곳을 대상으로 이달부터 14개 시중은행을 통해 본격 대출이 실행된다. 선정된 사업자는 1.3%의 금리로 최대 500억 원 범위 내에서 자금을 지원받게 된다.

정부는 약 9630억 원 규모의 투자를 유도할 방침이다. 특히 정유·조선 등 산업 부문과 수소·연료전지 등 에너지 부문에 중점을 둔다.

또 2022년부터 올해까지 누계 총 95건의 프로젝트에 대해 약 8000억 원의

융자 지원을 실시한다. 산업부는 누계 기준으로 총 3조4000억 원 규모의 민간 탄소중립 신규투자를 이끌어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동일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은 “조만간 발표될 2035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를 앞두고, 16개 선도 프로젝트를 선정하게 돼 시의적절하다”라고 말했다. 또 “앞으로 우리 산업이 저탄소·고부가가치화로 빠르게 그린전환 할 수 있도록 산업계의 선제적인 탄소중립 투자를 당부한다”고 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 글로벌 IB 도약... 고객 맞춤형 투자 문화로 금융혁신 선도

투자의 즐거움, 금융 넘어 삶으로

**MIRAE ASSET**  
미래에셋증권

국내 투자자들의 자산 운용 규모가 빠르게 커지고 있고, 해외주식까지 함께 투자하는 비중도 절반 가까이 늘고 있다(2024년 금융소비자 조사 기준). 투자 대중화가 본격화된 지금, 미래에셋증권은 단순한 주식거래 중개 회사를 넘어 '투자문화의 허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맞춤형 자산관리, 세대별 금융 경험, 사회적 가치 전략을 결합해 성과를 내며 글로벌 금융사로서 위상을 공고히 하고 있다.

## ◆맞춤형 자산관리와 성과 가속화

미래에셋증권은 초고액자산가와 일반 투자자 모두를 대상으로 한 자산관리 서비스를 정교하게 고도화하고 있다. 패밀리오피스 센터와 더 세이지(The Sage) 네트워크, 글로벌 PWM 등을 통해 세대 간 부의 이전, 상속·증여, 기업승계 전략까지 포괄하는 솔루션을 제공한다. 또한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한 투자상품 설계와 컨설팅, AI 기반 맞춤형 분석 서비스를 더하며 '개인화 자산관리'의 차별성을 키웠다.

이 같은 전략은 수치로 이어졌다. 2025년 2분기 기준 연금자산은 47조 3000억원으로 또 한 번 최고치를 경신했다. 고객자산은 533조원이며, 퇴직연금 적립금은 32조1000억원에 달해 국내 42개 사업자 가운데 증가액 1위를 기록했다. 2024년 말 기준 (연결자기자본 기준으로 해외주식 잔고는 40조8000억원으로 업계 최고 수준을 유지하며 글로벌 투자 수요를 흡수했다.

성과는 실적으로도 직결됐다. 2024년 연결 기준 세전이익은 1조2245억원, 당기순이익은 9255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대비 각각 227%, 178% 증가한 수치다. ROE는 연환산 기준 10.9%로 '코리아 밸류업' 지수 편입 기업의 목표치를 넘어섰다. 이어 2025년 2분기에는 세전이익 5202억원, 순이익 4059억원을 기록하며 전분기 대비 각각 50%, 57% 증가했다. 상반기 누적으로는 세전이익 8663억원, 순이익 6641억원을 달성했다.

아울러 주주환원 정책 역시 강화돼 자



미래에셋증권 사옥.

사주 소각과 배당을 통해 40% 수준의 환원 성향을 유지하며 시장의 신뢰를 확보했다. 고객 중심 WM·연금 부문이 안정적 캐시카우로 자리 잡으면서, 글로벌과 IB 부문 확장에도 힘을 실어주고 있다.

## ◆세대별 경험 확대와 디지털 혁신

투자문화를 넓히기 위한 세대별 경험 확장도 미래에셋증권이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부분이다.

이를 위해 미래에셋증권은 청소년 대상 금융진로캠프와 글로벌 문화체험단을 통해 미래세대가 금융을 체험하고 진로를 탐색할 수 있도록 꾸준히 지원해왔다.

고객 맞춤형 자산관리 정교화 추진  
연금자산 47조, 최고치 다시 경신  
퇴직연금 32조, 증가액 업계 1위  
해외주식 잔고 40조, 투자수요 흡수  
세전이익 1.2조, ROE 10.9% 달성

디지털자산 교육 시리즈 <당신의 미래를 위한 STORY>는 블록체인과 토큰증권 같은 새로운 금융 패러다임을 쉽게 전달하며 청년층의 호응을 얻었다. 특히 '펀드매니저 체험', '금융권 직업 탐색' 같은 실습형 과정은 단순 교육을 넘어 실제 금융산업 이해로 이어졌다.

콘텐츠 전략도 호응을 얻었다. 유튜브 채널 '스마트머니'는 구독자184만명을 돌파(2025년 9월 7일 기준)했으며, 웹드라마·AI 애니메이션 같은 참여형 콘텐츠는 젊은 세대의 투자 경험을 생활 속으로 끌어들었다. AI 기반으로 제작한 '동물원정대' 애니메이션은 제작비를 90% 절감하면서도 글로벌 배급을 추진해 미래세대와 해외 투자자 모두에게 접

근성을 높였다. 이처럼 금융을 쉽고 재미있게 풀어내는 방식은 장기적으로 고객 충성도를 높이고, 투자자 저변 확대에도 기여한다.

디지털 자산관리 부문 역시 빠르게 고도화됐다. 'MY종목분석'은 주식에서 채권·펀드까지 분석 대상을 넓혀 고객이 전체 포트폴리오를 관리할 수 있도록 했고, 투자기간도 3년까지 확장해 장기 성과를 추적할 수 있게 했다. ISA 로보어드바이저는 가입자의 성향, 자산 현황, 리밸런싱 이력까지 반영해 초개인화된 포트폴리오를 제시한다. 2024년 말 기준 ISA 고객자산은 6조원을 돌파했으며, 계좌당 평균 절세 혜택은 167만원에 달했다. 특히 상반기에만 5346명이 총 88억원의 세금을 절감했다는 점은 서비스 효과를 보여준다.

## ◆사회적 가치와 글로벌 전략의 결실

미래에셋증권은 ESG와 사회공헌을 핵심 경영전략으로 삼아 지속가능한 성장의 토대를 다지는데 앞장서는 모습이다. 2024년 말 기준 지속가능금융 규모는 40조8000억원으로, 2025년 목표치인 45조원의 90% 이상을 조기 달성했다. 다우존스 지속가능경영지수 월드지수 13년 연속 편입, CDP 기후변화 대응 A등급 획득 등 글로벌 평가기관의 성과도 뚜렷하다. 임직원 봉사단은 소아암 아동을 위한 기부 캠페인과 숲 가꾸기 활동을 이어가며, 사회적 기업 제품 구매액도 누적 17억원에 달했다. 이는 단순 시혜를 넘어 지속가능한 사회경제적 생태계를 만드는 투자라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다.

글로벌 전략은 미래에셋의 또 다른 성취다. 인도 현지 증권사 웨어칸 인수를 통해 고객 계좌 520만개, 지점 130곳, 파트너 4400명을 확보하며 현지 9위 증권

사로 올라섰다. 인수 이후 현지화 전략을 가속화하며 향후 5위권 도약을 목표로 하고 있다. 미국·홍콩·유럽에서는 ETF와 IB를 중심으로 수익 기반을 다지고, 브라질·베트남 등 신흥국 시장에서도 균형 성장을 꾀하고 있다.

그룹 전체 고객자산(AUM)은 2025년 7월말 기준 1024조원을 돌파했다. 국내 752조원, 해외 272조원으로 구성돼 있다. 자본금 100억원으로 시작해 28년 만에 '1000조 클럽'에 오른 사례는 국내 금융사 최초라는 점에서 상징적이다. 해외에서는 글로벌X, GHCO, 스타크스팟 등 전략적 인수합병을 통해 ETF·AI·트레이딩 역량을 확보했고, 미래에셋자산운용이 전 세계에서 운용하는 상장지수펀드(ETF) 규모도 232조원으로, 국내 전체 ETF 시장 규모(226조원)를 웃돌았다.

특히 해외법인의 존재감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상반기 기준 해외에서만 세전이익 2242억원을 기록해 전체 실적의 26%를 차지했다. 단순 지점 운영을 넘어, 현지 기업 인수와 합작법인을 통한 깊이 있는 현지화 전략이 성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업계에서는 "국내 금융사가 글로벌 톱티어 IB로 도약하는 사례는 흔치 않다"며 "미래에셋증권은 한국 자본시장의 위상을 세계로 넓혀가는 대표 모델"이라는 평가를 내놓는다.

패밀리오피스 글로벌 PWM 확장  
MY종목분석·ISA 초개인화 강화  
청년층 금융체험·AI 콘텐츠 확대  
ESG금융 40조 달성, DJSI 13년 연속  
AUM 1000조 돌파, 해외비중 26%

미래에셋증권은 'Client First' 철학을 바탕으로 고객 중심의 맞춤형 자산관리, 세대별 참여 경험, 사회적 가치 실현을 통해 증권사가 단순 거래 플랫폼을 넘어 삶과 미래를 연결하는 금융 브랜드로 진화하고 있다. 연금·WM 자산의 성장, 디지털 혁신, 글로벌 확장, ESG 성과까지 다방면의 결실은 업계 패러다임 전환의 모범으로 평가된다. 업계에서는 "단순히 증권사 차원이 아니라, 고객과 사회를 연결하는 금융 생태계를 구축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앞으로 미래에셋증권이 보여줄 다음 성장은 국내 금융사의 한계를 넘어 글로벌 톱티어 IB로 도약하는 과정이 될 전망이다.

/허정윤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미래에셋증권 유튜브 '스마트머니' 갈무리.



미래에셋증권의 인재육성 프로그램.

/미래에셋증권



국민의 평생  
금융파트너

세상을 바꾸는 금융

국민을 지키는  
국민이 있습니다

불길 속에서도  
재난의 현장에서도  
누군가의 하루를 지켜내는  
진짜 영웅들

365일 쉼 없이 달려온  
6만여 명의 대한민국 소방관님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1월 9일 소방의 날,  
그 헌신과 노고에 힘이 될 수 있도록  
KB금융그룹과 국민이 함께하겠습니다

Korea Better  
KB금융그룹

11월 9일은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화재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소방의 날'입니다

[사진 출처: 연합뉴스]

\* KB금융그룹



# 김현지 불출석·관세협상 두고 공방… 與野 ‘배치기’ 충돌도

## 2025 국정감사

李 대통령, 김현지 경내대기 지시  
주진우 “의혹 제기엔 與 ‘입틀막’”  
정회 후 퇴장과정서 물리충돌도

한미관세협상 현금투자 회수 우려에  
양해각서 1조 ‘상업적 합리성’ 조항  
팩트시트 발표시점 아직 가능 어려워

여야가 6일 국회운영위원회의 대통령실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의원 간 물리적 충돌로 시작한 가운데,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국감 불출석 논란, 한미관세협상 성과의 적절성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이날 오전부터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의 대통령실 등에 대한 국정감사엔 대통령실 강훈식 비서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이상호 정무수석 등이 출석했으나, 여야 합의 불발로 논란의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은 출석하지 않았다.

야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김 실장에게 산립청장 인사 개입 의혹, 제1부속실장 보직 변경, 인사 및 재판 개입 의혹 등을 따져 물어야 한다고 했으나, 여당은 김 실장이 오전에만 출석하고 이석하는 조건을 내세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이기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의 대통령실비서실 등 국정감사에서 정회 후 퇴장하는 과정에서 충돌하고 있다. /뉴시스

대통령실은 “대통령실은 국회 결정에 따라 국회 상임위에 출석한다는 입장에 변함없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회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1부속실장의 국회운영위 출석이 가능하도록 경내 대기를 지시하였고, 이에 1부속실장은 대통령의 경외 일정 수행 업무를 해야 함에도 대통령실에서 대기 중임을 알린다”라고 밝혔다.

김 실장의 불출석으로 국감 당일 여야 간 긴장의 강도가 높아진 가운데, 윤석열 정부의 법률비서관 출신인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발언을 시작하자 회의장은 곧 시끄러워졌다. 여당은 윤석열정부 대통령실의 법률비서관을 지낸 주 의원이 운영위원회에 소속된 것은 이해충돌 사

안이라며 반발했다.

주 의원은 “제가 김현지 부속실장 관련 의혹을 집중 제기하니 민주당이 이렇게 조직적으로 ‘입틀막’하는 것에 강력히 항의한다”며 “작년 국정감사에 운영위원으로 참여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인 출신 의원도 운영위원으로 보임했다. 어디에다가 이해충돌 이야기를 하나”라고 반박했다.

주 의원 발언 이후 여야는 서로에게 고성을 지르며 비판했고 김병기 운영위원장은 정회를 선포했다. 정회 직후 국민의힘 의원들이 회의장을 빠져나가는 데,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이기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배치기’를 하며

물리적으로 충돌하기까지 했다.

송 원내대표는 “갑자기 이기현 의원이 욕중한 몸집으로 다가오더니, 회의장 문을 나가려다가 돌아선 상태인데 그대로 몸을 부딪혔다”며 “야당의 원내대표에 대해서 백주대낮에 테러와 유사하게 폭력행위가 발생한 점에 대해 대단히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이 의원은 “피해자는 저인데 저에게 폭력배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후 이어진 질의에서 과규택 의원은 이상호 정무수석에게 “김현지 실장의 (국감) 100% 출석을 장담한다고 하셨다가 그다음에 말이 바뀌셨다”며 “김 실장이 나온다고 했다가 안 나온다고 말이 바뀌신 이유가 대통령의 지시 때문인가”라고 물었다.

이상호 수석은 “총무비서관은 과거 운영위 출석 전례가 있어서 출석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부속실장으로 이동하게 된 것은 국감에 불출석하려 한 것이 아니라 김남준 대변인의 인사가 있어서 불가피했던 것이다. 부속실장은 국감 출석 의무가 없지만 국회에서 거부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김기표 민주당 의원은 “‘특정 비서관, 특정 실장, 특정 인물이 실세다’, ‘그 사람이 다 좌우한다’, ‘그 사람을 다 통해야 한다’는 억측과 정치공세가 많다”고

하자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전혀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다.

김 의원은 “지난 시절 최순실로 알려진 최서원, 김건희 등 시스템이 아닌 비선 조직에 의한 인사, 국정 전횡을 묵도했다”며 “이들은 시스템에 의한 국정 운영 자체를 이해하지 못한다. 자기들 시각으로 주장해서 억측과 공세를 하는 것이다. 그래서 대통령 자리도 왕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다. 그러다가 내란을 일으키고 감옥에 가 있다”고 했다.

APEC(에이펙,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에서 타결된 한미관세협상에 대한 질의도 줄이었다. 김남근 민주당 의원이 김용범 정책실장에게 거액의 대미 현금투자 회수에 대한 우려를 전하자 김용범 실장은 “‘상업적 합리성’이라는 조항을 양해각서 제1조에 넣었다”고 답했다. 김용범 실장은 “투자 원리금 회수의 불확실성이 있는 사업은 애당초 착수하지 않도록, 우리 협의위원회에서 동의하지 않도록 그런 조항을 넣었다”고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이 한미관세협상 결과를 정리한 팩트시트(설명 자료) 발표 시점을 묻자 강훈식 비서실장은 “지금 협상 진행 중이고 막바지 단계에 있다”면서도 “발표 시점은 상대국이 있는 문제라서 일방적으로 가능하기는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 與 “적극재정 절실” vs 野 “돈 풀면 경제 산다’ 낡은 사고”

내년도 예산안 국회심의서 입장차  
전액삭감한 특수활동비 두고 대립도

여야는 정부가 제출한 ‘2026년도 예산안’과 관련한 국회심의의 첫째 날부터 격렬한 입장 차를 드러냈다.

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은 경기부양을 위한 확장재정이 불가피하다며 원안 고수 입장을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지역사랑상품권 국비지원 등을 이른바 ‘포퓰리즘’으로 규정하고 삭감 추진을 예고했다.

국회 예결위는 이날 728조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에 대한 본격 심의·질의에 돌입했다. 김민석 국무총리와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출석했다.

김 총리는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염려를 잘 알고 있다”면서도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민생 경제의 빠른 회복과 미래성장 도약을 가능케 하는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그는 예산안에 대해 ▲초혁신 경제 구현을 위한 재정의 적극 투입 ▲국민 모두가 함께 성장하고 기본이 튼튼한 사

회, 국민 안전 및 국의 중심 외교안보를 중심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또 “정부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사상 최대 규모인 27조 원 규모의 지출구조조정을 단행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마련했다”고도 했다.

민주당 안도걸 의원은 “이재명 출범 후 적극재정 등을 통해 경제를 1%대로 끌어올렸다”며 “내년 예산안도 ‘경제활력예산’이고 확장 재정은 잠재성장을 달성하는 엔진”이라고 평가했다.

이에 반해,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은 “돈을 풀면 경제가 산다”라는 구태의연

한 낡은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확장재정의 큰 이유인 선심성 또는 국민해악 사업 예산은 안 된다”며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1조2000억 원 상당의 지역화폐 등을 ‘상품권 공화국’ 예산이라고 비꼬았다. 또 1조원의 국민성장펀드는 국민연금까지 끌어다 쓰려 한다며 ‘펀드 공화국’ 예산이라고 했다.

구윤철 부총리는 “내년은 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성장을 본격화할 골든타임”이라며 “이번 예산안에 담긴 핵심사업이

적기에 집행되지 못한다면 728조 원 예산의 효과는 충분히 발휘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는 지난해 민주당이 감액예산안 단독처리 과정에서 전액 삭감한 특수활동비 복원을 놓고도 대립각을 세웠다.

국민의힘 측은 이날 종합정책질의의 기자회견에서 “야당일 때 (정부의 특수활동비는) 불필요하고 여당이 되자 긴급해진 내로남불 예산”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민주당은 “당시엔 비정상적인 지출에 의심이 충분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삭감했던 것”이라며 맞섰다.

예결위는 7일까지 종합정책질의를 이어간다. 이어 10~11일 경제부처, 12~13일 비경제 부처를 대상의 부별 심사가 예정돼 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 5·18민주묘지 찾은 장동혁 ‘진담’… 시민단체 “참배 절대 반대”

짧은 묵념 가지고 참배 일정 마무리  
시민단체 “5·18 폄훼, 내란 옹호 인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당 지도부와 함께 광주 국립5·18민주묘지를 찾아 국민 통합 메시지를 내고 참배하려 했으나, 장 대표를 기다리고 있던 시민단체가 “참배 절대 반대”를 외치며 강하게 저항했다. 결국 국민의힘 지도부는 제대로 된 참배 일정을 소화하지 못한 채 민주묘지를 빠져나갔다.

TK(대구·경북), 부·울·경(부산·울산·경남), 충청·세종 등을 다니며 예산정책 협의회와 민심 현장 행보를 하고 있는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국립5·18민주묘지 참배, 광주 북구 소재 종합쇼핑몰 부

지 방문, 광주 AI데이터센터 방문 등의 일정으로 광주를 찾았다.

장 대표는 광주를 떠나기 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오늘 광주를 찾을 예정이다. 5·18민주묘지를 찾아 참배하고 민주주의를 위해 쓰러져 간 5월 영령들의 숭고한 희생 앞에 머리 숙이겠다”며 “5·18 민주묘역 조성, 5·18 특별법 제정은 모두 국민의힘의 전신인 신한국당 시절 김영삼 대통령의 위대한 결단으로 이루어진 것들”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또한 우리당 강령에는 5·18 민주화운동 정신과 조국 근대화 등 산업화 정신을 동시에 계승한다고 명기돼 있다. 저는 이 두 정신이야말로 대한민국을 지탱

하는 두 개의 위대한 기둥이라 확신한다”면서 “5월 정신이 대한민국의 긍지가 되고 역사의 자부심이 되도록 국민의힘은 진심을 다해 호남과 동행하겠다. 오늘 우리의 이 발걸음이 진정한 화합과 국민 통합의 미래로 나아가는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이다. 진심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그러나 국립5·18민주묘지를 찾은 당 지도부는 미리 기다리고 있던 시민단체에게 둘러싸여 “내란범”, “장동혁은 물러가라” 등의 비판 구호를 들으며 민주묘문과 공식 헌화 및 참배 장소인 추념탑 앞까지 닿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다.

결국, 장 대표는 헌화와 분향은 생략하고 5초 남짓한 짧은 묵념을 뒤로하고 민주묘지를 빠져나갔다. 기존 참배 일정



장동혁(가운데) 국민의힘 당대표와 양향자(왼쪽) 최고위원이 6일 오후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광주시민들에 의해 참배가 가로막히자 제단 앞에서 5초간 묵념하며 참배를 대신하고 있다. /뉴시스

에는 추념탑 참배 이후 윤상원·박관현 열사 묘역을 찾으려 했지만 이 또한 시민들의 격한 항의로 무산됐다.

한편, 5·18민주화운동 관련 단체와 광주 시민사회 단체로 구성된 81개 단체는

“(장 대표는) 5·18을 폄훼하고 내란을 옹호하며 분열과 갈등을 조장해 온 인물”이라며 “호남의 민심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위선적 행보’, ‘진정성 없는 정치 쇼’”라고 반발했다. /박태홍 기자



# AI 시대를 여는 KEY

대한민국 산업화의 문을  
에너지로 열었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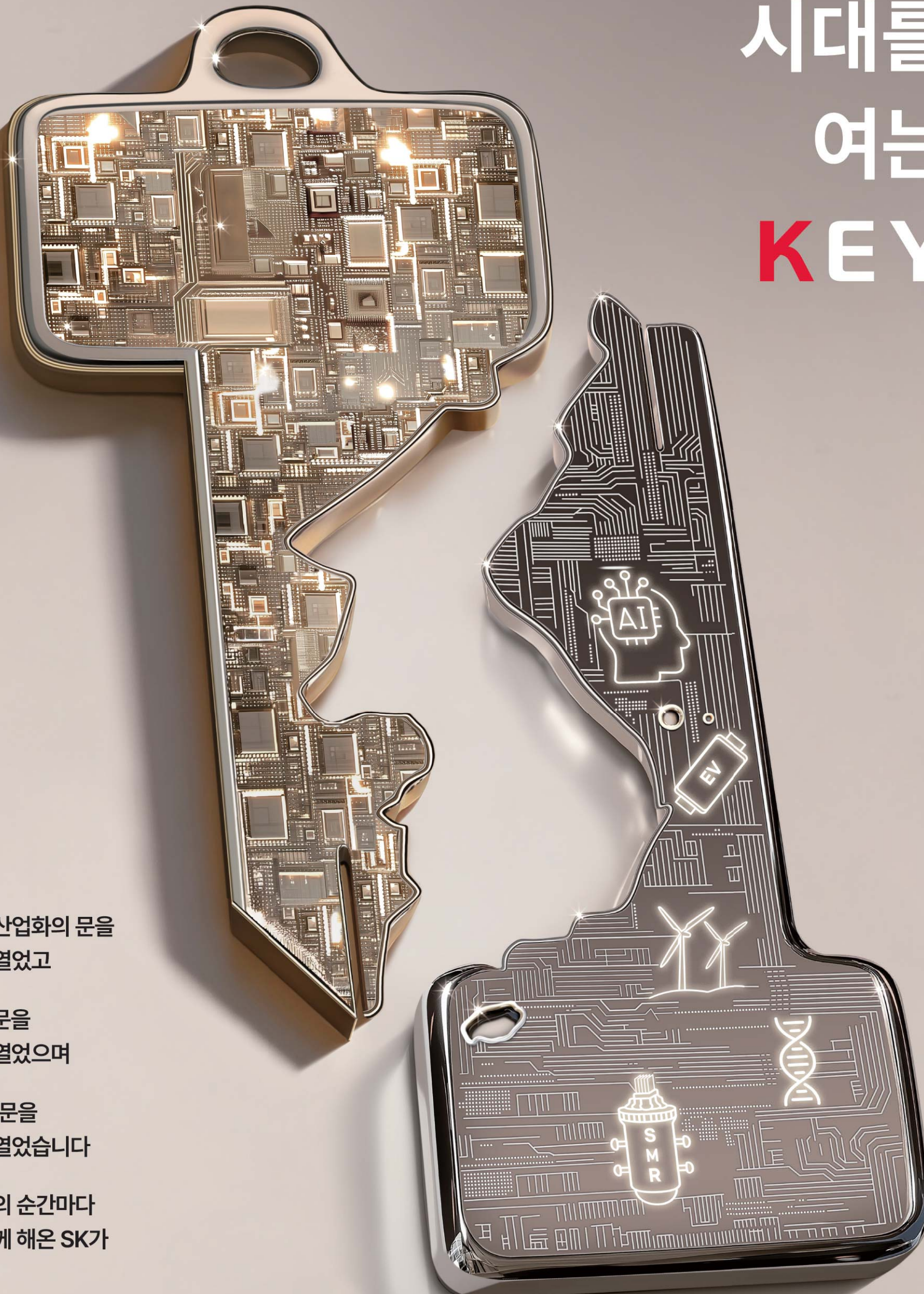
정보화의 문을  
통신으로 열었으며

AI 전환의 문을  
반도체로 열었습니다

국가 성장의 순간마다  
묵묵히 함께 해온 SK가

또 한 번 대한민국의  
Key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SK**





롯데손보, ‘경영개선권고’에 강력 반발

## “지표 개선 지속… 영업 정상운영”

“고위험 줄이고 안정자산 확대  
실적·지급여력 모두 개선흐름  
비계량평가 4등급은 ‘이례적’  
평가 근거 부당… 법 위반 소지”

금융위원회가 경영개선권고를 내리자 롯데손해보험이 “지표가 이미 개선되는 상황에서 비계량평가까지 문제 삼은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박했다.

롯데손보는 위험자산을 줄이고 안정자산 비중을 키운 전략이 3분기 실적과 지급여력 지표로 확인된 만큼 정상 영업은 그대로 이어진다는 입장이다.

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5일 정례회의에서 롯데손보에 경영개선권고를 의결했다. 적기시정조치(권고·요구·명령) 중 최저 단계로 롯데손보는 2개월 내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하고 승인 후 1년간 개선작업을 이행해야 한다.

이번 조치의 핵심은 ‘불확실성 관리’와 ‘선제적 안정화’다. 당국은 해당 권고가 중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경영을 유도하는 사전 예방적 성격임을 분명히 했다. 보험료 납입, 보험금 청구·지급, 신규 계약 체결 등 고객 접점의 서비스는 차질 없이 유지된다.

롯데손보는 실적과 건전성 측면에서 ‘개선 흐름’을 강조했다. 롯데손보의 올해 3분기 누계 순이익은 99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2% 증가했다. 영업이익은



롯데손해보험 사옥.

/롯데손해보험

1293억원으로 45% 늘었다. 보험영업이익은 369억원으로 본업의 수익성을 지켰고 투자영업이익 924억원은 전년 동기 손실(-109억원)에서 흑자전환했다. 지급여력비율(K-ICS)은 9월 말 141.6%로 전분기 대비 12.1%포인트(p) 개선됐다. 보험계약서비스마진(CSM) 2조 2680억원 등 미래이익의 원천도 확인된다.

사업 구조도 안정 쪽으로 무게를 둔다. 장기보장성보험 중심의 원수보험료는 1조 8853억원으로 전년 대비 6.1% 증가했다. 장기보장성 비중은 88.4%다. 무리한 외형 확대보다 내재가치 기반의 성장을 지향했다는 회사 전략과 맞물린다. 신계약 CSM 3147억원(3분기 1012억원) 역시 ‘미래 이익의 씨앗’을 의미한다.

개선 배경으로는 ‘고위험 대신 안정’을 택한 자산운용 리밸런싱이 꼽힌다.

롯데손보는 지난 2021년 이후 신규 대체 투자를 전면 중단했다. 항공기·해외 상업용 부동산·신흥국 인프라 등 고위험 자산을 중심으로 2023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총 31건, 약 7000억원을 정리했다. 동시에 채권 비중을 49.1%까지 확대한 데다 듀레이션 매칭을 강화해 변동성에 대한 내성을 높였다.

이번 당국의 경영개선권고 조치 평가 과정의 쟁점 역시 정리가 필요하다. 롯데손보는 “자본적정성 계량평가가 3등급임에도 비계량평가(ORSA 도입 유예 등)가 반영돼 4등급이 됐고 비계량 결과를 근거로 한 권고는 평가 도입 이래 최초”라고 설명했다.

또한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라 이사회 의결로 ORSA 도입을 유예할 수 있으며, 2024년 말 기준 전체 53개 보험사 중 28개사가 유예 중이라고 밝혔다. 롯데손보는 “당사의 ORSA 도입 유예를 비계량평가 4 등급 부여와 경영개선권고의 부과 사유로 삼는 것은 상위 법령에 따른 적법한 ORSA 도입 유예결정을 하위 내부 규정인 매뉴얼을 근거로 제재하는 위법성 소지를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롯데손보는 정상营业을 전제로 관리체계 강화에 들어가고 이미 진행해 온 안정 중심의 체질개선을 지표 개선으로 이어가겠다는 계획이다.

/김주형 기자 gh471@metroseoul.co.kr

## 롯데카드 해킹 재발 막는다 악성코드 감염신고 의무화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안 발의  
악성코드 감염 항목 명시적 포함

롯데카드 대규모 해킹 사태를 계기로 금융권의 전산보안 관련 신고 의무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침해사고 발생 유형에 악성코드 감염 항목을 추가해, 직접적인 고객 피해가 없어도 악성코드 감염만으로 금융당국에 신고하도록 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발의됐기 때문이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에서 전자금융시설의 침해사고 발생 유형 범위를 확장해 금융회사 등의 신고 의무를 강화하는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정호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현행 전자금융법은 전자금융기반시설의 데이터 파괴 또는 운영 방해로 목적으로 컴퓨터 바이러스, 논리폭탄, 메일폭탄 등의 프로그램을 투입하는 행위를 전자적 침해 사고 발생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침해사고 유형에 컴퓨터 바이러스는 포함돼 있지만, 악성코드 감염은 별도로 규정돼 있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금융사들은 악성코드가 감염됐어도,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으면 악성코드 감염에 대한 보고 의무가 없었다.

국회 관계자는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현행법 규정은 침해사고 발생 유형에 악성코드 감염 여부를 포함하지 않고 있어 금융회사 등이 고객정보 유출이나

서비스 장애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악성코드 감염에 대해 보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금융회사 등은 1만명 이상 고객 신용정보 유출, 전산장애 등 가시적 피해가 발생하고 나서야 비로소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있는데, 이는 악성코드 감염 사고에 대한 조기 대응의 어려움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금융권에서 발생한 해킹 사고 상당수가 악성코드 감염을 발단으로 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롯데카드의 경우 업그레이드가 이뤄지지 않은 온라인 결제 서버의 웹 로직 한 개에 악성코드가 심어지면서 최근 대규모 해킹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또, 국민의힘 강민국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지난달 말까지 금융권에서 발생한 해킹사고는 총 31건으로 집계됐다. 해킹사고로 유출된 정보는 총 5만 1004건이다.

공격기법 별로 살펴보면 악성코드 및 보안취약점 해킹에 의한 침해가 서비스 거부 공격기법 다음으로 가장 많았다.

이 같은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개정안은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적 침해행위에 ‘악성코드 감염’ 항목을 명시적으로 포함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개정안은 국회 상임위에서 심사 중이다. 이후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정부가 공포하면 본격 시행된다.

/안재선기자 wotjs4187@

## 신한은행, 업계 최초 퇴직연금 적립금 50조 돌파

생애주기 고려한 연금관리 모델  
DB·DC·IRP 전 영역 고른 성과  
올 3분기 기준 IRP 적립금 ‘1위’

신한은행은 운용관리 기준 퇴직연금 적립금이 50조 1985억원을 기록하며 은행권 최초로 50조원을 돌파했다고 6일 밝혔다.

신한은행은 고객의 생애주기를 고려한 연금관리 모델을 바탕으로, 확정급여형(DB) 고객의 확정급여형(DC) 전환과 개인형퇴직연금(IRP)로 이어지는 운용 체계를 구축해 왔다. 이를 통해 DB·

DC·IRP 전 영역에서 고른 성과를 이어가고 있으며, 올 3분기 기준 IRP 적립금 부문 전 업권 1위를 달성했다.

특히 올해 신한은행 퇴직연금 ETF 적립금은 전년 대비 244% 증가하며 빠른 성장세를 보였다. 이는 고객들의 투자형 상품 수요 증가에 적극 대응해 ETF·TD F 상품 공급을 지속 확대한 결과다.

장기수익률 측면에서도 신한은행은 업권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공시 기준 2025년 3분기 원리금 비보장형 10년 수익률은 DB·DC·IRP 모두 시중은행 중 1위를

기록했다. 퇴직연금 특성을 고려할 때 장기간 안정적이면서도 높은 수익률은 고객 선택의 핵심 요인으로 꼽힌다.

신한은행은 퇴직연금 적립금 50조원 돌파라는 고객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 개인형퇴직연금(IRP)수수료 면제대상을 확대한다.

비대면 채널을 통해 계좌를 개설하고 퇴직금을 1억원 이상 입금한 고객에게 제공하던 운용·자산관리수수료 면제 혜택을 오는 14일부터 적립금 5000만원 이상 입금 고객으로 확대 적용한다.

/나유리 기자 yul115@

## 화보협회, 화재안전 데이터 고도화 추진



### 화재보험협회

빅데이터·AI 분석 통해 사전 예방  
㈜에이원소방 등 5개 수요기업 참여  
자동화재탐지설비 신제품 출시 예고

화재보험협회는 포항공과대학교 산학협력단 및 ㈜투트랩과 함께 산업시설 화재안전 데이터 고도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화보협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이 추진하는 ‘빅데이터 플랫폼 기반 분석서비스

지원 사업’의 소방안전 분야 주관 기관이다.

이번 사업은 산업현장의 화재위험을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 분석으로 사전에 탐지·예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에이원소방 ▲㈜메테오시뮬레이션 ▲㈜중부전기안전관리 ▲㈜비츠로시스 ▲㈜피에이치엠솔루션즈 등 5개 수요기업이 참여해 실증 중심의 비즈니스 기반 과제로 수행되고 있다.

화재 발생 이력, 위험설비 보유 현황, 작업환경 등을 통합한 머신러닝 기반 ‘고위험 공정 예측모델’도 개발했다. 시설 특성에 맞춰 최적 알고리즘을 자동

선택해 위험 패턴을 반영한다. 화재알림 설비 우선 설치 대상 추천과 위험등급별 대응 전략 수립, 데이터 기반 투자 의사 결정을 지원한다.

㈜에이원소방은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맞춤형 제안 리포트를 제공하고 AI 결합형 자동화재탐지설비 신제품 출시도 예고했다.

화재보험협회는 “데이터 기술이 화재 대응의 기준을 ‘면적’에서 ‘위험도’로 바꾼다”며 산업·보험·공공의 상생형 데이터 협력 모델을 제시했다. 화보협회 컨소시엄은 오는 10일 ‘소방안전 빅데이터 분석서비스 성과보고 컨퍼런스’를 열어 주요 성과를 공유하고 데이터 기반 화재 예방 체계의 적용 가능성과 산업적 파급 효과를 논의할 예정이다.

/김주형 기자



김기홍 JB금융지주 회장(왼쪽 일곱번째)과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JB금융

## JB금융, 디지털 경쟁력 강화 머리 맞대

2025 JB포럼 ‘헬로 투모로우’ 개최  
협업 파트너사간 사업 시너지 모색

JB금융그룹이 디지털금융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2025 JB 포럼(Forum)’을 개최했다.

JB금융그룹은 지난달 30일~31일 양일간 JB금융그룹 연수원 ‘아우름캠퍼스’에서 열린 이번 포럼에는 JB금융그룹 주요 계열사 뿐만 아니라 전략적 제휴 관계를 체결한 핀테크사, 플랫폼기업, 스타트업이 참여했다.

포럼은 ‘헬로 투모로우(Hello Tomorrow·함께한 시간이 내일의 가치로 이어진다는 의미)’ 슬로건 하에 JB금융그룹과 전략적 협업 관계를 맺은 파트너사간 역량과 정보를 공유하고, 이를 통해 상호간 사업적 시너지와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모색해 실질적인 JB 협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특히 이날 포럼에는 베트남, 인도네시아의 파트너사 CEO 및 협업 실무를 담당하는 관계자들이 직접 한국을 방문해 참석했다. JB금융은 실시간 AI 번역 시스템을 활용해 외국인 참석자들이 발표 세션에 원활히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또한, JB금융 소속 외국인 직원들도 현장 네트워킹을 지원했다.

김기홍 JB금융그룹 회장은 이번 포럼에서 “이번 포럼은 파트너사 간에 단순한 사고나 교류의 장을 넘어서, 긴밀한 네트워킹을 통해 상호 사업적 시너지를 발굴하고, JB그룹의 임직원 또한 혁신적 사업 아이디어와 스타트업 DNA를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라며 “AI와 디지털자산 등 미래 핵심 분야 및 그룹 시너지를 강화하기 위한 신규 파트너를 지속 발굴해 내년에는 더욱 심도 있는 교류의 장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안승진 기자 asj1231@



# 삼성·LG, AI로 TV사업 체질 개선 하드웨어 넘어 플랫폼 수익 확장

삼성 전 라인업 AI 탑재 확대  
비전 AI로 개인 맞춤 고도화  
타이젠 기반 광고수익 다변화

LG TV사업 효율화로 수익 회복  
웹OS 중심 생태계 확장 가속  
광고·콘텐츠 매출비중 상향

글로벌 TV 시장 침체가 이어지면서 삼성전자와 LG전자가 TV·가전 사업 부문에서 동시에 적자를 기록했다. 업계는 인공지능(AI)과 프리미엄 전략을 앞세워 돌고구를 모색하는데 분주하다. 아울러 하드웨어 판매를 넘어 광고·구독·데이터 등 플랫폼 중심의 수익 모델로 체질 전환에 나서는 모습이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올해 3분기 글로벌 TV 출하량은 4975만대로 전년 동기 5233만대 대비 4.9% 감소했다. TV교체 주기의 장기화, 관세 우려로 인한 선수요 증가, 중국 정부의 보조금 정책 영향력이 감소된 것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상반기 미국의 상호관세 정책 시행을 앞두고 북미 시장 주요 브랜드들이 선제적으로 재고 축적에 나서면서 전년 동기 대비 출하량이 약 2% 증가한 바 있다. 이에 따른 기저효과로 올해 3분기에는 출하량이 다소 위축된 것으로 분석된다.

글로벌 TV 시장 침체 여파로 삼성전자와 LG전자는 3분기 TV·가전 실적에서 부진한 성적표를 받았다. 삼성전자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KES 2025(한국전자전) 삼성전자관에서 관람객들이 ‘마이크로 RGB T V’의 화질과 색 재현력, 명암 표현력 등을 경험하고 있다. /삼성전자

의 영상디스플레이(VD) 사업부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4% 감소한 7조 3000억원으로 집계됐으며 생활가전(DA) 사업부를 포함한 영업손실은 1000억원을 기록해 1년 전 대비 적자전환했다.

같은 기간 LG전자의 TV사업을 담당하는 MS사업부는 매출이 전년 동기 9.5% 줄어든 4조 6525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손실은 3026억원으로 전분기 1917억원 영업손실 대비 적자 폭이 커졌다.

이에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TV등 프리미엄 제품에 집중해 수익성 강화에 나서는 동시에 AI기능, TV전용 플랫폼 등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차별화를 모색하고 있다. 또한 삼성전자는 TV 전 라인업에 AI 플랫폼 적용을 확대하고 있다.

초대형·프리미엄 중심의 제품 포트폴리오를 유지하는 동시에 중저가 모델에도 AI업스케일링과 개인화 기능을 확산할 계획이다. 특히 대화형 인공지능 ‘비

전 AI 캠페인’ 적용 범위를 넓히고 자체 OS인 ‘타이젠’ 기반 무료 채널 서비스 ‘TV 플러스’를 통해 광고형 수익 모델을 강화한다는 전략이다.

LG전자는 TV사업 운영 효율화를 통해 수익성 개선에 역량을 집중하는 분위기다. 특히 광고 사업 고도화와 콘텐츠 확대를 통해 자체 플랫폼인 ‘웹OS’ 사업 기반을 확장 중이다. 웹OS 플랫폼을 탑재한 기기는 올해 기준 2억 6000만대를 넘어섰다. LG전자는 2030년까지 웹OS 탑재 기기를 2배 이상으로 늘리고 광고 및 콘텐츠 매출 비중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업계 관계자는 “TV사업의 주요 변수로는 패널 가격 변동, 교체 수요 둔화, 콘텐츠 소비 패턴 변화 등이 꼽힌다”라며 “기업들은 생산거점 다각화와 기업간 거래(B2B) 사업 비중 확대 등으로 대응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 “품질·안전·전략 유연성이 우리의 강점”

호세 무뇨스 현대차 사장 타운홀 미팅  
2025 성과 공유·2026 전략 제시  
“위기 대응력, 현대차 DNA 증명”

호세 무뇨스 현대차 사장이 현대차 타운홀 미팅 ‘2025 리더스 토크’를 통해 국내 임직원들과 세 번째 소통의 자리를 가졌다. 이번 만남에서 무뇨스 사장은 CEO 부임 첫 해의 성과를 되돌아보고 2026년의 전략과 방향성을 임직원들과 공유했다.

지난 5일 현대차 서울 강남대로 사옥에서 진행된 타운홀 미팅에서 무뇨스 사장은 “복잡한 환경을 관리하면서도 탁월한 결과를 달성했다”며 “2025년의 성과를 통해 위기 대응력이 우리 DNA의 일부임을 증명했다”고 말했다.

무뇨스 사장은 지난해 12월 처음 타운홀 미팅에 나선 이후 올해 2월과 이달에 타운홀 미팅을 가졌다. 무뇨스 사장은 이번 미팅에서는 현대차가 올해 지정학적 위기를 전략적으로 대응한 과정을 소개하고 내년 중점 추진 사업, 지역별 전략, 경쟁력 강화 및 혁신 방안 등을 공유했다.

무뇨스 사장은 “전 세계 임직원의 헌신과 끈기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자동차 산업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지만 우리의 미래 대응 역량에 큰 확신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의 강점은 제품의 품질과 안전성, 파워트레인과 시장 전반에 걸친 전략의 유연성, 그리고 무엇보다 임직원들의 재능과 헌신에 있다”고 했다.

글로벌사업관리본부 이영호 부사장, 전동화에너지솔루션담당 김창환 부사



호세 무뇨스 현대차 사장이 5일 현대차 강남대로 사옥에서 진행된 타운홀 미팅에서 메시지를 전달하는 모습. /현대차

장, HR본부 김혜인 부사장도 이번 미팅에 참석해 직원들과 소통에 나섰다.

이영호 부사장은 글로벌 시장에서 부상하는 신흥 완성차 업체들에 대한 대응 방안을 설명했다.

이영호 부사장은 “차별화된 서비스 경험, 전략적인 금융 파트너십, 신흥 시장 전환형 차량 판매 확대 등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통해 대응하고 있다”며 “신흥 브랜드들의 추격에 대비해 각 부분이 유기적으로 협력해 대응을 강화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창환 부사장은 고객 안전에 대한 질문에 “안전은 타협할 수 없다는 생각을 갖고 안전을 위한 설계 개선, 신기술 개발 및 적용을 통해 지속 업그레이드하고 있다”고 했다.

김혜인 부사장은 임직원의 전문성과 관련해 “인공지능(AI) 시대에는 깊이 있는 전문성과 폭넓은 지식이 동시에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양성운 기자 ysw@

## 삼성중공업, 美 조선업 진출 본격화

디섹과 손잡고 미국 시장 공략

삼성중공업이 미국 조선업 진출에 속도를 낸다.

삼성중공업은 선박 설계 및 기자재 조달 전문회사인 디섹(DSEC)과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 협약(MOU)’을 체결하고 한·미 조선업 협력과 글로벌 사업 확대에 나선다고 6일 밝혔다.

디섹은 상선 및 특수선 대상으로 설계, 기자재 공급, 유지보수, 조선소 컨설팅 등 다양한 분야에서 미국 조선소와 협업하고 있다.

이번 협약에는 미국을 포함한 국내외에서 ▲중형 상선 건조 ▲조선소 현대화 컨설팅 ▲선박 개조 및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화물창 수리 ▲그린·디지털

솔루션 제공 ▲연구개발(R&D) 설비 활용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예정이다.

삼성중공업은 조선·해양 건조 기술을 디섹이 미국에서 수행한 설계·조달 역량과 연계해, 마스가(MASGA) 프로젝트에 최적화된 밸류 체인을 구축하는 등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삼성중공업은 디섹과의 협력을 활용해 북미, 동남아 지역 등 글로벌 시장 진출에도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디섹은 미국 내 선박 설계·조달 경험이 많은 최고의 파트너”라며 “미 비거 마린그룹과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에 이은 디섹과 협약은 새로운 성장 동력 창출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혜은 기자 dhale@

## 삼성·LG, 글로벌 무대에서 K-테크 각인

삼성 27개·LG 18개 혁신상 수상  
삼성, 영상디스플레이 12개 포함  
LG, 올레드 TV 4년 연속 최고혁신상

국내 기업들이 세계 최대 전자 전시회 ‘CES 2026’을 앞두고 혁신상을 대거 수상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세계 최대 전자·IT 박람회인 CES는 미국소비자기술협회(CTA) 주관으로 매년 1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다. ‘CES 2026’은 오는 2026년 1월 6일부터 9일까지 열린다. CTA는 CES 개막에 앞서 가장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를 선정해 CES 혁신상을 수여했다.

삼성전자는 영상디스플레이 12개, 생활가전 4개, 모바일 3개, 반도체 7개, 하만 1개 등 총 27개의 혁신상을 받았다.

영상디스플레이 부문에서는 업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제품이나 기술에 수여하는 최고 혁신상 2개를 수상했으며, 2026년형 TV, 모니터 등 신제품과 서비스로 10개의 혁신상을 수상했다 생활가전 부문에서는 사용자의 편의성을 증대시킨 ‘냉장고 오토 오픈 도어’ 기능을 비롯해, 2026년형 가전 신제품과 기술로 4개의 CES 혁신상을 받았다.

모바일 부문에서는 ‘갤럭시 XR’, ‘갤



삼성전자 CES 혁신상 로고와 수상 제품 이미지. /삼성전자

럭시 Z 폴드7’, ‘갤럭시 워치8’로 3개의 혁신상을 수상했다. 반도체 부문에서는 양자보안 칩 ‘S3SSE2A’이 사이버보안 분야에서는 최고혁신상을 임베디드 기술 분야에서도 혁신상을 수상하며 2개 분야에서 상을 받았다. 또 ‘LPDDR6’, ‘PM9E1’, ‘Detachable AutoSSD (탈부착 가능한 차량용 SSD)’, ‘ISOCELL HP5’, ‘T7 Resurrected’로 혁신상을 수상했다.

LG전자는 최고 혁신상 2개를 포함해 총 18개의 CES 혁신상을 받았다.

LG 올레드 TV와 모니터는 화질, 게이밍, 컴퓨터 하드웨어 부문에서 최고 혁신상을 포함, 총 5개의 혁신상을 받으며 ‘올레드는 LG’라는 공식을 입증했다. 특히 2023년 벤더를 게이밍 올레드 TV ‘LG 올레드 플렉스’, 2024년 ‘LG 무선 올레드 TV’, 2025년 새로운 밝기



최고 혁신상을 받은 LG전자의 투명·무선 TV ‘LG 시그니처 올레드 T’. /LG전자

향상 기술을 적용한 ‘LG 올레드 예보’에 이어 이번에는 세계 최초의 투명·무선 TV ‘LG 시그니처 올레드 T’가 최고 혁신상을 받으며 LG 올레드 TV는 4년 연속 최고 혁신상 수상 기록을 세웠다.

국내 배터리 기업들도 나란히 혁신상을 수상하며 글로벌 시장에서 배터리 기술력을 인정받았다. LG에너지솔루션은 첨단 모빌리티 부문에서 자사의 ‘Better.Re(베터.리)솔루션’으로 혁신상을 수상했다. 삼성SDI는 초고출력 원통형 배터리인 ‘SDI 25U-Power’로 ‘CES 2026’ 건설·산업기술 부문 최고 혁신상을 수상했다.

이 밖에도 두산로보틱스의 인공지능(AI) 기반 로봇 솔루션 ‘스캔앤고’가 AI 부문 최고혁신상과 로봇공학 부문 혁신상을 수상했다.

/원관희·차현정 기자 wkh@

## 대한항공, 아음속 무인표적기 국산화 착수

방사청 개발사업 수주… 230억 투입

대한항공이 우리 군의 아음속 무인표적기를 국산화한다.

대한항공은 6일 방위사업청이 공모한 무기체계 부품 국산화 개발 지원 사업을 수주했다. 오는 2028년 9월까지 ‘다목적훈련지원정용 조종·통제 콘솔 등 4종’ 개발 과제를 수행할 예정이다. 정부 지원금을 포함한 연구개발비는 약 230억원이다.

이번 사업으로 대한항공은 아음속 무

인표적기 기체, 조종·통제 장비, 발사대 등 핵심 구성품을 국산화하며, 현재 우리 해군이 다목적훈련지원정에서 운용하는 해외 구매 표적기를 대체한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수입 의존도가 높았던 훈련 지원 무인체계 분야에서 국산화 기반을 마련하는 전환점”이라며 “그간 쌓아온 기술력과 양산 역량을 바탕으로 무인기 플랫폼의 국방 자주화와 방산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양성운 기자



## 중기부, 지역특화발전특구 제도 개편방안 발표

## 성과평가 등급 5단계 세분화… 한성숙 “신상필벌 체계 확립”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특구 유형에 따라 맞춤형 지원 강화  
성과 부진시 명예졸업제 등 적용  
韓 장관 “진짜 지방시대 기반 마련”

정부가 성과가 부진한 지역특화발전 특구(지역특구)에 대해 명예졸업제 등을 통해 퇴출한다. 5단계로 세분화해 성과가 좋은 특구에는 더 많은 인센티브를 준다. 지역특구의 지원 유형이 3개로 나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지역특화발전특구 제도 개편방안’을 6일 발표했다. 이번 개편안은 2004년 도입한 지역특구 제도의 내실을 기하고 규제특례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다.

지역특구 제도는 그동안 지역의 자발적인 특화사업 발굴을 유도하며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경제적 자립 기반을 다



지는데 긍정적 역할을 했다. 다만 민간 참여 유도 측면에서는 다소 아쉬움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중기부는 우선 지역특구를 ▲부가가치 고도화형 ▲융합 혁신형 ▲도전 도약형으로 분류해 맞춤형 지원에 나선다.

‘부가가치 고도화형’(중규모·전통산업)은 공주 알밤특구처럼 특구 내 생산·가공·유통·판매 등 밸류체인 단계별 협업을 지원한다. 중기부 상권육성사업, 타부처 정부 공모사업(농촌융복합산업지구, 도시재생뉴딜 등)과의 연계도 확대한다.

‘융합 혁신형’(중규모·신산업)은 디지털 역사문화 특구(문화재+VR·AR 기술)처럼 신기술 접목이 필요한 경우 관련 신규 특례를 적극 발굴한다. 지

자체의 요청 시 해당 특구에만 적용되는 ‘개별 인정특례’를 허용하거나 조례를 통해 기존 특례 한도를 확대할 예정이다.

‘도전 도약형’(소규모·인구감소지역)은 로컬크리에이터, 상권기획자 등 민간 전문가가 지자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특화사업을 직접 추진하는 방식을 도입한다. 민간 전문가와 지방중기청이 협업해 특화사업 기획, 특례 적용 등 전 주기를 밀착 지원하는 ‘전문코칭 방식’도 새롭게 운영한다.

성과중심 운영체계도 도입한다. 중기부는 성과평가 등급을 5단계로 세분화해 ‘탁월·우수’ 특구에는 정부사업 연계 등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그러나 ‘부진’ 특구는 그 비율을 10%까지 확대하는 등 구조조정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구의 기획·운영·평가 등 전 단계는 지방중기청을 중심으로 밀착

지원한다.

개편안에는 법 제도 정비 및 협력기반 강화 내용도 담겼다.

신규 특구 지정 시 최대 지정기간을 설정하고 우수특구 사업과 지원 등을 위한 정부의 재정지원 근거를 신설한다. 유사 분야 특구 간에는 운영 노하우를 전수하고 공동 프로젝트를 추진하거나 네트워킹을 정례화하며 ‘(가칭)특화특구 전략협의체’를 신설해 중앙과 지방 간 소통을 강화한다.

한성숙 중기부장관(사진)은 “지방소멸 위기 속에서 특화특구가 지역이 발붙일 먹거리가 상권 활성화까지 이어지는데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면서 “이번 개편을 통해 민간과 지자체가 ‘윈윈’이 되고, 성과에 기반한 ‘신상필벌’ 체계를 확립해 ‘진짜 지방시대’를 여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KG모빌리티(KGM)가 이스라엘, 튀르키예 등 신흥시장에서 토레스 하이브리드(토레스 HEV)와 무쏘EV 등 신제품 출시 행사를 갖고 수출을 본격화한다.

## KG모빌리티

## 이스라엘 신차 출시 행사

KG모빌리티(KGM)가 이스라엘, 튀르키예 등 신흥시장에서 토레스 하이브리드(토레스 HEV)와 무쏘EV 등 신제품 출시 행사를 갖고 수출을 본격화한다.

KGM은 지난 5일(현지시간) 이스라엘 텔아비브 인근 쉬파임 지역에서 토레스 HEV 출시 행사를 열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현지 기자 40여명이 참가해 토레스 HEV의 성능과 연비 효율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직접 시승했다.

/양성운 기자 ysw@

## KAI, 리더십 공백에 성장 정체… 3분기 실적 급감

매출 7021억, 영업이익 602억  
전년 동기대비 20% 이상 감소  
업계 “조속한 리더십 안정 필요”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심각한 리더십 공백으로 ‘수익성·경쟁력 악화’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업계에서는 글로벌 방산 시장이 확대되는 흐름 속에서 국내 주요 방산 업체가 수출 호조로 양호한 실적을 거두는 반면 KAI는 뚜렷한 반등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면서 조속한 리더십 안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5일 업계에 따르면 KAI의 올해 3분기 매출은 7021억원, 영업이익은 602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2.6%, 21.1% 감소했다. 같은 기간 순이익은 42.6% 줄어든 390억원에 그쳤다.

회전율 사업 부문에서 소형무장헬기(LAH) 인도 지연과 폴란드형 수출이 지연된 영향으로 분석된다.



KAI 본관 전경.

/KAI

실적 부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주요 사업 입찰에서도 잇따라 고전하면서 KAI의 올해 수주 목표 달성은 점점 더 어려워지는 분위기다. KAI는 약 1조원 규모의 ‘UH-60 성능개량 사업’과 1조 8000억원 규모의 ‘전자전기(Block-I) 체계개발 사업’에서 대한항공-LIG넥스원 컨소시엄에 항공통제기 2차 사업에서는 대한항공-L3해리스(L3Harris) 컨소시엄에 밀렸다.

KAI는 연간 8조 4590억원의 수주 목표를 세웠지만 2분기까지 누적 수주는 3조 1622억원으로 목표의 37.3%에 그쳤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KAI 사장 공백이 반복되면서 수주 경쟁력이 떨어지고 의사결정 지연으로 대형 프로젝트 대응력도 약화됐다는 지적이다. 현재 차재병 부사장이 직무대행을 맡고 있으나 후임 사장 선임 절차는 답보 상태다. 최

대주주인 수출입은행의 은행장 인선이 마무리돼야 KAI 사장 인사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수출입은행장과 방위사업청장 인사가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만큼 KAI 사장 인선도 그 이후에야 속도를 낼 것으로 관측된다.

대외 리스크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KAI와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 대한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양사는 최근 3년간 하도급업체와의 거래 과정에서 기술자료 유출, 대금 미지급, 단가 인하 등의 ‘갑질’ 혐의를 받고 있으며, KAI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도 함께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조사 결과에 따라 향후 평판 리스크와 행정 제재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외 수주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는 만큼 KAI가 내부 체계를 조속히 정비하지 않으면 방산 시장에서의 입지가 좁아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원관희 기자 wkh@

## 한진

## K-인플루언서 성장 지원

썬한진이 인플루언서 커머스 시장을 위한 맞춤형 물류 솔루션 ‘원스타(OneStar·사진)’를 선보이고 K-인플루언서 브랜드 성장을 본격 지원한다.

6일 한진에 따르면 원스타 서비스는 글로벌 쇼핑 트렌드의 중심으로 떠오른 인플루언서의 잠재력에 주목해 브랜드 론칭을 꿈꾸는 인플루언서에게 최적화된 물류 편의를 제공하도록 설계했다.

특히 창업 초기 인플루언서의 물류 부담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라이브 커머스 등 트래픽 집중이 발생하는 인플루언서의 판매 패턴에 맞춰 물류 효율을 극대화했다.



/김승호 기자

## HJ중공업, 4만 5000㎥급 LPG·암모니아 운반선 개발

英 로이드선급 기본설계승인 획득

HJ중공업이 영국 로이드선급(LR)으로부터 4만 5000㎥급 중형 액화석유가스(LPG)·암모니아 운반선에 대한 기본설계승인(AiP)을 받았다고 6일 밝혔다.

HJ중공업은 3만 8000㎥급 LPG 운반선과 8만 8000㎥급 초대형 암모니아 운반선에 이어 4만 5000㎥급 LPG·암모니아 운반선 개발까지 마치며 시장 변동에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는 가스 운반선 선형 풀을 갖췄다.

HJ중공업과 로이드선급은 지난 7월 공동개발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약 4개

월 간 연구개발에 매진했다. HJ중공업은 중형급 선형 설계, 구조 최적화, 저온 강재를 적용한 타입 A 탱크 설계, LPG·암모니아 안전·효율 운송 기술을 담당했고 로이드선급은 선박·탱크 설계 적합성 및 구조 안전성을 심사해 AiP를 부여했다.

이번 선형은 전장 190m, 폭 30.6m, 화물창 용적 4만 5000㎥ 규모다. LPG와 암모니아는 물론 연화비닐모노머(VCM) 등 다양한 액화가스를 적재할 수 있도록 설계해 선주의 운항 선택지를 넓혔다.

암모니아의 독성·부식성에 대응해 누출 감지와 자동 환기 제어를 적용하고

균열 발생을 줄이기 위해 저온 강재를 채택하는 등 안전 설계를 강화했다. 로이드선급의 엄격한 기술·안전 기준과 LPG·암모니아 운반선의 건조와 장비에 관한 국제 규정(IMO IGC Code) 모두 충족했다.

HJ중공업은 이번 선형 외에도 메탄올 추진선, 이중연료선, 수소선박, 암모니아 추진선 등 친환경 선박 개발을 이어가며 발주 수요 변화에 대비할 계획이다.

HJ중공업 관계자는 “세계적으로 명망 높은 로이드선급으로부터 기본설계승인을 획득함으로써 설계 역량과 기술력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며 “지속적인



HJ중공업은 영국 로이드선급(LR)으로부터 4만 5000㎥급 중형 액화석유가스(LPG)·암모니아 운반선에 대한 기본설계승인(AiP)을 받았다. 김보연 HJ중공업 기술영업 상무(오른쪽)와 김영두 로이드선급 GTSO 한국대표가 AiP 수여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HJ중공업

연구개발을 통해 기술적 경쟁우위를 확보해 탈탄소·친환경 선박 시장을 적극 공략하겠다”고 말했다.

/유혜은 기자 dhale@

## 홈쇼핑

## 검색·쇼핑 AI 기술 도입

홈쇼핑이 인공지능(AI) 기반 커머스 기술 기업 버즈니와 손잡고 AI 기술을 활용한 쇼핑 혁신에 나선다.

6일 홈쇼핑에 따르면 버즈니의 검색 AI와 쇼핑 AI 기술을 도입한다.

세계 검색대회 TREC에서 1위를 차지한 버즈니의 기술력이 담긴 검색 AI를 통해 이용자의 클릭 및 구매 이력을 분석, 검색 의도에 최적화된 결과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쇼핑 AI는 홈쇼핑 방송 영상에서 이미지·음성·자막을 동시에 분석해 하이라이트 구간을 자동 추출하고, 쇼핑 영상으로 재편집하는 기술이다. 긴 방송 콘텐츠를 짧고 임팩트 있는 쇼핑 영상으로 빠르게 제작하는데 활용할 계획이다. /김승호 기자





AI·Cloud·연계 플랫폼 초월 기업 메타빌드

# AI LLaMON Platforms

상용/SaaS 하이브리드형

AI 연계미들웨어·디지털트윈관제플랫폼 시장점유율 1등 기업

## AI통합플랫폼 (LLaMON)

LLM·RAG·MLOps, Agent

LLM/sLLM 모델 및 튜닝

RAG 파이프라인도구

멀티 AI에이전트도구(MCP/A2A)

Document/민원상담 AI

## 디지털휴먼플랫폼 (Kelver One)

### 연계미들웨어 (MESIM)

시장점유율 1위  
[SaaS or On-Premise]

APIG/ESB/망/SAP연계

AI 연계/장애 어시스턴트

DATAHUB

### 디지털트윈관제플랫폼 (Kelver Twin)

교통·도시·산단·건설

자율차·철도 항공·드론

레이더·AI영상검지





# ‘에이전트 엔’ 전면 도입… 검색부터 제조까지 AX 가속화

## 팀네이버 ‘단25’

내년 쇼핑·검색에 에이전트 접목  
‘에이전트 엔 포 비즈니스’ 공개 예정  
사업자 솔루션·데이터 하나로 통합  
크리에이터 AI·XR 활용 지원도  
데이터센터·컴퓨팅 투자 확대

네이버가 주요 서비스에 인공지능(AI) 에이전트를 전면 도입하고, 반도체·자동차·조선 등 핵심 제조 산업의 인공지능 전환(AX) 경쟁력을 높이는 등 일반 서비스부터 기업 간 거래(B2B)까지 아우르는 AI 미래 전략을 공개했다.

네이버는 6일 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 개최된 팀네이버의 통합 컨퍼런스 ‘단25(DAN25)’에서 이같은 내용의 기술 로드맵을 발표했다.

### ◆ 온·서비스 AI로 서비스 성장·신규 시장 창출

이날 행사 키노트 세션의 오프닝을 맡은 최수연 대표는 “지난 1년간 독자적인 기술력으로 검색·쇼핑·로컬·금융 등 주요 서비스에 AI를 접목한 결과 사용자



최수연 네이버 대표가 6일 열린 단25 컨퍼런스에서 ‘에이전트 엔’을 소개하고 있다. /네이버

만족도가 증가하고, 매출이 성장하는 등 긍정적인 신호를 받았다”며 “검색, 광고 등 주요 서비스에 순차적으로 고도화된 에이전트를 본격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네이버는 내년 1분기에 AI 쇼핑 서비스 ‘네이버플러스 스토어’에 쇼핑 에이전트를 접목하고, 2분기에는 통합검색이 AI 에이전트를 기반으로 진화하는 ‘AI탐’을 선보일 계획이다.

최대표는 “사용자는 어떤 검색어를 입력할지 고민하지 않아도 된다”며 “‘에이

전트 엔(Agent N)’과의 대화만으로 AI 에이전트가 사용자의 의도를 파악해 원하는 콘텐츠·상품·서비스로 연결하고 실제 행동까지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에이전트 엔은 ‘온·서비스 AI’를 통해 축적된 버티컬 AI 역량을 고도화한 기술로, 사용자의 맥락을 이해하고 다음 행동을 예측·제안하며 실행까지 완결하는 구조로 설계됐다.

김범준 최고운영책임자(COO)는 “다양한 유형의 메타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

는 네이버만의 장점을 살려, 쇼핑 에이전트에 실제 구매자와 예약자만 남길 수 있는 리뷰, 판매자와 직접 연결된 재고 데이터 등 신뢰도 높은 데이터 인프라를 구축했다”며 “이를 분석하는 기술적 검증 체계도 갖췄다”고 강조했다.

### ◆ 크리에이터·비즈니스 파트너 위한 기술 생태계 확장

창작자와 비즈니스 파트너를 위한 AI 에이전트 생태계도 열린다. 네이버는 2026년부터 순차적으로 비즈니스 통합 에이전트 ‘에이전트 엔 포 비즈니스(Agent N for Business)’를 공개할 예정이다.

이종민 광고 사업 부문장은 “네이버 비즈니스 에이전트는 쇼핑·광고·플레이스 등 모든 사업자들을 위한 AI 솔루션”이라며 “그동안 분산돼 있던 사업자 솔루션과 데이터를 하나의 비즈니스 허브로 통합, 사업자가 AI를 기반으로 비즈니스 환경을 분석하고 현황을 손쉽게 진단해 개선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네이버는 창작자들이 AI·XR(확장 현실)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해 새로운 창작 실험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재후 네이버앱 서비스 부문장은 “AI

와 XR 기술을 통해 크리에이터들이 창작 영역을 확장하고, 사용자는 초몰입·초실감의 콘텐츠를 경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를 위해 네이버는 게임, 음악,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의 기업들과 지속적으로 협력을 확대할 방침이다.

### ◆ AI 생태계 투자 공격적 확대…제조 산업 중심 AX 협력

네이버는 국내 최대이자 최고 수준의 인프라를 목표로 AI 생태계 경쟁력을 위한 데이터센터와 컴퓨팅 투자를 공격적으로 확대한다. 우선 내년까지 1조원 이상의 GPU(그래픽처리장치) 투자를 진행할 계획이다. 네이버 제2사옥 1784와 각 세종 데이터센터를 연결하는 ‘피지컬 AI’의 테스트베드도 곧 본격적으로 운영된다.

최수연 대표는 “반도체·자동차·조선 등 한국 제조 핵심 산업의 탄탄한 경쟁력 위에 네이버가 갖춘 독보적인 AI 소프트웨어 역량을 더해 대한민국 산업 전반의 AI 전환과 혁신을 가속화할 것”이라며 “풀스택 AI 기술 역량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이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는데 기여하겠다”고 전했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 KT-메리츠화재, 금융 AI모델 개발 추진

### ‘AI 기반 미래 금융 혁신’ 공동연구 금융·보험 분야 활용 성과 창출 청구 서류 자동인식 등 고도화

KT는 메리츠화재와 6일 서울 광화문 빌딩에서 ‘AI 기반 미래 금융 혁신’을 위한 전략적 공동 연구 협약을 체결했다. 양사는 KT의 인공지능(AI) 기술과 메리츠화재의 금융·보험 데이터 역량을 결합해 금융 서비스 혁신 모델을 모색한다.

이번 간담회에서 두 회사는 보험 및 금융 분야에 연계 가능한 AI 모델 개발과 고객 경험 혁신을 위한 기술 연구 방향을 논의했다. KT는 AX(인공지능 전환) 사업 경험과 ICT 기술을 기반으로 금융·보험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는 성

과 창출을 추진할 계획이다. 메리츠화재의 보험 관련 데이터와 KT의 AI 모델 제작 노하우를 결합해 시너지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양사는 공동으로 AI 금융 모델을 활용하며 ▲보험 특화 AI 모델 개발 ▲AI 기반 보상 자동심사를 위한 청구 및 의료 서류 인식 기술 ▲AI 기반 데이터 분석 및 생성 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를 추진한다.

KT는 연구에 필요한 GPU 인프라와 AI 모델을 제공하고, 한국어 인식 성능이 높은 ‘밀:음 K 2.0’ 등을 활용할다. 금융권 망분리 환경에서의 법률 특화 AI 모델 개발 경험을 바탕으로, 금융·보험 분야 맞춤형 AI 모델 개발 역량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 자체 OCR(광학문자인식) 솔루션 ‘다큐씨(DocuSee)’를 적용해 의료 및 보험 서류 인식 성능을 고도화한다. 이를 통해 복잡한 청구 서류를 자동 인식·분석하고, 대고객 서비스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메리츠화재는 정형·비정형 금융 데이터를 제공해 AI 학습 모델의 정확도를 높이고, 고객 데이터 보호 및 보안체계를 고려한 AI 기반 보상 시스템 개발을 추진한다.

양사는 이번 협약을 시작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보험 특화 AI 모델과 의료 서류 인식 기술 고도화를 마무리하고, 이를 기반으로 금융·보험 분야의 디지털 전환과 AI 생태계 조성을 이어갈 계획이다.

/김서현 기자 seoh@

## LG U+, 직장인 AI 활용 역량강화 지원

### ‘AI 미래 토크’ 열어

LG유플러스는 직장인의 인공지능(AI) 활용 역량을 높이기 위해 ‘AI 미래 토크’를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지난 5일 서울 역삼동에서 열린 행사에는 선착순으로 모집한 30~40대 직장인 2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LG유플러스와 바른 과학기술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과실연) AI미래포럼이 공동 주최했다. 최신 AI 트렌드를 공유하고 참가자들이 다양한 AI 서비스를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현장에는 LG유플러스의

AI 구독 서비스 ‘유독픽AI’에 참여하는 국내의 제휴사 10곳이 함께 했다.

이번 행사는 ‘퇴근 후 만나는 AI 레벨업 찬스’를 주제로 진행됐다. 메인 강연자로는 김경훈 오픈AI코리아 총괄 대표가 참여해 AI 시대의 인재상과 필요한 역량에 대해 강연했다. 이어 김승일 과실연 AI미래포럼 대표의장과 류정혜 공동의장이 ▲AI를 통한 업무 효율화 ▲변화 대응을 위한 마인드셋 등을 중심으로 발표를 이어갔다.

강연 이후에는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참가자들이 AI 실무 적용 방안을 직접 논의했다.

/김서현 기자

## 넷마블-콩스튜디오, 글로벌 퍼블리싱 계약

### 신작 ‘프로젝트 옥토퍼스’ 판권 확보

넷마블은 글로벌 게임 개발사 콩스튜디오와 신작 게임 ‘프로젝트 옥토퍼스’ 글로벌 퍼블리싱 계약을 맺었다고 6일 밝혔다.

‘가디언 테일즈’의 지식재산(IP)을 활용한 이 게임은 내년에 출시되는 신규 작품으로, 도트 그래픽 기반의 캐주얼 액션 로그라이크 역할수행게임(RPG)이다.

이번 계약으로 넷마블은 프로젝트 옥토퍼스의 국내·외 서비스 판권을 확보했다. 회사는 그간 축적한 퍼블리싱 노하우를 기반으로 폭넓은 마케팅과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김병규 넷마블 대표는 “콩스튜디오와 손잡고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새 IP를 선보이게 돼 기대가 크다”며 “넷마블의 퍼블리싱 노하우와 콩스튜디오



김병규 넷마블 대표(왼쪽)와 석광원 콩스튜디오 대표가 ‘프로젝트 옥토퍼스’ 글로벌 퍼블리싱 계약 체결 후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넷마블

오의 독창적인 개발력이 시너지를 발휘해 전 세계 이용자들에게 완성도 높은 재미를 선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석광원 콩스튜디오 대표는 “넷마블과 협약을 통해 안정적인 서비스 환경을 제공, 프로젝트 옥토퍼스의 경쟁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 SK AX-씨에스윈드, 제조공정 최적화 ‘웨이브 플랫폼’ 구축

### 씨에스윈드, 전 사 AX 추진 전 세계 7개 법인 확대 계획

SK AX가 글로벌 풍력 타워 제조 기업 씨에스윈드와 함께 전사 AX(인공지능 전환)를 추진하며, 신재생 에너지 제조 산업 미래를 이끌 AI 중심 운영 모델 구현에 나선다.

SK AX는 씨에스윈드의 AI 기반 제조 공정 최적화를 위한 ‘웨이브(WAV)’ 플랫폼’ 구축 사업에 착수했다고 6일 밝혔다.

씨에스윈드는 미국·베트남·덴마크·포르투갈 등 7개 국가에서 생산 법인을 운영하며, 전 세계 해상·육상 풍력 발전 구조물을 공급하는 기업이다. 씨에스윈

드는 AI 중심 조직 운영과 프로세스 혁신을 목표로 전사 AX를 진행하고 있다.

앞서 SK AX는 지난 8월 씨에스윈드 미국 공장에서 AI 에이전트 도입 타당성 검증을 시행했다.

이번 웨이브 플랫폼 구축 사업은 타당성 검증 결과를 씨에스윈드 산하 미국과 포르투갈 법인에 도입해, AI 기반 생산 공정 최적화를 이루는 것을 목표로 한다. 회사는 해당 플랫폼을 향후 전 세계 7개 모든 법인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웨이브 플랫폼은 ERP(기업자원관리), MES(생산관리) 등 주요 기간 시스템 데이터를 클라우드 기반으로 연계해 실시간 조화와 활용을 가능케 하고, 국

가·사업장별 핵심 지표를 한 화면에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체계를 제공한다.

SK AX는 AX 플랫폼을 기반으로 씨에스윈드의 생산 현장과 사무 영역 전반에서 사람과 AI가 함께 일하는 에이전트 AI 체계도 구현한다. 미국 법인에 적용한 디지털 현황판과 AI 작업 지시 에이전트를 비롯해 ▲고객 도면을 자동 분석해 생산 공정 계획을 수립하는 에이전트 ▲자재·설비·인력 등 가용자원을 바탕으로 최적의 작업 일정을 생성하는 스케줄링 에이전트 ▲공정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해 리스크를 사전에 감지하고 조치를 돕는 현장 관리 지원 에이전트 등을 순차적으로 개발해 도입한다.

/김현정 기자



# ‘자본시장 리더십 분수령’… 서유석·정영채 행보에 ‘촉각’

## 금투협 차기 회장 선거 본격화

서유석 연임 도전 여부 관심  
정영채 변수에 시장 긴장감  
정부 자본시장 3.0 라운드 가동  
발행어음·IMA·STO 과제산적

제7대 한국금융투자협회장 선거가 본격화되면서 후보 구도가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황성엽 신영증권 대표와 이현승 전 KB자산운용 대표가 공식 출마를 선언하며 가장 먼저 선거전에 뛰어들었고, 현직 서유석 회장은 출마 여부를 밝히지 않은 채 고심을 이어가고 있다. 대형 증권사 출신의 공백 속에, 정영채 메리츠증권 상임고문(전 NH투자증권 사장)의 막판 등판이 최대 변수로 거론된다.

6일 금융투자협회 후보추천위원회에 따르면 위원회는 지난달 28일 구성을 마친 뒤 이달 4일부터 오는 19일 오전 10시까지 회장 후보자 공모를 진행 중이다. 이후 서류와 면접 심사를 거쳐 12월 초 최종 후보를 확정하고, 회원사 총회 투표로 차기 회장을 선출한다. 임기는 2026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이다.



황성엽  
신영증권 대표



이현승  
전 KB자산운용 대표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



정영채  
메리츠증권 고문

금투협 회장은 399개 정회원사(증권사 60곳, 자산운용사 322곳, 신탁사 14곳, 선물사 3곳)의 직접 투표로 선출된다. 회사별 분담금 비중에 따라 투표권이 차등 부여되는 구조로, 업계에서는 미래에셋 금융그룹의 표심이 약 10% 안팎으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본다. 대형 금융그룹 표의 향방이 이번 선거의 승패를 가를 핵심 변수로 꼽힌다.

이 같은 구도 속에서 공식 출마를 선언한 황성엽 신영증권 대표는 1987년 입사 이후 38년간 한 회사를 지켜온 ‘정통 신영맨’으로, 리테일부터 IB(투자은행)까지 전 부문을 두루 거친 자본시장 전문가다. 그는 “가계 자산이 증시와 연금

시장으로 유입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며 자본시장을 국가 성장 기반으로 키우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현승 전 KB자산운용 대표는 행정고시 32회 출신으로 기획재정부와 SK증권, KB자산운용 등을 거친 민관 경력자다. 관료적 전문성과 업권 이해도를 강점으로 내세워 “통합자산관리체계와(IMA) 제도 조기 도입과 중소형사 규제 완화, 투자자 보호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유석 현 회장은 아직 공식 출마 여부를 밝히지 않았으나 업계는 정황상 출마가 유력하다고 보고있다. 금투협 이사회의장인 그는 최근 후보추천위원회 구

성 회의에 불참하며 ‘선거 개입’ 논란을 피했다. 중국 빅테크 기업 방문 일정을 취소한 점도 출마 가능성을 두고 여러 해석을 낳고 있다. 다만 협회장직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연임된 사례가 없어, 실제 도전으로 이어질지는 끝까지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다.

변수로 꼽히는 정영채 메리츠증권 상임고문(전 NH투자증권 사장)은 여전히 고심 중이다. 그가 출마를 결심할 경우 이번 선거는 ‘대형사 대 비(非)대형사’ 구도로 확전될 수 있다. 다만 출마 시 메리츠증권 고문직에서 물러나야 하는 만큼, 쉽지 않은 선택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한편 첫 여성 회장 후보로 거론됐던

박정림 전 KB증권 대표는 법적 리스크를 이유로 불출마를 공식화했다.

이번 선거가 주목받는 이유는 단순한 인사 경쟁이 아니라, 향후 자본시장 리더십의 방향을 결정짓는 분수령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자본시장 ‘3.0 라운드’ 정책을 통해 증권업을 ‘생산적 금융’의 플랫폼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가운데, 협회의 정책 파트너로서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현재 자본시장에는 발행어음 제도 개편, IMA 활성화, 토큰증권(STO) 제도 정비, 밸류업(Value-Up) 정책 후속, 투자자 보호 강화 등 굵직한 과제가 산적해 있다. 특히 정부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 제도를 통해 IB 기능을 강화하고, 모험자본 조달을 위한 자본시장 생태계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차기 회장은 회원사 이해를 조율하는 자리에 머물러선 안 된다”며 “정부 정책과 시장의 요구를 동시에 반영할 수 있는 ‘정책형 리더십’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누가 회장이 되든 향후 3년은 한국 자본시장의 신뢰 회복과 제도 혁신의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허정윤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 미래에셋證, 순익 19%↑·해외이익 사상 최대 국민연금, 美 기술주 강세에 18조 평가의

올해 3분기 순이익 3438억  
연금·해외주식 50조 돌파  
브로커리지·WM 역대 최고

미래에셋증권은 올해 3분기 세전이익 4472억원, 순이익 3438억원을 기록했다고 6일 밝혔다.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6%, 19% 증가한 수치다. 매출은 6조 6724억원으로 22.5% 늘었고, 영업이익은 2228억원으로 39.9% 감소했다.

3분기 누적 기준으로는 세전이익 1조 3135억원, 순이익 1조 799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4.1%, 16.9% 증가했다.

브로커리지(Brokerage)와 자산관리(WM) 부문은 모두 분기 기준 최고 실적을 올렸다. 브로커리지 수수료 수익은 2637억원으로 전 분기 대비 22% 급증했

고, 금융상품판매 수수료 수익도 21% 늘어난 918억원을 기록했다.

미래에셋증권은 국내 증권사 최초로 연금과 해외주식 잔고 모두 50조원을 넘어섰다. 회사에 따르면 올해 3분기 기준 고객들은 연금 수익 10조원, 해외주식 수익 15조원을 달성하며 수익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했다. 회사의 WM 부문 수익성 역시 이에 따라 확대됐다.

해외법인 세전이익은 3분기 누적 기준 2990억원으로 전체 세전이익의 약 23%를 차지하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선진국 중심의 플로우 트레이딩(Flow Trading) 비즈니스와 베트남·인도네시아·인도 등 이머징마켓의 WM 확장에 힘입어 견조한 실적을 이어갔다. 향후 해외법인의 독립적 거버넌스 강화와 리스크 관리 체계 고도화, IT 보안 강화를 통해 내부

통제를 한층 높인다는 계획이다.

연환산자기자본이익률(ROE)은 10.8%로, 2분기 연속 두 자릿수를 유지했다.

미래에셋증권은 3분기 영업이익 감소와 관련해 “실질적인 영업활동 부진이 아닌 회계기준상 처리 방식에 따른 결과”라고 밝혔다.

회사 관계자는 “당사는 과거 판교 알파돔 부동산을 펀드 형태로 투자했으며, 매각 과정에서 회계기준에 따라 수익과 비용이 구분됐다”며 “미래에셋증권이 보유한 펀드 지분 매각분은 영업외수익으로, 다른 투자자 지분 매각분은 영업비용으로 각각 처리됐다”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실제 현금 유입이나 사업성과와 무관하게, 회계상으로는 영업이익이 일시적으로 감소한 것처럼 나타났다.는 설명이다.

/허정윤 기자

美 주식 552종목 186조 보유  
3개월 새 평가액 11% 증가  
엔비디아·애플·MS 비중 확대

미국 증시가 강세를 보였던 올해 3분기 국민연금이 대형 기술주를 중심으로 18조 7000억원의 평가이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지난 4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9월 말 기준으로 미국 552개 상장종목에 투자 중이라고 밝혔다. 투자 종목 수는 지난 6월 말 534개에서 소폭 늘었고, 보유주식 수도 8억 805만주에서 8억 595만주로 약 6.4% 증가했다.

해당 기간 국민연금이 보유한 미국 주식의 액면가치는 1158억 3000만달러(약 167조원)에서 1287억 7000만달러(약 186조원)로 11.2%(129억 4000천만 달러) 증가했다.

평가액이 가장 큰 품으로 증가한 종목은 인공지능(AI) 대장주인 엔비디아다. 지난 6월 말 기준 73억 5210만달러에서 9월 말 92억 4574만달러로 25.8%(18억 9363만달러) 급증했다. 이 기간 국민연금은 엔비디아 보유주식수를 4654만주에서 4955만주로 6.5% 늘렸다.

애플의 주식 평가액도 59억 1177만달러에서 75억 6937만달러로 28.0%(16억 5761만달러) 증가했고, 보유주식수도 3.2%가량 늘었다.

구글 모회사인 알파벳과 테슬라 주식 평가액은 각각 42.3%와 44.2%씩 뛰었다. 국민연금이 보유한 주식수는 3.1%와 3.0%씩 증가했지만, 가파른 주가 상승의 영향이 컸다.

이 외에도 브로드컴과 마이크로소프트(MS), 인텔, 램리서치 등도 국민연금 보유주식 수가 1.5~4.6% 증가한 가운데



국민연금공단.

평가액이 최소 8.9%에서 최대 52.1%까지 불어났다.

반대로 주가가 떨어지며 평가액이 감소한 종목도 있다. 아메리칸익스프레스(-99.9%)와 도미노피자(-42.5%) 등이다. 다만 일부 종목을 제외한 대부분 종목에서 보유주식수를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일례로 국민연금의 넷플릭스 보유주식 수는 3분기 동안 3.1% 증가했는데, 평가액은 오히려 12억 452만달러에서 11억 1184만달러로 7.7% 줄었다. 주가 하락을 자가매수 기회로 삼았던 것으로 해석된다.

세일즈포스, 코스트코, 치폴레멕스칸그릴, 월트디즈니, 코카콜라, 스타벅스, 압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 등 3분기 약세를 보였던 다른 종목들에서도 국민연금은 1.3~2.7%씩 보유주식 수를 늘렸다.

3분기 들어 새롭게 투자한 기업에는 미국 주요 항공사와 전기차 제조업체, 보수 성향 언론매체 등이 포함됐다. 6월 말 기준 ‘0’이었던 델타항공과 유나이티드에어라인홀딩스 보유주식 수는 9월 말 현재 2만 1170주와 6652주로 늘었다. 미국 전기차 제조사 리비안(1만 4206주), 라스베이거스샌즈그룹(2만 3464주) 등도 다시 보유종목으로 담았다.

미국 보수성향 유력매체 월스트리트저널(WSJ)의 모회사인 뉴스코프, 폭스 뉴스의 모회사인 폭스코프 주식도 보통주와 우선주를 합쳐 각각 8648주와 1만 7134주를 신규 보유했다.

/신하은 기자 godhe@

## 금감원·경찰, 캄보디아 거점 리딩방 조직 54명 검거

해외 유명 금융사 사칭  
가짜 투자앱 피해 190억

금융감독원이 서울경찰청과 공조해 캄보디아에 거점을 두고 온라인 리딩방 사기에 가담한 조직원 54명을 검거해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금감원이 경찰청과 공조해 대규모 해외 리딩방 사기 조직을 적발한 것은 처음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5월 캄보디아를 거점으로 중국인과 한국인 등 조직원 500여명이 상주하며 해외 유명 금융회사를 사칭한 온라인 리딩방 사기 범행을

준비한다는 내부 조직원의 제보를 접수했다.

중국어인 총책이 범행 시나리오를 작성하면 한국 조직원이 한국어로 번역·수정하는 번역조, 피해자를 유인하는 상담조, 대표통장·조직원 모집책 등으로 역할을 나눠 활동했다. 이들은 영국의 유명 금융회사를 사칭하며 피해자를 온라인 리딩방으로 유인하고, 나이·투자 성향·보유주식과 투자 금액 등 상세 정보를 장부에 체계적으로 관리해왔다. 피해자들에게 안부 인사나 지속적인 시황 정보 등을 제공한 뒤 가짜 투자 애플리케이션 설치를 유도해 투자금 등 명목으로

금전을 편취하는 방식이다.

금감원은 범죄에 사용되는 텔레그램 계정을 확보해 대화방을 모니터링하면서 증거자료를 수집했다.

서울경찰청은 이를 토대로 다수의 사기 범행에 가담한 조직원 54명(구속 18명, 불구속 36명)을 검거해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피해액은 약 190억원에 달한다.

이들은 해외 유명 금융회사와 거래소 등을 사칭해가며 반복적으로 온라인 리딩방 사기 범행을 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허정윤 기자



# 코로나 이후 국제결혼 수요 회복 다문화 혼인건수 5년만에 최다

데이터처, 2024 다문화 인구동태

작년 혼인건수 2만1450건 5%↑  
외국인 아내 혼인비중 71% 기록  
외국인 남편 18%, 귀화자 11%

다문화 혼인 건수가 코로나19 이전 수준까지 회복하면서 5년 만에 최다를 기록했다. 이들 부부 중 4분의 1가량은 여자 쪽이 연상이거나 동갑내기인 것으로 조사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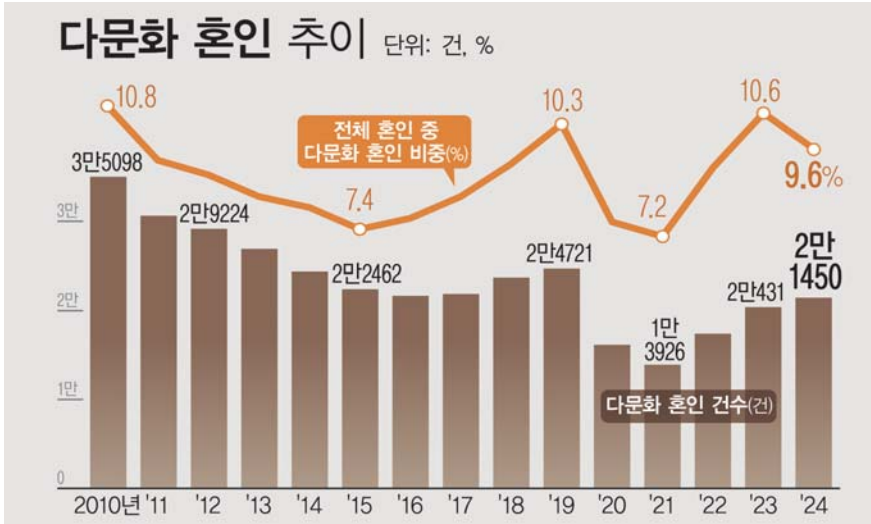
국가데이터처가 6일 발표한 ‘2024년 다문화 인구동태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다문화 혼인 건수는 2만1450건으로 집계됐다. 전년(2만431건) 대비 1019건(5.0%) 늘었다.

이는 코로나19 직전인 2019년(2만4721건) 이후 5년 사이 가장 많다. 다문화 혼인 건수는 2016년부터 꾸준히 증가세를 보여 왔으나, 코로나19 발생을 기점으로 2020년(1만6200건)과 2021년(1만3900건) 등 2년 연속 감소세를 나타낸 바 있다.

이후 팬데믹이 엔데믹화하며 2022년에 반등했고 지난해까지 3년 연속 증가세를 기록 중이다. 2023년 이후 2년 연속 2만 건대를 이어가고 있다.

데이터처 관계자는 “코로나 기간 동안 억눌렸던 국제결혼 수요가 회복되고, 외국인 노동자의 국내 체류가 안정된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만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혼인 증가율(14.8%)이 다문화 혼인 증가율(5.0%)을 크게 상회하면서, 다문화 혼



/자료=국가데이터처

/뉴시스 그래픽

인 비중은 전년(10.6%) 대비 1.0%포인트(p) 줄어든 9.6%를 기록했다.

유형별 혼인을 보면 외국인 아내와의 혼인 비중이 71.2%로 가장 많았고, 외국인 남편(18.2%), 귀화자(10.6%)가 그 뒤를 이었다.

연령차별 비중은 남편이 연상인 부부가 76.2%로 가장 컸다. 나머지 23.8%는 아내가 연상(17.9%)이거나 부부가 동갑(5.9%)이었다. 남편이 10세 이상 연상인 부부는 37.3%로 전년대비 0.7%p 감소했다.

다문화 혼인 중 초혼 남편의 평균연령은 37.1세로 전년 대비 0.1세 낮아졌고, 아내의 평균 초혼연령은 29.7세로 0.2세 많아졌다.

출신 국적별 혼인을 보면 다문화 혼인을 한 외국인 또는 귀화자 남편의 출신 국적은 미국이 7.0%로 가장 많았다. 이어 중국(6.0%), 베트남(3.6%) 순

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또는 귀화자 아내의 출신 국적은 베트남(26.8%), 중국(15.9%), 태국(10.0%) 순으로 많았다.

지난해 다문화 이혼은 7992건으로 전년(8158건)보다 166건(-2.0%) 감소했다. 전체 이혼에서 다문화 이혼이 차지하는 비중은 8.8%로 전년과 비슷했다.

다문화 출생아 수도 지난해 1만3416명으로 전년(1만2150명)보다 1266명(10.4%) 증가했다.

출생아 수는 지난 2013년 마이너스로 전환된 이후 11년 간 감소세를 이어왔는데, 지난해 깜짝 ‘플러스’로 돌아서며 12년 만에 증가로 전환했다. 증가 폭(1266명) 역시 2011년 1702명을 기록한 이후 13년 만에 가장 큰 폭이다. 증가율로 보면 10.4%로, 지난 2009년(41.5%)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metroseoul.co.kr

## 농진청, 굴 부산물 친환경 농업자재 탈바꿈

농가소득 증대·환경개선 효과

그간 버려지던 굴 부산물이 악취저감제 등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제주 지역 등에서 즙을 짠 뒤 폐기 처분하던 굴 폐기물이 친환경 농업 자재로 탈바꿈하는 것이다. 농촌진흥청은 농가소득 증대와 환경개선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농진청은 감굴 부산물을 재활용할 수 있는 감굴 부산물 자원 순환 기술을 개발했다고 6일 밝혔다. 부산물이 ▲악취저감제 ▲해충유인제 ▲토양개량제 등으로 쓰이게 된다.

한 해 국내 전체 감굴 생산량의 10% 정도(지난해 기준 4만 톤)의 부산물이 발생하는데, 대부분 폐기하거나 축산 농가용 사료로 단순 활용돼 왔다.

이에 연구진은 감굴 부산물 활용 다각화를 목표로 부산물의 약 30%를 차지하는 침출수(탈리액)는 악취 저감제와 해충 유인제로, 나머지 70%를 차지하는 고체 상태의 껍질과 펄프(과육)는 토양 개량제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

악취저감 미생물제는 감굴 부산물 침출수(탈리액)를 살균, 중화한 뒤, 유산균, 고초균, 효모 등 유용 미생물을 배양해 제조한다. 이렇게 개발한 악취저감제를 양돈 분뇨 저장조 2곳에 투입한 결과 주요 악취 성분인 암모니아와 황화수소가 각각 91%, 99% 감소함을

확인했다.

이는 기존 유용 미생물 처리 때와 비슷한 수준이나 감굴 부산물을 활용하면 많은 양의 침출수(탈리액)에 미생물을 배양, 악취 저감제를 대량으로 투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친환경 해충유인제는 감굴즙을 짜는 과정에서 나오는 리모넨 성분을 이용해 만든다. 리모넨과 페로몬을 조합해 만든 이 유인제는 고구마, 인삼, 배의 잎과 뿌리에 피해를 주는 큰검정풍뎀이 암컷 유인에 뛰어난 효과를 보였다. 기존 페로몬 한 가지만 처리할 때보다 큰검정풍뎀이 유인·포획률은 약 45%(32.5→47.2마리) 향상됐다. 농가 2곳에서 실증한 결과 고구마 피해율은 52%에서 15%로 37%포인트(p) 감소했다.

토양개량 자재는 고체 형태인 껍질과 펄프를 원료로 만들었다. 땅심을 기르는 이 자재는 질소·탄소 비율과 인·칼륨 등 영양분 함량, 배합 물질을 조절해 작물 맞춤형으로 만들 수 있다. 특히 흙에 섞어주면 기존 토양 자재(펄라이트, 바크 등)보다 물을 머금는 능력(보수성)이 50% 이상 향상돼 식물의 수분 스트레스를 약 90% 줄일 수 있다.

김대현 농진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장 직무대리는 “감굴 부산물을 활용한 자원순환 기술은 폐기 비용 절감뿐 아니라 다각적 효과를 통해 농가소득 향상과 농업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 aT, 온라인 판매농가 지원·홍보 나서

과천시 ‘농부가바로팜 팝업장터’ 운영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지난 4~5일 이틀간 경기 과천 바로마켓에서 ‘농부가바로팜 팝업장터’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6일 aT에 따르면 이 팝업장터는 온라인에서 활동 중인 농가와 꾸러미 판매 농가를 직접 소개하고 홍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에는 3대째 포도를 재배하는 청년농가, 제주에서 유기농 감귤을 재배하는 농가, 천안의 60년 전통 배 농가 등 다양한 스토리를 가진 생산자들이 참가했다. 이들은 온라인에서 쌓은 신뢰를 오프라인 현장으로 확장하며 활

기찬 시너지를 만들어 냈다.

aT는 이 같은 행사를 통해 온라인 농가에게는 소비자와 직접 만날 기회를 제공하고, 기존 바로마켓 장터에는 신규 농가 입점으로 활력을 더하겠다는 방침이다.

한 참여 농가는 “그동안 온라인으로만 판매하다가 소비자들과 직접 만나 소통하니 반응을 더 생생하게 느낄 수 있어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aT의 기운도 유통이사는 “앞으로도 온·오프라인 채널을 연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직거래를 활성화하고,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가 신뢰하고 이익이 되는 유통 구조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 재생에너지 시설 ‘데이터 통합관리’ 가동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통합모니터링 시스템’ 기능 고도화  
부서 간 데이터 공유·분석체계 강화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데이터기반 행정 추진 계획’을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6일 공사에 따르면 이를 통해 재생에너지시설 운영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통합모니터링 시스템’의 기능을 고도화하는 동시에 부서 간 데이터 공유 및 분석체계 강화를 도모한다.

공사는 지난 2023년 12월 바이오가스 생산 시설, 매립가스 발전시설 등 공사가 운영 중인 재생에너지 시설을 통합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 중이다.

이번 계획은 기존의 모니터링 중심 시스템을, 전사적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과학적 의사결정이 가능한 통합관리체계로 확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 중이다. 특히 별도 예산없이 내부자원을 활용하여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고도화할 계획이다.

재생에너지 생산량과 설비 운전이력 등 주요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분석하게 된다. 또 부서 간 동일한 기준의 데이터를 공유해 업무 효율성과 데이



인천 서구에 조성된 자원에너지화 시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터 정확성을 동시에 확보할 예정이다.

이번 개선으로 시설 간 정보의 단절을 해소하고, 현장 근무자와 중앙시스템 간의 업무 연계가 한층 원활해질 전망이다. 특히 기존에는 각 부서별로 중복하여 작성되던 자료가 하나의 통합 시스템으로 관리되어, 이중업무가 줄고 행정 효율성이 대폭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수집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분석 결과가 의사결정에 직접 반영되면서, 시설 운영의 신속성과 상황 대응

력도 강화될 전망이다.

송병억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사장은 “이번 통합모니터링시스템 고도화는 단순한 기술 개선이 아니라, 공사의 모든 재생에너지 시설이 데이터를 중심으로 협업하는 새로운 행정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이어 “데이터의 투명한 공유와 정밀한 분석을 통해 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자원순환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 2035년 국가 온실가스배출 60% 감축 목표

기후부, 2030년 목표보다 대폭 상향

정부가 오는 2035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2018년 대비 50%~60% 감축하는 방안을 내놨다.

이는 2030년 감축 목표인 40%보다 대폭 상향된 수치로, 특히 발전(전환) 부문에는 최대 75.3%라는 고강도 감축의무가 부여될 전망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6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정부안에 대한 공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최종안을 공개했다.

이번 공청회는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NDC 수립 시 거쳐야 하는 공식 의견 수렴 절차다.

정부는 앞서 올해 9월 19일부터 지난 달 2일까지 총괄, 전력, 수송, 산업, 건물, 농축수산·흡수원 순환경제 등 6개 분야에 걸쳐 대국민 공개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공개된 최종안은 기존의 목표 수치를 미리 정해두고 의견을 듣던 방식에서 벗어나, 산업계·시민사회 등에서 제안한 복수의 감축 목표 수준을 두고 분야별로 폭넓은 의견을 반영한 결과물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세종=김연세 기자



**G** 그랜드침대

그랜드침대 매트리스  
**편안함이  
다르다!**



“작은 디테일까지 고려한 설계로, 깊은 숙면을 선사합니다”

**G** 그랜드침대

편안함의 전통, 그랜드침대의 품격으로 완성됩니다.  
[www.grandbed.com](http://www.grandbed.com) / Tel. 031-945-2233





# 고1 학생 75% “고교학점제 불만족”

종로학원, 고1 학생 470명 대상  
고교학점제 온라인 설문조사

76.6% “진로 탐색 도움 안 돼”  
입시 유불리 중심… 불만도 ↑

올해 첫 학기 고교학점제를 경험한 고1 학생 10명 중 7명이 제도에 부정적인 평가를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진로·적성 탐색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응답이 76.6%에 달해 제도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종로학원은 지난 달 21일부터 23일까지 전국 고1 학생 47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고교학점제 관련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를 6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고교학점제 1학기 경험에 대해 ‘안 좋다’(40.4%)와 ‘매우 안 좋다’(35.1%) 등 부정 평가가 75.5%에 달했으며, ‘좋다’(3.2%)와 ‘매우 좋다’(1.1%) 등 긍정 평가는 4.3%에 불과했다.

과목 선택권에 대해서도 ‘충분히 주어지지 않았다’는 응답이 67.0%로, ‘그렇다’(13.8%)보다 압도적으로 높았다. ‘고교학점제가 진로·적성 탐색 및 결정에 도움이 되는가’라는 질문에는 76.6%가 ‘아니다’(37.2%) 또는 ‘매우 아니다’(39.4%)라고 답했다.

학교생활 측면에서도 부정적 인식이 뚜렷했다. ‘학교 적응 및 교우 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부정적이다’가 48.9%, ‘보통’이 45.7%였으며 ‘긍정적이다’는 5.3%에 그쳤다.



지난달 30일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열린 2025 대한민국 청소년 창업 경진대회에서 울산 효정고등학교 창업동아리 상생 스타트업 소속 학생이 시각장애인을 위한 AI 스마트 지팡이를 시연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뉴시스

과목 선택 시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은 ‘대입 유불리’(68.1%)가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이어 ▲진로 및 적성(27.7%) ▲친구(2.1%) ▲선생님 조언(1.1%) 순이었다. 학생 절반 이상(56.4%)이 고교학점제 관련 상담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으나, 상담처는 ‘학원 또는 컨설팅 업체’(60.4%)가 ‘학교 선생님’(26.4%)보다 두 배 이상 많았다.

향후 제도 방향에 대해서는 ‘폐지’(72.3%) 의견이 가장 많았고 ▲축소(13.8%) ▲현행 유지(6.4%) ▲확대(5.3%) 순이었다. 또 77.7%는 “대학 또는 고교 현장에서 고교학점제 관련 충분한 정보나 교육이 제공되지 않는다”고 답해 현장의 혼란을 반영했다.

학점제 이후 학교 내신 불리함을 느낀 학생의 경우, 향후 대입 전략을 ‘수능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는 응답이 56.4%로 가장 많았으며, ‘여전히 내신 중심’(26.6%), ‘고교학점제 집중’(13.8%)이 뒤를 이었다. 내신 불리함을 고교학점제로 만회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83.0%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종로학원은 “현재 고1 학생들의 내신 상위권은 학점제 일반·진로선택 과목에 집중되는 반면, 내신이 불리한 학생들은 수능 등 다른 전략에 치중하는 양극화 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이사는 “학점제가 취지와 달리 진로 탐색보다 입시 유불리 중심으로 작동하면서 학생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며 “향후 제도의 방향을 전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 글로벌 스타트업 축제서 2000억 투자유치

‘트라이 에브리싱’ 역대최고 실적

‘창업하기 좋은 도시’로 세계 8위에 오른 서울이 글로벌 스타트업 축제에서 다시 한번 경쟁력을 입증했다.

서울시는 지난 9월 11일부터 12일까지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트라이 에브리싱 2025(Try Everything 2025)’에서 방문객 8578명, 총 2000억원 규모의 투자유치 등 역대 최고 실적을 거뒀다고 6일 밝혔다.

서울은 지난 6월 글로벌 창업평가기관 스타트업 지놈(Startup Genome)이 발표한 ‘2025 글로벌 창업생태계 보고서’에서 세계 8위, 아시아 2위로 선정돼 2년 연속 글로벌 톱10에 진입했다. 자금 조달 분야 세계 5위, 지식축적 분야 세계 1위를 기록했다.

올해 7회째를 맞은 트라이 에브리싱에는 875개 스타트업(해외 87개)과 337개 투자기관(해외 35개)이 참여해 지난 해보다 각각 1.8배, 1.4배 증가했다. 전시 부스 120개 중 71개가 스타트업(Meet-up, 밋업) 부스로 운영됐으며, AI·바이오·우주항공 등 첨단 산업 중심으로 구성됐다.

시는 밋업 부스를 15개에서 41개로 확대해 총 541건의 투자 미팅을 진행했다. ‘밋업’ 현장에서 1771억원(국내 638억원, 해외 1133억원) 규모의 투자 검토



서울시가 지난 9월 11일부터 12일까지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트라이 에브리싱 2025(Try Everything 2025)’를 통해 8578명의 방문객, 총 2000억원 규모의 투자유치액 등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했다. 사진은 행사장 전경. /서울시

가 이뤄졌고, 연말까지 2000억원 이상 투자유치가 예상된다. 해외자본 비중은 64%로 서울의 글로벌 투자 중심지로서 위상을 강화했다.

또한 글로벌 VC와 대기업 참여도 확대됐다. 9개국 12개 해외기관이 참여했고, 삼성물산·KT·한국마이크로소프트·신한금융그룹 등 국내 대기업 4곳이 13개 스타트업과 기술협력·개념검증(PoC)을 진행했다. 이는 전년 대비 4배 증가한 규모다.

서울시는 2020년 이후 총 1038개 스타트업과 202개 대·중견기업 간 오픈이노베이션 협력, 3810건의 투자유치 사례를 만들었으며, 트라이 에브리싱을 핵심 플랫폼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현진 기자

## 전국 첫 ‘난산증 학생 지원 전문교사’ 양성

서울시교육청-서울대 ‘맞손’  
초·중학교 교사 20명 참여  
실제 난산증 학생 중재 병행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이 서울 대학교와 협력해 전국 최초로 ‘난산증 학생 지원 전문교사 양성과정’을 개설한다.

6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수학 학습에 지속적인 어려움을 겪는 난산증 학생을 조기에 진단하고 맞춤형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전문 교원을 양성하기 위한 것으로, 2025년 11월부터 2026년 7월까지 약 9개월 동안 서울대에서 운영된다.

‘난산증’은 정상적인 지능과 충분한 학습 기회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 감각과 수 개념 형성, 기초 연산 기억, 연산 절차 이해, 수학적 추론 등에서 지

속적인 어려움을 보이는 상태를 말한다. 난산증 학생 지원 전문교사는 이러한 학생을 전문적으로 지도하고 중재하는 교사를 의미한다.

서울시교육청은 2022년부터 난산증 고위험군 학생 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하며, 조기 진단과 맞춤형 지원을 위한 중재 모델을 연구해왔다. 시범 운영 결과, 난산증 학생에게는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중재가 필수적이며, 이를 담당할 전문교원 양성이 핵심 과제임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이번 양성과정에는 소속 학교에 난산증 의심 학생이 있는 초·중학교 교사 20명이 참여한다. 교육 내용은 ▲난산증 학생의 특성 이해 ▲진단 및 학생별 맞춤 전략 수립 등 이론 교육을 기반으로, 실제 학생 중재 활동을 병행하는 실천 중심의 연수로 구성된다. 특히 서울대학교 석사과정 학점으로 인

정받는 ‘마이크로디그리형’ 과정으로 운영돼 교사의 전문성 향상과 학문적 성취를 동시에 지원한다.

이번 사업은 ▲난산증 학생 조기 진단 및 맞춤형 지원 체계 구축 ▲현장 교사의 전문성 강화 ▲마이크로디그리 기반의 지속가능한 교원 연수 모델 개발 등을 목표로 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를 통해 난산증으로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 증거 기반의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고, 공교육의 책무성과 기초학력 보장 기능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또한 학생 대상 지원뿐 아니라 학부모 연수와 상담도 병행해 가정·학교·교육청이 함께하는 협력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난산증 학생의 학습 환경을 학교 안팎에서 지속적으로 관리·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현진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6일 오전 서울 성북구 장위건강누림센터를 방문해 장위13 재정비촉진지구 추진 현황 브리핑을 듣고 있다. /뉴시스

## ‘장위13구역’ 10년 만에 정비 재추진

사업 재정비 시 총 3.3만호 공급 전망  
오세훈 시장 “잃어버린 10년 찾을 것”

서울시가 뉴타운 출구전략 상향이 상존하고 있는 ‘장위13구역’에 신속통합 기획 2.0, 재정비촉진사업 규제혁신 방안 등을 종합 적용해 10년 만에 사업 재추진에 들어간다. 재정비가 마지막으로 결정된 장위13구역(약 6000호)까지 사업에 들어가면 장위 재촉진지구에서는 총 3만3000호가 공급될 전망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6일 장위13구역에서 열린 주민간담회에서 “사업성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모든 방안과 규제혁신을 동원해 잃어버린 10년을 되찾아 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장위13구역은 현재 ‘장위13-1/2구역’으로 분리돼 재정비사업이 진행 중이다.

올해 4월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장위13-1/2구역’은 장위 재정비촉진지구에서 해제됐던 6개 구역(총 92만㎡) 중 가장 늦게 재추진이 결정됐지만 서울시는 늦은 만큼 다각적인 지원으로 더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뉴타운 출구전략으로 구역이 해

제된 이후 신축 건축물·조합원 수 증가 등으로 악화된 사업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장위13-1/2구역’은 ▲기준용적률 최대 30% 완화 ▲법상한용적률 최대 1.2배까지 적용 ▲사업성보정계수 적용 등 시가 올해 7월 내놓은 ‘재정비촉진사업 규제혁신 방안’을 비롯해 신속통합 기획 2.0이 시작부터 종합 적용되는 대표적인 현상이 된다.

특히 재정비 사업에서는 시간이 곧 사업성인 만큼 사업 기간을 18.5년에서 12년으로 줄여주는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되면 장위 재정비촉진지구의 전반적인 완성 시기를 앞당기는 효과도 기대된다.

이번 ‘장위13-1/2구역’ 사업성 및 사업 속도 개선을 통해 장위 재정비촉진지구 마지막 퍼즐이 맞춰지면 서울 시내 뉴타운 최대 규모인 총 3만3000호(해제 후 재추진 구역 포함)가 공급될 것으로 기대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뉴타운, 도시재생 등이 반복되며 오랜 기간 정비사업을 기다려 온 장위13주민에게 이제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으로 서울시가 응답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 서울 사립초등학교 38곳, 신입생 원서접수

‘사립초 입학포털’ 통해 진행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이 2026학년도 서울시내 38개 사립초등학교 신입생 모집을 위한 원서접수를 7일부터 12일까지 ‘사립초 입학포털’을 통해 진행한다. 한 학생이 최대 3개 학교

까지 지원할 수 있다.

6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엔 처음 도입되는 ‘사립초 입학포털’은 서울 사립초연합회가 개발·운영하는 통합 플랫폼으로, 원서 접수부터 추천·등록까지 전 과정을 온라인으로 처리해 입학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원서접수는 7일 오전 9시부터 12일 오후 4시 30분까지 24시간 진행되며, 지원자는 최대 3개 학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입학 추천은 오는 17일 오전 11시 서울시교육청에서 전산 방식으로 진행된다. 추천은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공개하며, 결과는 문자메시지로 개별 통보되고 각 학교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현진 기자



# 유통-금융 ‘동맹’ 얼굴인식 결제로 네이버·쿠팡페이 대응

SSG닷컴-KB국민은행  
연내 ‘SSG)KB은행’ 서비스

현대백-KB금융·하나은행  
제휴계좌 ‘H포인트’ 추가적립

NH농협은행-컬리  
‘NH퍼플통장’ 결제시 금리 우대



토스 페이스페이를 통해 얼굴만으로 결제할 수 있는 모습. /토스

유통업체가 금융권과 연이어 손잡으며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단순 제휴카드 출시를 넘어 협력의 깊이를 더하며 고객을 자사 생태계에 묶고, 결제 편의성을 높이는 등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풀이된다.

최근 유통 플랫폼 안에선 은행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뱅크 인 플랫폼’이 떠오른다. 신세계그룹 SSG닷컴은 KB국민은행과 손잡고 연내 ‘쓱(SSG)KB은행’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이다. 고객이 SSG닷컴 앱 내에서 파킹통장, 적금 등 은행 서비스를 직접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방식이다.

현대백화점은 KB금융, 하나은행과 손잡았다. KB금융과는 제휴 계좌를 출시해 현대백화점 앱에 등록 후 결제하

면 ‘H포인트’를 추가 적립하고, 파킹통장 우대 금리를 적용한다. 하나은행과도 ‘더현대하나더 적금’ 등 금리 우대 상품을 선보였다.

NH농협은행은 컬리와 ‘NH퍼플통장’을 선보이며 결제 시 금리 우대 혜택을 제공한다. 당근과는 안전한 부동산 거래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고 자금보호 기능이 강화된 가상계좌 정산 서비스를 공동으로 내세운다. 최근 당근을 활용해 부동산 거래를 하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안전시스템을 강화할 필요성이 생겼기 때문이다.

오프라인매장에서도 결제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금융권과 협업하는 추세다. 롯데백화점은 업계 최초로 ‘라인페이 대만’ 간편결제 서비스를 도입해 다만 관광객이 환전이나 별도 카드 없이 결제할 수 있도록 장벽을 허물었다.

신세계면세점과 현대면세점은 모바일 금융 플랫폼 토스와 손잡고 페이스페이(얼굴 인식 결제)를 도입한다. 지갑이나 휴대폰 없이 단 몇 초 만에 결제가 완료되는 경험을 제공해 고객 편의를 극대화한다는 전략이다.

단순 결제를 넘어 양사 핵심 자산인 데이터와 VIP 고객을 교환하는 단계로 나아가고 있다. 현대백화점과 KB금융은 현대백화점 VIP에게 KB의 맞춤형 자산관리 세미나를 제공하고, KB 최상위 고객에게는 현대백화점의 1대1 쇼핑 동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공동 마케팅을 펼친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움직임이 네이버, 쿠팡 등 자체 금융 생태계를 갖춘 ‘빅테크’와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필수 전략이라고 분석한다.

정연승 단국대 경영학부 교수는 “네이버가 플랫폼에서 커머스, 콘텐츠, 결

제를 모두 동시에 이루는 것처럼 다른 플랫폼도 경쟁하기 위해 제휴를 통한 대응 요구가 있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정 교수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 만족을 증가시키고, 금융·결제 서비스를 통해 유통 고객들의 멤버십을 강화시키는 락인의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나아가 금융권이 주목하는 ‘스테이블 코인’의 상용화를 염두에 둔 선제적 포석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유통업체가 스테이블코인이 통용될 핵심 사용처이기 때문이다. 정 교수는 “궁극적으로 스테이블 코인이 통화 수단으로 쓰일 수 있기 때문에, 금융권이 미리 포석을 두는 전략 중 하나로 볼 수 있다”고 진단했다. 실제로 신한은행은 롯데멤버스와 스테이블코인 기반 결제 기술 검증(PoC)에 착수할 예정이다.

업계 관계자는 “단순한 결제 편의 제공을 넘어 소비 데이터와 금융 데이터를 결합해 새로운 고객 경험을 만드는 것이 트렌드가 되고 있다”며 “앞으로 유통업체들과 금융사 간 협업도 다양한 형태로 발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종욱 기자 handbell@metroseoul.co.kr



## 하이트진로 디즈니+ 조각도시 협업 ‘테라 한정판 패키지’

하이트진로는 디즈니+의 오리지널 시리즈 ‘조각도시’와 협업한 ‘테라 한정판 패키지’를 6일 선보인다고 밝혔다. 이번 협업은 테라 모델 지창욱이 주연으로 나선 작품과의 인연으로 브랜드와 모델의 시너지를 극대화하기 위해 기획됐다.

‘테라’ ‘조각도시’ 패키지 한정판은 ▲유용용 500mL ▲가정용 453mL 8캔(사진) 등 2종으로 출시되며, 6일부터 수도권 유통채널과 대형마트에서 판매할 예정이다. 패키지에는 디즈니+의 오리지널 시리즈 ‘조각도시’ 속 주연 배우 지창욱의 강렬한 이미지를 담아 도시적이고 세련된 분위기를 시각적으로 표현했다.

‘조각도시’는 평범한 삶을 살던 태종(지창욱)이 어느 날 억울하게 흉악한 범죄에 휘말려 감옥에 가게 되고, 모든 것은 요한(도경수)에 의해 계획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그를 향한 복수를 실행하는 액션 드라마다.

하이트진로는 이번 협업을 통해 작품의 화제성과 시너지를 극대화하고, 디즈니+의 오리지널 시리즈의 팬과 MZ세대 소비자층을 동시에 공략할 계획이다.

/신원선 기자

## SSG닷컴 미쉐린 1스타 셰프의 일식 간편식 3종 출시

SSG닷컴이 미쉐린 1스타 셰프 니시무라 타카히토의 레시피를 기반으로 개발한 프리미엄 일식 간편식 3종을 단독 출시한다고 6일 밝혔다.

니시무라 셰프는 아시아 최초로 미쉐린 퓨전 부문 1스타를 받았으며, 현재는 서울 연남동에서 ‘니시무라멘’을 운영 중이다.

쓱닷컴에서 선보이는 제품은 토리파 이탄 라멘, 직화 부타 우동, 더블 치즈 감자 고로케 3종이다. 토리파이탄 라멘은 닭 육수에 바지락 액기스와 청양고추를 넣어 개운하면서도 진한 감칠맛이 돋보이는 제품이다. 직화 부타 우동은 가쓰오부시 육수에 직화로 구운 돼지고기를 더했으며, 더블 치즈 감자 고로케는 얇고 바삭한 겉면에 모짜렐라·체다 치즈를 넣은 것이 특징이다.

SSG닷컴 이난영 상품개발 파트장은 “소비자의 다양한 입맛을 충족하기 위해 유명 셰프와 협업한 상품 구색을 늘리고 있다”며 “일본에 가지 않고도 정통 라멘을 집에서 간편하게 즐길 수 있다”고 말했다.

/손종욱 기자

# 롯데칠성음료, 제로음료 확대·수출 호조… 영업이익 16.6%↑

3분기 연결기준 매출액 1조792억  
영업익 전년비 131억 늘어 918억  
음료부문 영업익 551억, 4.3%↑

롯데칠성음료가 내수 부진과 원가 부담 속에서도 수익성을 개선하며 ‘건조한 체질 개선’을 이어갔다. 제로음료 확대와 글로벌 K-음료 수출 호조가 실적을 끌어올렸고, 주류 부문도 효율적 비용 집행을 통해 수익성이 눈에 띄게 개선됐다.

6일 롯데칠성음료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연결기준 매출액은 1조792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141억 원)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918억 원으로 16.6%(+131억 원) 늘었다.

음료 부문(별도 기준) 매출은 5384억 원으로 전년 대비 0.1% 감소했지만, 영업이익은 551억 원으로 4.3% 증가했다. 내수 소비 침체와 원재료비·환율 부



새로 3종.

담이 이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제로음료’와 ‘에너지음료’의 판매 호조가 실적을 방어했다.

탄산음료 카테고리에는 헬시플레이저(Healthy Pleasure) 트렌드에 부합한 ‘칠성사이다 제로’ 중심의 ‘젤로 맛있는 제로’ 마케팅을 전개하며 전년 대비 0.3% 성장했다. 에너지음료는 ‘핫식스 더킹 아이스피치 제로’ 등 신제품 효과로 매출이 23.5% 급증했다.

수출 부문은 ‘밀키스’, ‘레쓰비’, ‘알로에주스’ 등 K-음료 대표 제품들이 미국·러시아·유럽·동남아 등 50여 개국에서 판매 호조를 보이며 매출이 전년 대비 7.5% 증가했다.

롯데칠성음료는 제로음료 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 ‘웹시 제로슈거 모히토 향’, ‘칠성사이다 제로 오렌지’ 등을 연이어 출시했으며, 단백질 기능성 음료 ‘핫식스더프로’, ‘오트몬도 프로틴’으로 건강지향 포트폴리오를 확장하고 있다.

주류 부문(별도 기준)은 매출 1933억 원으로 전년 대비 5.3% 감소했지만, 영업이익은 139억 원으로 42.7% 증가했다. 경기 침체와 고물가로 소비 심리가 위축된 가운데, 광고·판촉비 효율화를 통해 수익성을 높였다.

소주 매출은 리뉴얼 제품 ‘처음처럼’과 제로슈거 소주 ‘새로’의 판매 호조, 가정용 펌트 제품 확대 등에 힘입어 전

년 대비 2.3% 증가했다. 수출도 ‘순하리’와 오리지널 소주류가 미국·유럽·동남아 등에서 인기를 이어가며 3.6% 성장했다.

롯데칠성은 올해 상반기 논알콜 맥주 ‘클라우드 논알콜릭’, ‘새로 다래’ 등을 선보였으며, 증류식 소주 ‘여울’과 과일탄산주 ‘레몬진’ 리뉴얼을 통해 다양한 소비자 취향을 공략하고 있다.

글로벌 부문 매출은 3842억 원으로 전년 대비 9.5%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207억 원으로 44.8% 급증했다.

특히 필리핀 법인(PCPPI)은 경영 효율화 프로젝트와 공장 통합으로 매출 2478억 원, 영업이익 46억 원을 기록하며 전년 -1억 원 적자에서 흑자 전환했다. 미얀마 법인은 ‘웹시’와 ‘스팅’ 중심으로 매출이 47.3% 급증했고, 파키스탄 법인은 설당 가격 상승 영향에도 7.8% 성장세를 보였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 GS리테일 ‘편의점 호조’ 3분기 역대급 실적

영업익 1111억 전년비 31.6% 증가

GS리테일이 편의점 중심의 사업 호조에 힘입어 3분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GS리테일은 올해 3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1111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1.6% 증가했다고 6일 공시했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3조2054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5.3% 증가했으며, 당기순이익은 903억 원을 기록하며 흑자 전환했다.

올해 3분기까지 누적 기준으로는 매출 8조9315억원, 영업이익 2388억원,

누적 순이익 1093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3.2%, 6.4%, 176.3% 증가한 수치다.

이번 실적은 핵심 사업인 편의점 부문이 견인했다. 편의점(GS25)의 3분기 영업이익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7% 상승한 851억원을 기록했다. 매출은 6.1% 증가한 2조4485억원이다. GS리테일은 수의 중심의 우량점 출점 전략이 성과를 냈으며, 해자로운 간편식 시리즈, 얼박사, 케데헌 협업 상품 등 차별화 상품의 성공이 분기 호실적의 직접적인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손종욱 기자

## CJ제일제당 “단백하니로 맛·건 챙겨요”

‘단백하니 단백질쉐이크’ 3종 출시  
파우치 형태… CJ올리브영 판매

CJ제일제당이 CJ올리브영과 함께 단백질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단백하니’로 프로틴의 대중화에 앞장선다.

CJ제일제당은 ‘단백하니 단백질쉐이크’를 출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신제품은 시그니처·초코·말차 등 총 3종으로 올리브영에서 판매 중이다.

‘단백하니’는 소비자의 단백질 라이프스타일에 관심을 갖고 체계적인 설계를 통해 맛과 건강을 모두 챙기는 브

랜드다.

‘단백하니 단백질쉐이크’는 통곡물 파로를 넣어 고소하고 바삭한 식감을 더한 것이 특징이다. 동물성과 식물성 단백질을 최적의 비율로 조합해 한 팩당 단백질 22g을 섭취할 수 있다. 반면, 당류는 한 팩당 2g으로 낮췄다.

통곡물 6곡 분말을 담아 고소한 ‘시그니처’와 진하고 달콤한 초코우유 맛의 ‘초코’, 최근 열풍인 ‘말차’ 등 세 가지 맛을 취향에 따라 선택할 수 있으며, 파우치 형태로 언제 어디서든 간편하게 즐길 수 있다.

/신원선 기자



# ‘제철코어’ 소비 키워드 부상… 붕어빵·냉장면 등 신제품 봇물

CJ제일제당 비비고 말차 붕어빵 선택  
오투기 내달 붕어빵 4종 美 시장 출시  
풀무원 ‘가쓰오우동’ 등 냉장면 강화  
본설령탕 겨울 보양식 콘셉트 메뉴

겨울 성수기를 맞아 식품·외식업계가 ‘제철코어(Seasonal Core)’ 소비 트렌드에 발맞춰 계절 한정 제품을 잇따라 선보이고 있다.

특정 계절에만 즐길 수 있는 희소한 먹거리를 소비하는 ‘경험 중심형 소비’가 2030세대를 중심으로 확산하면서, 붕어빵부터 굴국밥·겨울면까지 계절 식품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시장조사전문기업 엠브레인 트렌드 모니터 조사에 따르면, 전국 13~69세 남녀 1200명 중 74%가 “계절별로 특색 있는 음식이나 활동을 즐긴다”고 답했다.

또한 “특정 계절에만 즐길 수 있는 것을 적극적으로 찾아 즐긴다”(52.6%), “기후 변화로 계절 경험이 더 희소해질 것 같다”(73.4%)는 응답이 이어졌다. 특히 20~30대의 제철코어 향유 비율이 각각 49.8%, 47.7%로, 트렌드를 견인하는 주 소비층으로 자리잡았다.

#### ◆ 붕어빵은 못 참지!

‘붕어빵’은 제철코어 열풍의 상징적인



비비고 말차 붕어빵.



오투기 팔 붕어빵.



잇츠온 멸치들깨 바지락 칼국수, /각 사

사례다. 생활 플랫폼 당근이 지난해 선보인 ‘붕어빵 지도’는 이용자가 직접 판매점을 등록하는 방식으로, 지역 단위 붕어빵 문화를 산업화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봉세권(붕어빵+역세권)’이란 신조어가 등장할 만큼, 겨울철 한정 간식이 전국적 현상으로 확산됐다.

CJ제일제당은 유기농 말차 브랜드 ‘슈퍼말차’와 협업한 ‘비비고 말차 붕어빵’을 선보였다. ‘비비고 붕어빵’ 시리즈는 2023년 하반기 출시 이후 현재까지 누적 판매량이 440만개를 넘어섰으며, 지난해 겨울 성수기 월 평균 판매량은 전년 대비 30% 증가했다.

편의점 GS25는 판매 매장을 5000곳으로 확대했고, 이디야커피는 팔·슈크림 붕어빵을 포함한 겨울 간식 4종이 출시 20일 만에 15만개 팔려나갔다.

글로벌 시장에서도 붕어빵은 ‘K-스트리트 푸드’ 대표 품목으로 성장 중이다. 오리온 ‘참붕어빵’은 미국 코스트코 입점 이후 수출액이 전년 대비 10배 늘었고, 오투기도 12월 말차·고구마·팔·슈크림 4종 붕어빵을 미국 시장에 출시한다.

◆ 식품·외식업계, 한정 시즌 메뉴 선택  
외식·식품업계는 겨울을 맞아 ‘한정 시즌 메뉴’로 소비자 공략에 나섰다.

프랜차이즈 본아이오프의 국당류 전문점 ‘본가네국밥(본설령탕)’은 겨울 보

양식 콘셉트로 통영굴국밥, 통영굴떡국을 선보였다. 신선한 국내산 통영 굴에 두부·계란을 더해 따뜻하면서도 깊은 맛을 강조했다.

hy는 ‘잇츠온 멸치 들깨 칼제비’와 ‘잇츠온 바지락 칼국수’를 출시했다.

멸치 육수와 들깨가루의 고소한 풍미, 바지락의 진한 국물 맛을 강조한 제품으로, “겨울엔 따뜻한 국물 한 그릇이 시즌 코어 메뉴로 자리잡는다”는 전략을 내세웠다.

풀무원은 냉장면 시장 겨울 시즌 공략을 강화했다. 스테디셀러 ‘가쓰오우동’을 리뉴얼하고, 신제품 ‘김치우동전골’을 출시했다. ‘10배 더 풍성한 건더기’와

한식 메뉴 콘셉트를 앞세워 프리미엄 국물면 시장을 겨냥한다.

편의점 세븐일레븐은 온장고용 캔 사케 ‘간바레오도상’을 출시하며 일본식 ‘아츠강’(따뜻한 사케) 문화를 도입했다.

#### ◆ 팔 인플레이션·이상기후 변수도

다만 계절 원물 중심 제품의 특성상 원재료 수급 불안은 리스크로 지적된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9월 국산 붉은팔 가격은 40kg당 78만 4200원으로 전년 대비 1.5배 이상 올랐다. 폭염·가뭄 등 이상기후 영향으로 생산량이 줄면서 ‘팔 인플레이션’이 발생한 것이다.

한 식품업계 관계자는 “현재는 제조단가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지만, 제철 원물 중심 제품이 늘어날수록 가격 변동성 관리가 중요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는 제철코어가 단기 유행이 아닌 구조적 소비 흐름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제철코어 상품은 재고 부담은 적지만, 매 시즌 완판이 기대되는 고효율 상품군”이라며 “소비자가 ‘지금만 맛볼 수 있는 것’에 가치를 두는 만큼, 브랜드 경쟁력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 K-뷰티, 예능 접목… MZ·해외 팬 사로잡는다

아모레퍼시픽 ‘저스트 메이크업’ 후원  
CJ올리브영 ‘퍼펙트 글로우’ 협력

K뷰티 기업들이 신규 수요 창출과 수출 활성화를 위해 예능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6일 국내 뷰티 업계에 따르면, 아모레퍼시픽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쿠광플레이의 화제작 ‘저스트 메이크업’ 최종 5라운드 미션 공식 후원사로 참여하고 있다.

저스트 메이크업은 K뷰티 메이크업 아티스트들이 자신만의 색깔로 치열하게 맞붙는 초대형 메이크업 서바이벌이다. 지난달 3일 첫 방송을 시작하고 이후 4주 연속으로 쿠광플레이 인기작 1위를 유지하는 등 화제를 모으고 있다.

최종 5라운드 미션에서는 진출자 3인이 아모레퍼시픽 스킨케어와 메이크업 제품들로 구성된 초대형 팬트리를 선보



퍼펙트 글로우 메인 포스터.

이며 경연을 펼칠 예정이다.

아모레퍼시픽 관계자는 “K뷰티를 대표해 전 세계에서 활약하고 있는 자사 브랜드의 우수성과 기술력이 널리 알려질 것”이라며 “세계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K뷰티 인기와 아마존 프라임에서도 방영

되고 있는 이번 예능 저스트 메이크업에 대한 관심도가 시너지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CJ올리브영은 오는 8일 tvN에서 새롭게 방영되는 글로벌 뷰티 예능 ‘퍼펙트 글로우’와 협력한다.

퍼펙트 글로우는 미국 뉴욕에 뷰티숍을 열고 현지 소비자들과 한국인들의 뷰티 노하우를 직접 공유한다는 방침이다. 퍼펙트 글로우는 tvN을 포함해 OTT 티빙,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 등에서도 방영된다.

올리브영 관계자는 “상품이나 브랜드를 노출하는 채널이 아닌 K뷰티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는 ‘장(場)’으로 예능이라는 포맷을 활용하고자 했다”며 “앞으로도 글로벌 K뷰티 리더로서 전 세계에 K뷰티를 확산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mlee236@

## 한미약품, ‘HM17321’ 임상 1상 돌입

〈신개념 비만 혁신신약〉

美 FDA, 임상시험계획 승인

한미약품이 세계 최초로 체중 감량과 근육 증가를 동시에 실현하는 ‘신개념 비만 혁신신약’의 임상 1상에 본격 돌입했다.

체중 감량 수치에만 방점을 둔 기존 GLP-1 기반 약물들은 근 손실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HM17321이 지방만 선택적으로 감량하는 새로운 기전을 통해 글로벌 비만치료제 시장의 판도를 바꿀

‘게임 체인저’로 주목된다.

한미약품은 지난 4일(현지시간)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신개념 비만치료제(HM17321)’의 임상 1상 진입을 위한 임상시험계획(IND)을 승인받았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임상 시험에서는 건강한 성인 및 비만 환자를 대상으로 HM17321의 안전성과 내약성, 약동학, 약력학 특성 등을 평가한다.

HM17321은 단순히 근손실을 보완하

는 수준을 넘어, 기존에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근육량 증가’와 ‘지방 선택적 감량’을 동시에 구현하는 ‘퍼스트 인 클래스(First-in-Class)’ 비만 혁신 신약으로 개발되고 있다.

한미약품 관계자는 “HM17321은 ‘펩타이드 기반 물질’로 설계돼 투여 편의성이 높고, 비용 측면에서 경쟁력이 있다”며 “특히 병용 치료제로 개발될 경우, 동일한 펩타이드 형태인 기존 인크레틴 계열 약물과 한 번에 투약할 수 있어 환자 편의성이 크게 향상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세경기자 seilee@

### 월드 ADC 2025

CT-P70·71 비임상 결과 포스터 공개

셀트리온은 이달 3일부터 6일까지(현지시간) 미국 샌디에이고에서 열리는 ‘월드(World) ADC 2025’에 참가해, 항체-약물접합체(ADC) 신약파이프라인의 항암 효능에 대한 확장된 비임상 연구 결과를 포스터로 처음 공개했다고 밝혔다.

공개된 비임상 연구 결과에 따르면, CT-P70은 EGFR(상피세포 성장인자 수용체) 변이 비소세포폐암(NSCLC)의 1차 치료제인 3세대 TKI(티로신 키나제 억제제) 내성 모델에서 세포 생존율(ce

l viability) 감소 및 종양 성장 억제 효과를 보였다. 또한, CT-P70은 기존에 효능이 입증됐던 비소세포폐암 외에 대장암과 위암 등 다양한 암종에서도 항암 효능을 유지했다. 이를 통해 3세대 EGFR-TKI 내성 비소세포폐암을 포함한 다양한 고형암에서 후속 임상 연구로 이어질 가능성을 확인했다.

또 다른 후보물질 CT-P71은 요로상피암, 유방암, 전립선암 모델에서, 승인을 받은 ADC 치료제 ‘파드셉(Padcev)’과 동등한 수준의 항암 효과를 보였다. 특히 파드셉 내성 및 불응(Refractory) 모델에서도 항암 활성을 유지해, 파드셉 이후(Post-Padcev) 치료 옵션으로서의 가능성을 제시했다.

/이세경 기자

## “전통·현대 공존 ‘투썸 2.0’ 매장 확대”

### 투썸플레이스 간담회

프리미엄 디저트 카페 입지 강화

프리미엄 디저트 카페 투썸플레이스가 6일 서울 종로구 ‘투썸 2.0 안국’ 매장에서 ‘2025 홀리데이 시즌 기자간담회’를 열고, 올해 겨울 시즌 브랜드 전략과 신제품 라인업을 공개했다.

이번 행사는 투썸플레이스의 2025년 브랜드 방향성과 ‘투썸 2.0’ 매장의 전략, 그리고 시그니처 케이크 ‘스초생(스트로베리 초콜릿 생크림)’을 중심으로 한 시즌 디저트·음료 라인업을 소개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간담회는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

는 안국 지역에 새롭게 선보인 ‘투썸 2.0 안국’ 매장에서 진행됐다.

‘투썸 2.0’은 커피와 케이크가 함께 완성하는 달콤한 경험을 콘셉트로,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공간·제품·서비스 전반에 재해석한 차세대 프리미엄 매장이다. 감각적인 인테리어와 직관적인 신규 로고, 브랜드 스토리를 담은 디저트 경험을 통해 ‘프리미엄 디저트 카페’로서의 입지를 강화했다. 향후 주요 거점 지역으로 ‘투썸 2.0’ 매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투썸플레이스는 이번 시즌을 통해 브랜드 시그니처인 ‘스초생(스트로베리 초콜릿 생크림)’의 상징성을 강화하고, 프리미엄 디저트 시장 내 리더십을 공고히 한다는 전략을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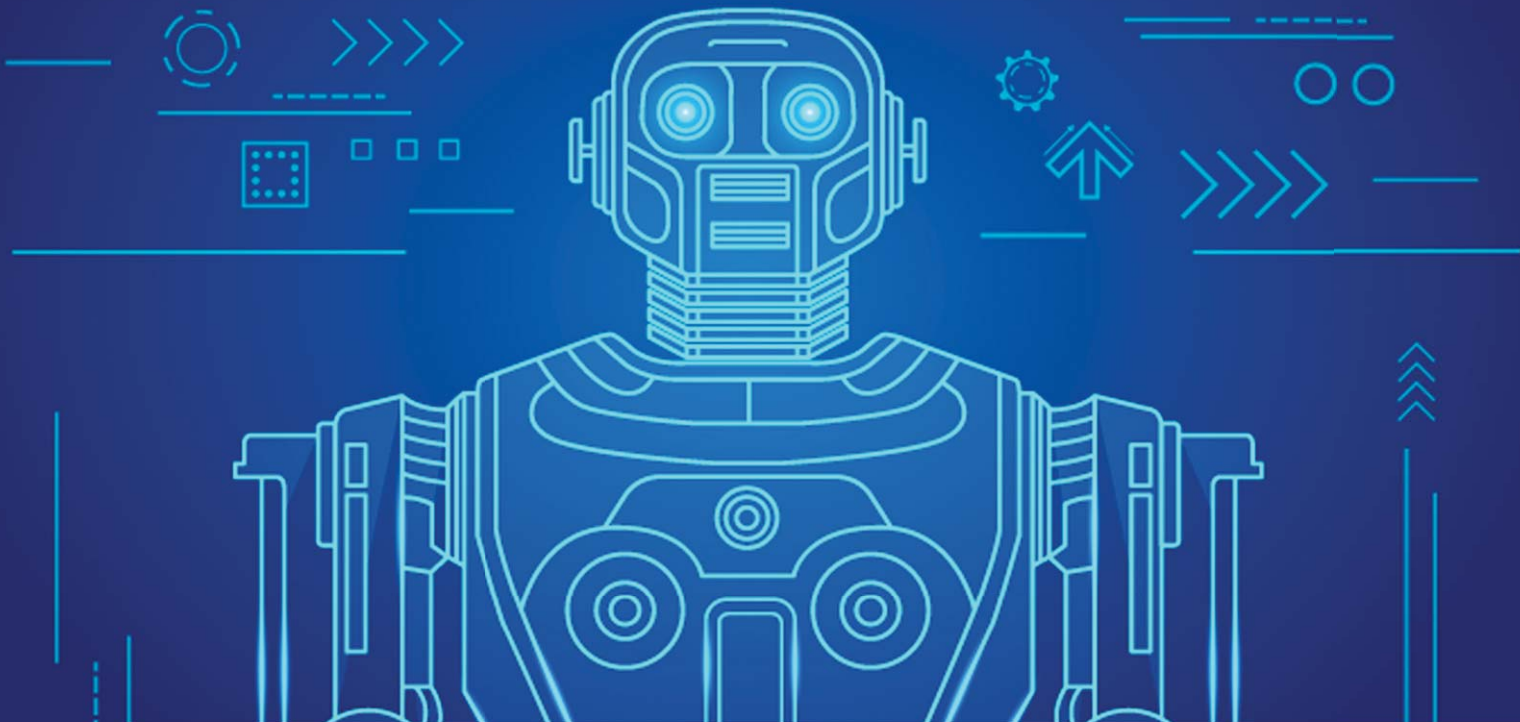
/신원선 기자



2025 뉴테크놀로지 포럼

피지컬 AI가 바꾸는 산업지형

| 일시 | 2025년 11월 19일(수) 오후2시 | 장소 | 서울 을지로 페럼타워 페럼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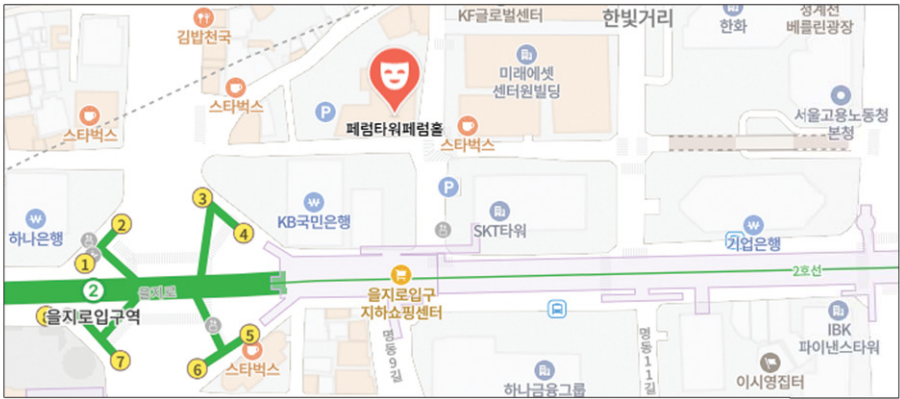


● 행사개요

행 사 명 2025 뉴테크놀로지 포럼  
주 제 피지컬 AI가 바꾸는 산업지형  
일 시 2025년 11월 19일(수) 14:00~17:00 (VIP 티타임 13:30~14:00)  
장 소 서울 을지로 페럼타워 페럼홀  
주 최 메트로경제, 메트로신문  
등 록 사전등록 참가비 무료, 현장등록 5만원  
문 의 뉴테크놀로지 포럼 사무국 02)721-9818, forum@metroseoul.co.kr  
※포럼에 참가하는 분께 소정의 사은품을 증정합니다.

● 오시는 길

페럼타워 |  
서울시 중구 을지로5길 19  
(2호선 을지로입구역 3번 출구 도보 3분)



● 프로그램

| 구 분  | 시 간         | 프 로 그 램                                                                                         |
|------|-------------|-------------------------------------------------------------------------------------------------|
| 참가등록 | 13:00~14:00 | 참가접수 및 등록 ※VIP티타임: 13:30~14:00                                                                  |
| 개막식  | 14:00~14:20 | 〈축사〉<br>조풍연 한국 SW-ICT 총연합회장(메타필드 대표)<br>유태준 마음AI 대표 겸 한국피지컬AI협회장<br><br>〈개회사〉<br>이장규 메트로경제 대표이사 |
| 기조강연 | 14:20~14:50 | 유태준 마음AI 대표 겸 한국피지컬AI협회장                                                                        |
| 강연   | 14:50~15:20 | 고태봉 iM증권 리서치본부장                                                                                 |
|      | 15:20~15:50 | 김재원 엘리스그룹 대표                                                                                    |
|      | 15:50~16:20 | 양수열 클라우드웍스 CTO                                                                                  |
|      | 16:20~16:50 | 김하늘 에임인텔리전스 이사                                                                                  |

※ 상기 일정은 사정에 의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구본준 ‘야구사랑’ 의지… ‘LX배 여자야구대회’ 막 올라

(LX그룹 회장)

내일부터 16일까지 주말마다 진행  
총 47개팀 ‘역대최대 규모’ 참가

기업이 후원하는 국내 유일의 여자야구 전국대회인 ‘LX배 한국여자야구대회’가 이번주 주말 막을 올린다.

6일 LX그룹에 따르면 ‘2025 LX배 한국여자야구대회’가 경기도 이천시 LG챔피언스파크·꿈의 구장에서 8일부터 16일까지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일정으로 열린다.

올해로 4회째를 맞는 한국여자야구 대회는 특히 구본준 LX그룹 회장의 야구사랑 의지가 적극 반영됐다. 구 회장은 매년 경기장을 찾아 응원하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LX배 한국여자야구대회는 LX그룹이 한국여자야구연맹(WBAK)과 공동



구본준 LX홀딩스 회장.

주최·주관하는 대회로, 국내 여자야구의 저변 확대와 선수들의 성장 기회 지원을 위해 지난 2022년 신설해 매년 열고 있다.

이번 대회는 역대 최대 규모로 총 47개팀 1000여명의 선수단이 참가한다. 챔피언리그(상위리그) 20개 팀과 퓨처리그(하위리그) 27개 팀이 출전해 각 리그 정상 자리를 놓고 토너먼트 방식으로 시합을 치른다. 모든 경기는 무료로 관람할 수 있으며 챔피언리그 개막전(8일)과 결승전(16일) 경기는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한다.

챔피언리그에서는 2023년, 2024년 우승팀인 ‘서울 후라’가 LX배 한국여자야구대회 3연패에 도전한다. 여기에 ‘의왕 블랙펄스’(올진 전국여자야구대회 우승)와 ‘서울 리얼디아몬즈’(익산시장기

전국여자야구대회 우승)가 새로운 우승 후보로 출사표를 던지며 치열한 각축전을 예고하고 있다.

LX그룹측은 구 회장의 의지를 반영, 한국 여자야구 발전을 위한 든든한 지원군으로서 꿈나무 발굴 및 육성에도 적극적인 후원을 하고 있다.

특히 국내 여자 야구 유망주들이 체계적인 시스템 아래 기량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일본에서의 전지훈련 및 연수 프로그램 등을 오랜 기간 지원해오고 있다. LX홀딩스관계자는 “참가 선수들이 선의의 경쟁을 통해 진정한 성장의 기회를 갖게 되기를 기대한다”며 “대회 기간 동안 선수들이 경기에 집중하고 최고의 기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경기 운영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캠코, 금융취약계층에 기부금 1억 전달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는 금융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위해 기부금 1억원을 대한적십자사에 기탁했다고 6일 밝혔다. 이날 대한적십자사 서울사무소에서 개최된 기부금 전달식에는 민은미 캠코 가계지원부 총괄이사(왼쪽), 박종술 대한적십자사 사무총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캠코



KT, ‘히어로즈 데이’ 올해 활동 마무리

KT는 국가보훈부와 함께 진행한 국가유공자 예우 프로젝트 ‘히어로즈 데이’의 2025년도 활동을 마무리했다고 6일 밝혔다. ‘히어로즈 데이’는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IT 교육과 문화 나눔을 제공하는 KT의 대표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다. 지난해부터 서울·대전·대구·광주·부산 등 5개 보훈청과 함께 진행해 왔다. /KT



대상웰라이프 ‘당프로 2.0’ CES 혁신상

대상웰라이프의 만성질환 관리 플랫폼 ‘당프로 2.0’이 세계 최대 IT·가전 전시회 ‘CES 2026’에서 디지털 헬스 부문 혁신상(Innovation Awards Honoree)을 수상했다. ‘당프로 2.0’은 AI 기반의 초개인화 건강관리 솔루션으로 사용자의 건강 데이터를 분석해 운동 루틴, 식단, 보충제 섭취 및 건강 미션 등을 개인별로 설계해 주는 서비스다. /대상웰라이프



‘화재보험협회 위험관리 세미나’ 열어

화재보험협회는 지난 5일 서울 여의도 본사에서 ‘2025 화재보험협회 위험관리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강영구 화재보험협회 이사장(앞줄 왼쪽 네번째), 한국화재소방학회 강윤진 회장, 한국소방기술사회 박경환 회장을 비롯한 주요 인사들이 자리를 함께했다.

/화재보험협회



유한양행, 생명초등학교와 환경교육

유한양행이 오창 생명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생물다양성과 ESG(환경·사회·지배구조)경영을 주제로 한 환경교육을 진행했다고 6일 밝혔다. 생물다양성 교육은 교과목과 연계해 이끼의 특성과 역할, 이끼와 미래 환경, 가을 식생의 변화, 생태 체험 활동 등으로 구성됐다.

/유한양행

## 대한항공, 글로벌 서비스 부문 인정받아

美 USA 투데이 주관 어워즈서  
비즈니스·일등석 등 3개 부문 수상

대한항공은 미국 유력 종합일간지 USA투데이가 주관하는 ‘2025 10베스트 리더스 초이스 어워즈’에서 3개 부문을 수상했다고 6일 밝혔다.

USA투데이는 매년 독자가 직접 참여하는 온라인 투표를 거쳐 항공, 공항, 숙박, 여행, 여행 장비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상위 10개 기업의 순위를 발표한다. 대한항공은 비즈니스·일등석 부문 2위, 객실승무원 부문 3위, 기내식 부문 3위에 각각 올랐다.

대한항공의 비즈니스·일등석 클래스는 좌석 시트, 기내 서비스에서 모두 호평받았다. 지난해 선보인 ‘프레스티지 스위트 2.0’은 좌석 등받이를 180도로 눕혀 침대처럼 활용할 수 있다. 기내 엔터테인먼트 시스템도 다폭 업그레이드했다. 럭셔리 브랜드와 협업한 어메니티 키트, 고급 코스 요리 형태의 기내식, 엄선된 음료 등 기내 서비스도 타 항공사와 차별화했다는 평가다.

대한항공 객실승무원은 모든 객실 클



신선한 제철 식재료를 사용해 조리한 대한항공 기내식.

래스에서 안정적이고 고객 친화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대한항공 기내식은 신선한 제철 식재료를 사용해 한국과 세계 각국 요리를 서비스하는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대한항공은 이번 수상 외에도 영국 스카이트랙스 5성 항공사 5년 연속 선정, 호주 에어라인 어라인 레이팅스의 올해의 항공사 컨설팅 전문 기관 아시아 태평양항공센터의 올해의 아시아 항공사 선정 등 글로벌 네트워크 캐리어로 명성을 이어가고 있다. /양성운 기자 ys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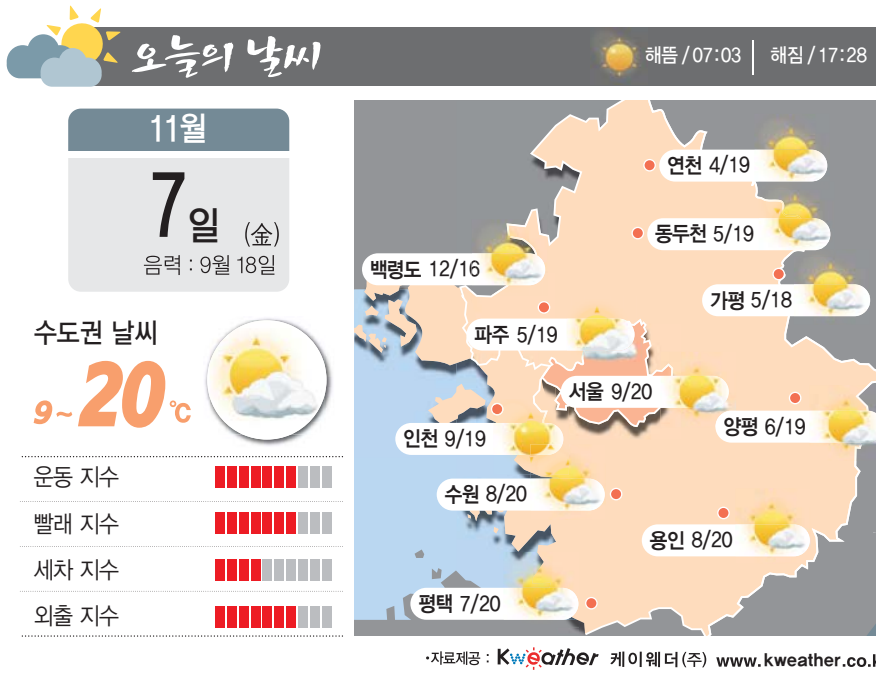
### 인사

◆ 한국폴리텍대학 ◇ 지역대학장 임용 △ 남인천캠퍼스 지역대학장 김연식

◆ 관세청 ◇ 고위공무원 전보 △ 본청 기획조정관 한창령 △ 본청 통관국장 이진희

### 부음

▲ 이정자씨 별세, 최수진(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씨 모친상 = 6일,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발인 8일 오전 10시, 장지 하늘누리 추모원, 02-3410-3151



## LG생활건강, 동반성장지수평가 최우수

9회째 선정… 업계 최다기록

LG생활건강이 2024 동반성장지수평가 ‘최우수’ 등급에 9회째 선정됐다고 6일 밝혔다. 이는 국내 화장품·생활용품 업계에서 최다 기록이다.

동반성장지수는 동반성장위원회가 매년 기업의 동반성장 수준을 평가해 5개 등급(최우수, 우수, 양호, 보통, 미흡 등)으로 나눠 계량화한 지표다.

LG생활건강은 올해도 협력사 및 소상공인을 위한 상생경영을 실천하고 있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지난 2024년 정부 중점 사업으로 처음 도입된 ‘안전보건 상생협력 지원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역량 강화를 위한 ‘기술유출방지시스템 지원사

업’을 운영한다.

지나해 협력사들과 함께 추진한 ‘상생형 스마트 공장 구축 지원사업’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혁신파트너십 지원사업을 통해 협력사의 생산량을 높이고 불량률을 줄이는 등 생산 역량을 강화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연 2회 해외 전시회 참관지원 사업을 시행해 협력사들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해외 시장 진출을 도왔다.

LG생활건강은 금융 및 경영 지원 측면에서도 하도급 거래대금 현금 지원, 명절대금 조기 지급, 상생협력펀드 운영 확대, 기술자료 임치제도 수수료 지원 지속 등 다양한 상생 활동을 펼쳤다.

/이청하 기자 mlee236@

## 삼성바이오에피스, 여가친화 경영기업 선정

자율 출퇴근제, 사내 동호회 등 지원

삼성바이오에피스가 지난 5일 문화체육관광부가 심사하는 ‘2025 여가친화 경영 기업’으로 선정돼 인증서를 획득했다고 6일 밝혔다.

여가친화경영 기업 인증은 근로자가 일과 여가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과 복지환경을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에 인증을 수여하는 제도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자율 출퇴근제,

연차사용 촉진 등 제도적 기반과 더불어 사내 동호회 및 교육·문화 프로그램 지원, 국내 휴양시설 지원 등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을 통한 여가활동 지원 노력을 인정받았다.

삼성바이오에피스 피플팀장 강대성 상무는 “임직원이 업무를 통한 성장과 여가활동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함께 추구할 수 있도록 근무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다”며 “자율과 책임의 문화를 바탕으로 더욱 일하기 좋은 기업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 ‘올해의 중진공인 선발대회’ 3인 선발

중진공, 기관·사업 혁신 공로  
김태훈, 김예지, 서태양 선정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제7회 올해의 중진공인(人) 선발대회’를 통해 기관과 사업운영 전반에 걸쳐 혁신을 선도한 3인의 우수 중진공인을 선정했다.

6일 중진공에 따르면 경영혁신 분야

는 중진자금 건전성 유지를 위해 노력한 기획조정실 김태훈 과장, 사업혁신 분야는 관세 피해기업 대상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한 해외진출사업처 김예지 차장, 현장혁신 분야는 지역 주력산업 도약을 위해 ‘5G 프로젝트’를 추진한 경남지역본부 서태양 과장을 각각 선정했다.

/김승호 기자



©M I/T, F, E



# 40주년 보노보노 특별전 in Seoul

2025. 12. 12 -  
2026. 3. 29

원작자 이가라시 마키오

충무아트센터 갤러리



# ‘공룡 식자재마트’에 대한 단상



김 승 호 의  
시 선

내가 사는 도봉구에는 전통시장인 도깨비시장이 있다.

시장 한쪽에는 대형 식자재마트인 ‘세계로마트’도 있다. 마트에서 파는 야채, 과일, 육류, 해산물 등은 시장과 대부분 겹친다. 공산품도 마찬가지다. 불편한 동거다. 세계로마트는 2024년에만 1249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세계로마트는 세계로마트그룹 계열이다. 이 회사는 경기 의정부(호원동)에선 ‘세계로유통’이란 이름의 식자재마트를 운영하고 있다. 세계로유통의 작년 매출은 1980억원이었다.

몹집이 더 큰 식자재마트도 있다. ‘식자재왕 도매마트’라는 상호로 전국 11곳에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조그룹의 푸디스트는 지난해에만 총 1조50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대구에 본사를 두고 있는 장보고식자재마트는 지난해 매출 규모가 4502억원에 이른다. 오프라인 유통시장에서 공룡이 된 곳들이다.

식자재마트는 대형마트나 기업형슈퍼마켓(SSM)과 달리 영업시간 제한, 의무휴업일 지정, 출점제한 등의 규제가 없다. 이렇다보니 일정 규모 이상인 식자재마트도 대형마트, SSM과 똑같이 규제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대형 식자재마트에 대한 규제를 찬성하는 쪽은 이들이 법을 피해가기위해 대형마트 기준인 ‘3000㎡’를 넘지 않게 운영하는 등 편법을 저지르고 있다고 지적한다.

‘법인 쪼개기’도 벌어지고 있다. 일부에선 납품단가 후려치기나 입점 기업들에게 비용을 전가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이해 관계에 따라 업계가 규제에 대해 찬성과 반대로 갈리는 것은 납득할 수 있다. 하지만 정부부처인 산업통상부가 식자재마트 규제를 반대하고 있다.

식자재마트 대부분이 중소기업이며 규제에 따른 불편이나 피해가 음식점 등을 하는 자영업자에게 전가될 우려가 있다는 게 산업부의 항변이다. 면적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규제할 근거도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몹집이 커지면 책임과 의무가 따른다. 대기업과 중견기업이 운영하는 대형마트 등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상생’과 ‘공생’은 지속성을 가능케하는 명제다. 식자재마트에 대한 규제 여부도 기존의 대형마트나 SSM에 준해 사회적 합의를 통해 결정하면 된다.

정부부처가 이같은 논리를 내세워 식자재마트 편을 드는 것은 공색한 일이다.

이재명 정부는 이참에 관련법인 ‘유통산업발전법’을 산업부에서 소상공인·전통시장 정책을 관장하는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하는 것을 심각하게 고민해야한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 식자재마트로부터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인물들이 현 정부의 소상공인 정책과 집행 분야 요직에 앉으려는 움직임도 보인다.

중기부 소상공인 전담차관으로 거론되는 인○○씨, 산하기관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으로 물망에 오르고 있는 이○○씨가 그들이다.

두 인물 모두 민주당의 외곽조직으로 비판받고 있는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설립에 크게 관여했다. 이 단체는 식자재마트가 주요 회원인 한국마트협회가 핵심 역할을 하고 있다. 분위기가 웬지 썰하다.

/ bada@metroseoul.co.kr

## 핀테크의 편리함과 ‘함정’



김 지 수 첩  
안 승 진  
(금융부)

핀테크(Fintech), 금융(Finance),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가 발전하고 있다. 단순 송금 서비스에서 시작한 핀테크는 탈규제와 기술 발달에 힘입어 지갑 없는 시대를 가져왔고, 계좌 개설·대출 등 금융 거래는 이미 비대면의 영역에 진입했다. 각종 은행, 카드사, 보험사에 흠어진 금융상품도 하나의 ‘슈퍼 앱’을 통해 비교·관리할 수 있게 됐다.

최근에는 각종 투자상품도 핀테크의 영역에 진입했다. 핀테크앱에서 종목 거래와 시황 조회가 가능해진 것은 지난 2020~2021년이지만, 최근에는 해외 주식이나 각종 파생상품도 핀테크 앱에 본격 입점했다.

투자자가 다양한 상품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하지만 우려하는 시선도 적지 않다. 핀테크 특유의 우수한 접근성이 고위험 상품과 결합해서다.

‘옵션’으로 대표되는 파생상품은 일반적인 증권 상품과는 달리 ‘전액손실’의 가능성이 상존한다. 기존 상품 대비 몇 배나 되는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지만, 손실 가능성도 수익률에 비해해 극대화된다.

금융당국은 파생상품 거래를 희망하는 투자자들에게 사전교육 및 모의거래를 필수적으로 이수하도록 정한다. 의무 교육에는 통상 1시간 이상 소요된다. 그런데 핀테크 앱은 이같은 필수 교육을 수십 초면 풀 수 있는 퀴즈 형태로 간략화했고, 직관적인 사용자경험(UX)·사용자공간(UI)을 통해 상품의 매력을 부각시킨다. 초보 투자자에게 ‘맹목’으로 작용할 수 있다.

최근 청년 세대에서는 빚을 내서라도

투자에 참여하는 ‘빚투족’이 늘었다. 상반기부터 국내·외 자본시장의 호황이 이어지는 가운데, 기회를 놓칠까 두려워하는 ‘포모(FOMO·Fear of Missing Out)’ 현상 때문이다. 빚을 내서라도 투자에 동참하는 젊은 투자자와 손쉽게 접근 가능한 고위험 상품이 만나 ‘빚쟁이 청년’을 양산할 수 있는 형세가 됐다.

과거 인터넷전문은행 출범 당시 인터넷 은행은 청년을 대상으로 무담보·비대면을 앞세운 ‘비상금대출’을 적극 취급했다. 소득이 없어도 이용이 가능했던 만큼, 막대한 수요가 몰렸다. 그리고 몇 년 만에, 수십만원에 불과한 빚에도 대출을 갚지 못하는 ‘청년 연체자’가 쏟아졌다.

핀테크는 우리 생활에 대체 불가능한 편리함을 가져왔다. 그러나 손쉬운 대출, 고위험 투자상품과 같은 위험성도 가까운 곳까지 끌어들었다. 이를 인식하고 분별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소비자의 몫으로 남았다. /asj1231@

오늘의 운세 11월 7일 (음 9월 18일) http://www.saju4000.com



36년생 이루지 못한 길에 아쉬움이. 48년생 물이 너무 많으면 물고기가 살지 못한다. 60년생 벌을 두려워하면 꿀을 얻지 못한다. 72년생 재혼이 어려운 것을 좀 더 일찍 알았더라면. 84년생 행운이 이어지니 훈훈한 인심을 보내자.



37년생 앞만 보고 달리니 시야가 좁다. 49년생 기대를 접으니 오히려 편하다. 61년생 무더위가 가면 그들의 덕은 있는 법이니 비워라. 73년생 오후에 갑자기 병문안 같일이 생긴다. 85년생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38년생 기대를 접으니 결과에 감사. 50년생 주식 투자에서 이익을 가져온다. 62년생 같이한 동업자에게 믿음을 갖고 출발하자. 74년생 뿌린 대로 걷는다니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 86년생 서북 방향에서 과거의 귀인이 다시 찾아온다.



39년생 자식의 발전은 자식에게 맡겨놓자. 51년생 우물거에서 송능 찾듯이 서두르지 말자. 63년생 버는 익을수록 고개 숙인다. 75년생 부동산 매매에 법적인 문제가 없도록 살펴라. 87년생 사돈 만나서 대인관계에서 유약하지 않도록.



40년생 나의 결점을 찾는 것도 사회생활에서 중요. 52년생 오후에 차량 안전에 주의. 64년생 더 노력해야 개선된다. 76년생 주변의 물건을 정리하니 산란한 마음도 정리. 88년생 동창회에서 만난 어려운 친구를 생각하여 베풀라.



41년생 한발 물러서서 양보하면 보인다. 53년생 신용으로 마음을 움직여라. 65년생 불평보다는 상대방 처지에서 이해하라. 77년생 이금심도(以琴心術)하듯 휴일날 취미생활을 하자. 89년생 원활한 인간관계를 맺기 위해 인색하지 마라.



42년생 하루의 계획은 이른 아침에. 54년생 상사와 대화 시 언제나 겸손하여지자. 66년생 서두르지 않으면 할 일이 없어 공색한다. 78년생 인정은 변하기 쉽고 세상의 도는 엄하다고 했는데. 90년생 가족에게 베푼 태도는 힘만 든다.



43년생 말을 절하는 것도 기술이니 습득하자. 55년생 근면하고 겸손한 배우자는 인생의 선물. 67년생 급할수록 돌아가서 내실을 찾자. 79년생 연봉을 자랑하기보다는 상대가 배고플 때 베풀라. 91년생 활력이 있지만, 건강을 조사해 보자.



44년생 자칫 잘못된 만남으로 양다리 되지 마라. 56년생 지도에도 없는 길을 개척하니 승부사이다. 68년생 가정에서 부화부순(夫和婦順)해야. 80년생 이른 아침부터 순조로운 하루로 즐겁다. 92년생 어찌다가 술자리에서 실수하지 않도록.



45년생 내 뜻대로 되지 않으나 양보하니 일이 풀린다. 57년생 지나치게 겸손해도 실례가 될 수. 69년생 동료와 대인관계를 살들하게. 81년생 새벽에 일어나니 온 주변이 꽃동산이다. 93년생 겨울은 혼자서는 울지 않으니 이기심을 버려라.



46년생 남을 원망하지 마라 부족한 것은 나의 탓. 58년생 외국어 공부로 미래를 대비하라. 70년생 친구 만나 의외의 지출이 많다. 82년생 머리가 복잡하다면 버릴 것은 과감히 버리고 후회 말라. 94년생 독단적인 결정은 손해수를 부른다.



47년생 고집부리다 아군이 적군으로. 59년생 새로운 아이디어로 회사에 이익을. 71년생 사소한 인연이라도 소홀하지 말라. 83년생 가는 사람 붙잡지 말고 오려는 사람 막지 마라. 95년생 불행한 일이 일어나도 힘을 발휘할 수가 있음이다.



## 김상회의四季 존엄과 품격

인간은 영원히 살고자 하는 존재 욕구로 종족 번식 본능, 즉 성 본능이 기본 디플트라고 하는 주장들을 종종 본다. 따라서 인간의 행복은 생존과 번식이고, 여기에 기반을 둔 진화의 산물이라고 주장한다. 고상한 음악과 미술, 조각 등 문화와 예술은 물론 종교적, 정치적 활동을 포함한 모든 행위는 ‘생존과 번식’ 본능의 반영이라고. 인간도 동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행복론 같은 거대한 담론엔 빠지지 말아야 한다고 일관되게 주장한다. 그렇다면 종족보존에 관한 개인적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나면 교미 후에 수컷을 물어 죽이는 거미나 사마귀 같은 곤충들처럼 인간도 나이 먹어 제 기능을 못 하게 되면 사라져 줘야 마땅한 것인지 묻고 싶다. 삶이 본능에 충실한 것을 부정할 수는 없으나 그게 다는 아니지 않을까? 인간이 존엄과 품격을 소중히 한 예는 명예를 위해, 타인을 위해 목숨을 내던지는 사람들은 본능에 충실한 동물이기를 포기한 존재겠다 싶다.

언젠가 타이타닉호의 비극에 관한 글을 본 적이 있다. 영화로서도 재밌게 보았지만, 당시 타이타닉호에 탑승하여 죽음을 맞이한 이들 중의 많은 이들이 존엄을 잃지 않겠다며, 신사답게 죽겠다며 의연하게 최후를 맞이한 스토리에 가슴이 먹먹해진 기억이 있다. 당시 배의 일등석에 탑승한 VIP 중 VIP로 꼽힌 부자 벤저민 구겐하임은 가장 비싼 민간용 턱시도를 입고 양손에는 시가와 브랜드를 든 채 품위 있게 죽음을 맞겠다며 자신의 현 지처와 하인은 구명정에 밀어 넣고, 구명조끼라도 입어야 한다는 선원의 말까지 거부하곤 기품 있게 죽었다고 한다. 또 다른 VIP 존 제이콥 애스터 4세도 승객을 대피시켰고, 백화점 업계의 거물 스트라우스 부부는 구명정의 두 자리를 양보하고, 이 외에도 다수가 고귀한 존엄을 택했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회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 metro 메트로미디어                                         |                                 |                   |       |
|------------------------------------------------------|---------------------------------|-------------------|-------|
|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                                 |                   |       |
| 발행·편집인                                               | 이 장 규                           | 편집국장              | 윤 휘 중 |
| 인 쇄 인                                                | 중앙일보(주)                         |                   |       |
| 광고문의 / 독자센터                                          | 02)721-9851, 9826 / 02)721-9861 |                   |       |
| 일간 메트로                                               | 서울 가00206                       | 2002년5월28일 제5787호 |       |
| 일간 메트로경제                                             | 서울 가150111                      | 2017년3월09일 제1891호 |       |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                   |       |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새벽하루

스도쿠365

문제풀이: 3X3 �도쿠 X는 가로,세로,3X3각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회색 9개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결함형스도쿠

153종

컬러스도쿠110

주사스도쿠 120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고난도의 월드파일을 즐겨보세요

http://www.argo9.com

할인도서

|   |   |   |   |   |   |   |   |   |
|---|---|---|---|---|---|---|---|---|
| 5 | 4 |   |   | 3 |   | 2 |   | 9 |
|   |   |   | 9 |   | 4 |   |   | 3 |
| 8 |   |   | 2 |   |   |   |   |   |
|   | 2 |   |   | 5 |   | 9 | 7 |   |
| 1 |   |   | 4 | 9 | 2 |   |   | 6 |
|   | 6 | 7 |   | 4 |   |   | 5 |   |
|   |   |   |   |   | 5 |   |   | 8 |
| 4 |   |   | 8 |   | 6 |   |   |   |
| 2 |   | 8 |   | 6 |   |   | 9 | 7 |

|   |   |   |   |   |   |   |   |   |
|---|---|---|---|---|---|---|---|---|
| 4 |   |   |   |   | 5 |   |   | 6 |
|   | 7 |   |   | 1 | 3 | 9 | 4 |   |
|   | 6 | 2 |   |   |   | 5 |   |   |
| 5 | 8 |   | 3 |   | 2 |   |   |   |
|   | 3 |   |   |   |   |   | 1 |   |
|   |   |   | 1 |   | 4 |   | 6 | 3 |
|   |   | 4 |   |   |   | 2 | 5 |   |
|   | 4 | 7 | 5 | 6 |   |   | 3 |   |
| 1 |   |   | 8 |   |   |   |   | 7 |

|   |   |   |   |   |   |   |   |   |
|---|---|---|---|---|---|---|---|---|
| 4 | 6 | 7 | 9 | 9 | 9 | 8 | 1 | 2 |
| 9 | 2 | 9 | 9 | 1 | 8 | 6 | 4 | 7 |
| 8 | 7 | 1 | 9 | 2 | 9 | 9 | 6 | 9 |
| 2 | 9 | 8 | 1 | 7 | 9 | 9 | 6 |   |
| 9 | 9 | 2 | 6 | 7 | 9 | 9 | 1 |   |
| 1 | 2 | 6 | 9 | 9 | 9 | 7 | 2 | 9 |
| 7 | 9 | 9 | 6 | 2 | 1 | 9 | 9 | 8 |
| 9 | 1 | 9 | 7 | 8 | 6 | 2 | 9 | 2 |
| 6 | 8 | 2 | 2 | 9 | 1 | 9 | 7 | 9 |

|   |   |   |   |   |   |   |   |   |
|---|---|---|---|---|---|---|---|---|
| 2 | 2 | 7 | 9 | 6 | 8 | 9 | 9 | 1 |
| 6 | 9 | 1 | 8 | 9 | 9 | 2 | 7 | 2 |
| 8 | 9 | 2 | 1 | 9 | 2 | 7 | 6 | 9 |
| 9 | 9 | 2 | 7 | 1 | 8 | 2 | 6 |   |
| 9 | 1 | 8 | 6 | 2 | 7 | 9 | 9 | 2 |
| 7 | 6 | 9 | 2 | 1 | 9 | 1 | 8 | 9 |
| 1 | 8 | 9 | 2 | 7 | 6 | 2 | 9 | 9 |
| 2 | 7 | 6 | 9 | 1 | 9 | 9 | 2 | 8 |
| 9 | 2 | 9 | 9 | 8 | 2 | 6 | 1 | 7 |



# 양과 부엉이가 키운 포도로... 그르기치 힐스 이스테이트



안 상 미 기자의  
Why, wine 302

“노 매직(No Magic).”

와인메이커는 마법사가 아니다. 그 저그런 포도로 좋은 와인을 만들어낼 비법은 없다. 좋은 와인을 만드는데 있어 모든 것은 포도에서 시작된다.

이 땅에서 난 와인이 여러 세대를 이어주는 가교가 됐다면 우리의 역할은 포도밭 역시 여러 세대를 거쳐 이어져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일 터. 그 유명한 ‘파리의 심판’으로 나파밸리 부흥을 이끌었고, 이젠 재생농법으로 지속가능한 세상을 꿈꾸는 와이너리 ‘그르기치 힐스 이스테이트’(이하 그르기치 힐스)’다.

미국 캘리포니아 나파밸리의 와이너리 그르기치 힐스에서 수출매니저를 맡고 있는 마야 제라마즈(Maja Jeramaz)는 최근 한국을 방문한 자리에서 “유기농법을 넘어 20년째 재생농법을 고수하고 있다”며 “포도밭 관리에 있어 인위적인 계획을 배제하고 가능한 자연적인 방식으로 한다”고 강조했다.

그르기치 힐스는 ‘파리의 심판’에서 화이트 1위를 차지한 와인의 양조자 마



그르기치 힐스 이스테이트의 수출매니저 마야 제라마즈(Maja Jeramaz)가 최근 한국을 방문해 그르기치 힐스 와인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크 그르기치와 사업가 오스틴 힐스가 세운 와이너리다. 그르기치 가문이 와인 양조와 와이너리 경영을, 힐스 가문이 자본 투자를 맡았다. 50대 50의 지분 구조는 여전히 유지 중이며, 마이크 타계 이후엔 그의 딸인 바이올렛 그르기치가 경영을, 조카 이보 제라마즈가 양조를 담당한다. 마야는 3세대로 이보의 딸이다.

마야는 “인위적으로 땅을 개간하지 않고, 2월이면 양을 빌려와 포도나무 사이사이에 자란 커버 크롭(Cover Crop)을 먹게 하는 방식으로 관리한다”며 “부영이가 해충을 잡아먹고, 다양한 식물



왼쪽부터 그르기치 힐스 이스테이트 나파 밸리 소비뇽 블랑, 그르기치 힐스 이스테이트 나파 밸리 샤도네이, 그르기치 힐스 이스테이트 나파 밸리 로제, 그르기치 힐스 이스테이트 나파 밸리 멀롯, 그르기치 힐스 이스테이트 나파 밸리 카버네 소비뇽, 그르기치 힐스 이스테이트 온트빌 올드 바인 카버네 소비뇽.

/안상미 기자

과 동물이 포도나무와 공존한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기후로 보면 나파밸리는 흥미로운 곳이다. 샌프란시스코 해안에서 바람이 불어와 남쪽이 시원서늘하고, 북쪽의 기온이 더 높다.

그래서 그르기치 힐스를 알아가는 여정은 남쪽부터 출발한다. 소비뇽 블랑과 샤도네이는 남부에 위치해 서늘한 카르네로스와 아메리칸 캐년에서 재배한 포도를 쓴다.

‘그르기치 힐스 이스테이트 나파 밸리 소비뇽 블랑’ 2022는 신선하면서 오크 뉘앙스가 은은하다. 필요이상의 날

카로움 없이 긴 여운으로 10년 안팎의 장기숙성도 가능하다.

‘그르기치 힐스 이스테이트 나파 밸리 샤도네이’는 그르기치 힐스를 대표하는 플래그십 와인이다. 나파밸리 샤도네이라고 하면 두툼한 오크 풍미를 연상하기 쉽지만 그르기치 힐스는 좋은 산도로 신선함을 잘 지켰다. 미국보단 유럽 스타일이다. 2022 빈티지는 섬세한 꽃향기에 잘 익은 과실, 생동감 있는 산도로 여운이 길게 남는다. 지금도 좋지만 산도가 워낙 좋아 10~15년 추가 숙성도 가능하다.

‘그르기치 힐스 이스테이트 나파 밸리

로제’는 2016년부터 만들었다. 여타 로제와 달리 소비뇽의 비중이 가장 높고, 진관텔과 소비뇽 블랑도 블렌딩 했다.

‘그르기치 힐스 이스테이트 나파 밸리 카버네 소비뇽’은 카버네 소비뇽에 멀롯, 뽀띠 베르도, 카버네 프랑을 섞은 전형적인 보르도 블렌딩으로 만들었다. 2020는 잘 익은 과실향과 함께 은은한 꽃향기가 어우러진다. 부드러운 타닌을 좋은 산도가 받쳐주고, 여운은 길게 남는다.

산불로 난리가 났던 2020 빈티지에 대한 걱정은 접어둬도 된다. 그르기치 힐스의 포도는 정말 검사까지 거쳤지만 영향이 전혀 없었다. 포도껍질이 건강하고 두꺼워 연기가 침투하지 못했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르기치 힐스 이스테이트 온트빌 올드 바인 카버네 소비뇽’ 2019는 1959년에 식재된 올드 바이너리로 양조했다. 나파밸리에서 손꼽히는 산지인 온트빌에서는 가장 오래된 카버네 소비뇽, 나파밸리 전체로도 두 번째로 오래됐다. 지난 2023년 설립자 마이크의 100세 생일을 기념한 와인이기도 하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이 지혜로워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포도도 더 집중력 있고, 힘이 있어진다. 타닌은 부드럽고, 농축미와 복합미가 인상적이다.

/smahn1@metroseoul.co.kr



## 문화 단신

### 롯데컬처웍스, 내달 ‘크리스마스 뮤직 페스티벌’ 개최

종합 콘텐츠 기업 롯데컬처웍스가 크레디아뮤직엔터테인먼트와 함께 ‘2025 크리스마스 뮤직 페스티벌’을 개최한다.

올해는 12월 24일부터 28일까지 5일간 클래식, 뉴에이지, 대중음악, 뮤지컬 등 각 장르를 대표하는 거장들이 선보이는 시리즈 공연으로 관객들을 만날 예정이다.

12월 24일 바이올리니스트 대니 구의 크리스마스 콘서트 ‘HOME’으로 페스티벌의 화려한 막을 올린다.

크리스마스 당일인 12월 25일,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지휘자 금난새의 패밀리 클래식 콘서트 ‘금난새의 크리스마스 선율’이 펼쳐진다.

12월 26일에는 김광진 겨울 콘서트 ‘The Treasure’를 개최한다. 12월 27일, 연말 시즌 대표적인 스테디셀러 콘서트 ‘2025 Year End Concert -유키 구라모토와 친구들’이 올해도 관객들을 찾아온다.

마지막으로, 12월 28일 대한민국 최초 뮤지컬 전문 오케스트라 The M.C가 20주년을 기념하여 김문정 음악 감독과 함께 콘서트를 연다.

‘2025 크리스마스 뮤직 페스티벌’은 클럽발코니, 롯데콘서트홀, 인터파크 티켓에서 예매할 수 있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각 예매처에서 확인 가능하다.

### 메가박스, 네 번째 ‘돌비 비전+애틀로스’ 특별관 오픈

메가박스가 오는 14일 서울과 경기 서북부의 관문인 고양스타필드점에 ‘돌비 비전+애틀로스’ 특별관을 정식 오픈한다. 지난 6월 구의 이스트폴점에 첫 선을 보인 후 목동점과 청주터미널점에 이어 국내 네 번째며, 총 218석 규모다.

‘돌비 비전+애틀로스’는 돌비가 새롭게 선보이는 ‘차세대 돌비 비전 레이저 프로젝터’와 차세대 몰입형 음향 기술 ‘돌비 애틀로스’가 결합된 통합 솔루션이다. 돌비 비전 레이저 프로젝터는 일반 프로젝터 대비 두 배 이상 밝기와 100만 대 1의

명암비를 통해 풍부하고 깊은 색감을 제공해 더욱 정교하고 생동감 넘치는 비주얼을 즐길 수 있다. 이에 더해 돌비 애틀로스가 제공하는 공간감 넘치는 사운드는 영화 장면 속 한 가운데에 있는 듯한 몰입감을 선사한다.

또한 고양스타필드점 ‘돌비 비전+애틀로스’관에서는 카네기홀, 오페라하우스 등 세계 최고의 공연장들이 선택한 음향 전문 마이어 사운드 스피커로 최적의 돌비 애틀로스 음향 기술을 경험할 수 있다.



## 주말은 책과 함께

### 완벽주의란 중병을 치유하는 8가지 처방전

“완벽주의적인 성격 때문에 일을 제시간에 마치기 힘들다”는 푸념을 주변에서 자주 들었다. 필자도 그중 하나다. 왜 이런 성정을 갖게 됐나 성장 과정을 돌아켜봤다.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다. 학교 다닐 적에 97점을 맞은 시험지를 들고 집에 가져갔더니 “자꾸 덩벙대니까 문제를 제대로 안 읽어 100점을 못 맞은 거다”는 잔소리를 들었다. 매번 이런 식이니 완벽주의가 생길 수밖에. 많은 한국인이 이런 경쟁적인 환경 속에서 채찍질을 맞고 자란 탓에 완벽주의란 중병을 앓는다.

‘나태한 완벽주의자’는 노트에 가득 적힌 두 리스트(할 일 목록)를 보면서 한숨만 짓는 이들을 위한 마음 처방전이다. 저자는 완벽주의자들이 일을 미루는 ‘게으름의 패턴’을 8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각 원인을 분석해 해결 방안을 제시한다.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라며 혼란스러워하는 사람들에게 “당신은 게으른 게 아닌, 다음 단계가 뭔지 알지 못하는 것뿐”이라며 시간을 들여 필요한 정보를 찾고 숙고하는 과정을 가져보라고 조언한다. “난 할 수 없어”라며 패닉에 빠진 이들에게는 “두려움을 피하지 말고 포용하라”면서 행동과 감정을 분리해 다루는 방법을 알려준다. “실패하면 안 돼”라는 압박에 시달리는 영혼들에게는 “실패를 배움으로, 도전을 기회로 새롭게 정의하라”는 충고를 건넨다. “너무 피곤해서 도저히 행동



나태한 완벽주의자

피터 홀린스 지음/박정은 옮김/넥서스BIZ

할 수 없어”라며 늘 누워만 있는 친구에게는 “생활 방식을 점검하고 피로감이 어떤 의미를 전달하는지 찬찬히 생각해봐라”고 이야기한다. “나는 그냥 게으른 사람이야”라고 포기할 선언한 이들에게는 자신에 대한 믿음 부족을 극복할 마음 챙김 명상을 제안한다. “일단 재밌는 것부터 하고, 일은 나중에 해야지”라며 편안함을 추구하는 친구들에게는 “의지를 다잡고 행동으로 옮기면서 꾸준히 실천하라”는 해결책을 준다. 마지막으로 “모든 게 영망이야”라며 낙담한 사람들에게는 ‘평온의 기도’를 권한다. “내가 바꿀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는 평온함과 바꿀 수 있는 것을 바꿀 용기, 그리고 그 둘을 분별하는 지혜를 허락하소서. 아멘” 224쪽, 1만5000원.

/김현정 기자 hjk1@

- ▲ 미 연방대법관 9명 중 6명이 트럼프 관세에 부정적
- ▲ 미 민주당 4일 선거 승리… ‘셋다운 사태’ 장기화 가능성

- ▲ 루브르 절도범 1명, ‘미술관 경비원 경력 전과 15범 유튜브’
- ▲ 中, 대미 24% 추가관세 1년 유예…10% 기본세율은 유지



- ▲ 日 다카이치, 94조원 규모 추경 추진…방위·AI 투자 확대
- ▲ ‘일본인 모녀’ 사상 유족…“한국 음주운전 처벌 강도 우려”

/사진 뉴스





에이피알  
美·유럽 흥행 질주  
매출 1조 클럽 눈앞  
02

metro®

Life

유통-금융 '동맹'  
얼굴인식 결제로  
네이버·쿠팡페이 대응  
N1



# 자연이 머물고 예술이 깃든 감성 라이프

## 아파트의 미학(美學)

### ‘분당 아테라’

올해 7월부터 시작해 입주가 마무리된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의 ‘분당 아테라’. 수인분당선 야탑역으로부터 탑마울, 매화마을, 목련마을 등 1기 신도시 조성과 함께 들어섰던 나즈막한 단지들을 지나면 양쪽으로 공원을 둘러싼 숲과 함께 분당 아테라 입구가 나타난다. 야탑동에서는 무려 20여년 만의 신축 단지다.

분당 아테라는 성남시가 기존 공영주차장 부지를 주택 용지로 전환하면서 들어섰다. 유희부지 활용은 최근 새로 아파트를 지을 땅이 없는 도심지에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대안으로 주목을 받았는데 분당 아테라의 경우 이미 2022년에 착공해 올해 입주까지 끝냈다. 성남시가 공공분양주택 사업으로 주도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위탁을 받아 금호건설이 시공했다.

20년 만에 들어선 야탑 신축  
공영주차장 터 활용 주거사업  
성남시·도시개발공사공동추진  
탑골·성지공원 품은 녹지 입지  
예술·수경시설로 감성 더한 단지

단지는 지하 3층~지상 21층, 4개동, 총 242가구 규모다. 전용면적 별로는 ▲74㎡ 71세대 ▲84㎡A 71세대 ▲84㎡B 30세대 ▲84㎡C 70세대 등이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으로 ‘국민평형’의 분양가도 8억원을 밑돌면서 일반분양의 경우 청약경쟁률이 최고 30대 1을 기록했다.

단지 규모 자체는 크지 않지만 성남시에는 유희부지를 활용한 주택 공급으로, 금호건설에는 신규 론칭 브랜드 ‘아테라’ 적용으로 의미가 크다 보니 내외부 인프라는 물론 조경도 완성도가 높아졌다.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는 매월 1회 합동 점검을 통해 단지 조경이나 경관 조명까지 챙겼을 정도다. 현장 주변 도로는 전면 재포장하고, 중앙분리대

설치와 보행자 도로 정비도 병행해 단지 외부 인프라도 새롭게 단장했다.

분당 아테라는 입지 자체가 도심 속 공원이다. 왼쪽으로는 탑골공원, 오른쪽으로는 성지공원이 자리했다. 단지 설계도 자연경관과 어울려서 공원과 주거의 경계를 허물도록 했다.

금호건설은 아테라만의 정체성을 살려 암석원과 수경시설, 미술작품 등 예술적 감성이 녹아든 조경 특화를 적용했다. 탑골공원을 걷다보면 공원의 일부인듯한 벽화가 단지의 경계다. 벽화는 바다의 파도, 물의 흐름, 파동, 산의 형세, 바람의 모습 등 자연의 다채로운 형태들을 표현해 새로운 에너지를 느낄 수 있도록 했다.

벽화에서 단지 입구쪽으로는 가면 웅장한 자연의 경관을 그대로 옮겨와 조성한 석가산이 나온다. 기암괴석과 조화로운 수목이 공존하는 공간에서 산수화 같은 자연 풍경을 감상할 수 있다.

단지 내로 올라가면 필로티와 연계한 테마 정원과 수경시설이 나온다. 공원 속 식물원처럼 출입구 쪽으로는 대형목으로 식재를 하고, 안쪽으로는 사계절 경관을 즐길 수 있는 초화류를 배치했다.

단지 내에는 윤성필 작가의 ‘에너지...생동하는 생명체’와 조보환 작가의 ‘리프레시(Refresh)’ 등 모두가 감상할 수 있는 작품이 놓여졌다.

어린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놀이터 역시 자연을 모티브로 했다. 숲속 놀이터는 거대한 소나무를 모던 디자인 형태로 풀어냈고, 도란도란 놀이터는 꽃이 가득 핀 숲 속 정원의 새장으로 표현했다. 놀이터 옆으로는 아이들을 보며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티 하우스와 파고라가 있다.

한편 아테라는 금호건설이 20여년 만에 신규로 론칭한 주거 브랜드다. ‘예술(ART)’, ‘대지(TERRA)’, ‘시대(ERA)’의 합성어로 삶의 공간인 집을 대지 위의 예술’로 구현하겠다는 주거 철학을 담았다. 분당 아테라를 포함해 올해 전국 6개 단지가 아테라 브랜드로 입주한다.

/안상미 기자 smahn1@metroseoul.co.kr

① 분당 아테라 단지 전경 ② 단지 내 조형물  
③ 암석원 ④ 단지 외부 벽화

